

목 차

● 쿨가이가 되자 - 강호입문편(江湖入門編)	1
● 쿨가이가 되자 - 연공편(鍊功編)	11
선택의 주체는 누구인가	13
1개월 변신 비급	16
● 쿨가이가 되자 - 실전편(實戰編)	21
작업에 임하는 기본자세	23
비지시적 최면	25
알고 지내는 여자를 유혹하는 실전 초식1	27
알고 지내는 여자를 유혹하는 실전 초식2	30
앵커링 -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의 초식	32
쿨가이의 시작과 끝, 센터링을 위한 실전 초식 -스위시	35
내 여자로 만드는 실전 초식- 혼란	37
내 여자로 만드는 실전 초식- 시간선 혼란	41
실전 비급 중간 정리	44
질문의 중요성	48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실전 초식	49
쿨가이의 필살초식 - 임베드 커멘드(Embed Command)	51
정신공간 다루기	55
섹스 실전 초식	59
어떤 사랑을 만들고 싶은가	62

● 쿨가이 비급 총정리	67
● 쿨가이 배경지식	75
쿨가이 탄생 배경	77
میم으로서의 쿨가이와 센터링	79
쿨가이의 센터링 - ‘왜’와 ‘어떻게’	85
● 쿨가이 외전	89
그녀를 잊기로 한다	91
새로운 사랑 ‘끌어오기’	93
직접최면으로 이성 유혹하기	97
도대체 그녀는 왜 그럴까	99
그녀의 마음이 흔들릴 때	101
NLP, 유목화에 대한 설명	103
● 쿨가이가 되자 -FAQ-	105
[부록] 에릭슨 언어패턴과 예제	115

쿨가이가 되자
강호입문편(江湖入門編)

쿨가이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

자고로 풍진강호에는 무수한 고수들이 피고 지며 수많은 일화를 남기고 비급을 남겨왔다. 기상천외한 상승절학들이 비밀리에 전승되기도 했고, 기본에 충실한 정통내공심법이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계통과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비법들도 결국은 만류귀중. 몇 가지의 핵심적인 금과옥조로 축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름을 날리는 수많은 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상승 구결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고수들 중 태반은 이러한 기법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타고났거나, 무수히 많은 실전경험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정순한 내공이 쌓이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강호에는 이러한 세계를 모르는 순진무구한 행자들이 대부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알몸에 뺨단검 하나 들고서 실전에 뛰어드는 강호 초출들이 수없이 많다. 오늘도 초전에 내상을 입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가는 초행자들이 가엽고도 가엾지 아니한가?

그리하여 이제는 이 땅에 흐르는 초행자들의 눈물과 뜨거운 선혈을 그치고자, 바르게 익혀 고수가 될 수 있는 핵심구결을 과감히 공개하노라. 이제 강호를 질타하고 이름을 떨치기를 꿈꾸는 그대들에게 이를 전수하고자 하니 뜻있는 행자들은 정신통일하고 정좌한 채로 합장 일배 후 겸허한 마음으로 읽을 것을 당부한다.

본서, 비급 ‘쿨가이가 되자’는 은허(殷墟)의 갑골에 새겨져 있던 희귀 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의 제목은 작자를 알 수 없는 선천 시대의 비전절학 구음정경(九陰正經)이라 하는데, 이것을 본좌 음와심권이 친히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짧지만 핵심이 담겨있는 구음정경의 전문을 아래에 싣노니, 이 비급을 남긴 전대기인의 높은 뜻에 잠시 묵념한 뒤 일심으로 정독할 것을 권한다.

“연자에게 전하노라. 그대가 이 비급을 접하고 있을 때 본좌는 이미 등선하여 선계를 유람하고 있을 터… 속세를 위한 작은 공덕으로 이 비급 구음정경을 남기노니, 부디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구결을 전수하노라…

내상을 입지 않고 이성을 유혹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안전! 상대로 하여금 작업 걸고 있는 그대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 여협들은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 작업에 넘어오지 않는 법.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우선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충분히 드러내고 보여줄 필요가 있느니라. 남자는 힘? 무조건 저돌적으로 돌진? 그것은 크나큰 착각에 불과할지니. 그리 행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패할 공산이 훨씬 크도다. 기억하라! 상대를 유혹하려거든, 상대에게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라.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로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 방사를 치르기 전 이불을 먼저 깔아놓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단계에 불과하도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된 후 그 저 상대방과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사랑이 싹트기를 바라느냐? 그대의 이마에는 영원한 좋은 친구라는 낙인이 새겨질 것이로다. 지극정성을 다하여 위해주고 놀아주고 선물하고 즐겁게 해주었는데… 그리하여 편하고 안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뒤에 돌아오는 결과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넌 좋은 친구야.’ 이걸 원하는 것이었는가? 그대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것이려나?

세이정청하라. 수 없이 많은 강호초출들의 내공을 흠어버리고 졸지에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극악의 ‘좋은친구신공’에 당하지 않으려거든, 내 말을 잘 들으라. 일단 상대방이 그대를 안전하게 여기게 되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작업단계로 넘어가도록 할지이다. 강호 초행자들은 작업을 하겠다. 마음먹으면 긴장한 나머지 그나마 가진 가문의 절초도 써보지 못하고 비명횡사 하는 일이 다반사… 이를 피하기 위한 내공심법을 알려주노니 잘 듣고 새기도록 하라. 이는 무척이나 간단하노니, 상대와 시선이 마주치면 무조건 3초 안에 말을 하라! 보통 사이라면 눈이 마주쳐도

선선히 시선을 돌려도 되겠으나, 작업하고자 마음먹은 상대라면 그래서
는 아니 될 법. 시선이 마주치면 3초 안에 가벼운 목례라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느끼한 한량 취급이나 당하기가 십상일지이다. 기억할 것!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아는 체를 하며 말을 걸지라.

말을 걸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 하는 행자들이
있음을 잘 아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비전구결이 있으니, 이 세
가지 구결의 이치 안에서 말을 시작하도록 한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것
을 말하라. 둘째, 질문하라. 셋째, 칭찬하라.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을 서른
개 가량 만들어서 필사한 뒤 철저히 외우도록 할지이다. 시선이 마주친
뒤 3초 안에 그 중의 한 가지 문장이 바로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첩경이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노니… 첫 번째 구결의 경우는 머리모
양이나 장신구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조금 피곤해보이시네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느니라. 두 번째 구결, ‘질문’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을지니,
일단 질문을 하면 무엇이든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도다. 잘 모르는 여협
에게라도 길을 물으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며 대답을 해주게 마련. 서
당 동기라면 학문 이야기를 물을 수가 있겠고, 같은 무림인이라면 무공
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혹은 첫 번째 구결과 연결하여 오늘
은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새로운 절초라도 익히셨는지요 낭자? 정도도
 좋으리라. 세 번째 구결은 ‘칭찬’ 이것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그대
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지이다. 이 세 가지 구결을 조합하여 서른 가지
정도의 문장을 만들고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라. 만일 순발력에 자신이
있다면 필사하거나 외울 필요 없이 기본구결만을 숙지한 뒤 마음 가는대
로 초식을 펼치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절반은 끝났느니. 다음은 점혈수법으로 정확한 혈도를
짚어낼 차례로다. 우선은 질문을 하고, 상대가 답을 하기 시작하면 건성
으로 듣도록 한다. 남성은 여성과 구조가 다른 바, 여성이 하는 말을 진심
으로 열심히 듣고 있으면 심맥이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공산이 크도
다. 진정으로 경청하다 주화입마에 들지 말고, 경청할 자신 없으면 경청
하는 척이라도 할지이다. 그런 척을 하는 남성조차도 거의 없는 강호무

림이므로, 그대는 당연히 우위를 점할 것이로다.

이 때 주의하라.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하여 그대의 좋은 의견이나 해결책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라. 그럴 때 절대 그러지 말라! 여협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로다. 이것은 중요하도다! 의견이나 해결책을 말하고 싶을 때, 숨을 참고 열까지 세어라. 지식(止息)을 행하며 그리 하면, 그대의 의견이나 해결책을 말할 기회가 지나가버릴 것이라. 그리되면 이미 점혈의 절반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중요하도다. 아마도 시중의 무공비급을 보면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는 책들이 무수할 것이다. 의견이나 판단, 해결책을 말하고 싶을 때 참으라고 말이다. 그러나 어떻게?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디에? 여기 있도다. 숨을 참고서 열까지 세라. 진정 중요한 내공심법이니 반드시 익혀두도록 하라.

‘십초 숨참기’로 점혈의 반이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말따라하기 점혈법이로다. 여협이 어제 바닷가에 갔었는데 바람이 너무 좋았다고 했을 때 대체 어느 놈이랑 갔다 왔다는 말인가?(부들부들...) 하는 생각부터 한다면 그 행자는 비명횡사하여 강호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로다. 여협이 그런 말을 하거든, 바다 좋지요. ‘정말 어제는 바람이 시원했어요.’하고 상대가 한 말을 따라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번 해보도록 하라. 여협이 아주 신이 나서 마음껏 재잘거려 줄 것이로다. 따라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면 ‘오~ 우와~ 정말요? 이야~’ 이러한 식으로만 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것은 편법이고, 정식 점혈법은 어디까지나 말을 따라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며칠만 해보도록 하라. 아마 그대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다고, 정말 재밌는 사람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니. 그대가 실제로 한 것은 숨 참기와 말 따라하기 점혈법 밖에 없는데도 그러하다. 여협을 재밌게 해준다고 개인기를 익히는 하오문의 협객들이 있도다. 그것도 나쁘지 않으나, 그들이 개인기 익힐 동안 그대는 실전에서 점혈법으로 승부하여 화려한 전적을 거두라.

그렇게 점혈이 끝나서 움직임을 봉쇄한 다음으로는 뭐가 들어가 줘야 하겠는가? 여협에게 거칠게 공격할 수는 없는 법이니, 금나수법(擒拿手法)을 펼쳐 제압해주면 되는 것이라. 금나수법이란 쉽게 말하면 맨손으로 포박하라는 뜻이며, 좀 격조 있는 표현으로는 신체접촉을 의미할지이다. 대부분의 여협들은 신체접촉을 선호함이니… 안기는 것? 좋아하노라. 쓰다듬는 것? 아주 좋아하노라. 점혈만 제대로 뒀으면, 여협은 자신의 말에 취하여 손이나 어깨를 접촉해도 거부감이 없도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그대를 이성으로서 바라볼 것이라. 잊지 말지어다! 점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금나수법을 사용하라! 만일 여기서 늦어버리면? 그대의 이마에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영원한 좋은 친구. 도장 팡! 주화입마에 빠져 죽기 싫으면 접촉하라!

그렇게 하여 금나수법이 먹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협의 마음은 점점 열려가게 마련이라. 그리 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때가 도래한 것이도다. 그렇다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요지는 질문! 그대가 원하는 대화가 나올만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작업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뇨? 상대 여협과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목적 아니던가? 상대가 쾌관잡기를 좋아한다면, 이야기 속 멋진 협객이 고백을 해왔을 때 그대 같으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소? 낭자라면 기분이 어떨 거 같소? 이러한 식으로 여협이 생각하기에 뭐가 두근거리는 것을 상상하며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로다. 그 뒤에는? 당연히 숨 참기와 말 따라 하기 점혈이로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 반드시 기억할지라.

높은 산 위의 흔들다리를 지나갈 때 만난 이성에게 호감을 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는 흔히 조교효과(吊橋效果)라고 부르는 것이라. 흔들리는 다리 때문에 쿵쾅거리며 심장이 뛰는 것을, 상대방 이성 때문에 뛰는 것으로 착각하여 상대를 좋아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질문법도 마찬가지로다. 분홍빛 상상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떨리는 것을, 그대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만 잘 다져놓는다면 더 이상 ‘영원한 좋은 친구’로 낙인 찍혀 악랄한 기관진식과 암기에 벌집이 될 신체는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에 드는 여협과 연인이 되었거든, 뜨겁게 사랑하라. 진지하게 관계를 탐구하라. 그녀가 진정 사랑을 나누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할만 한 여협이라는 확신이 들거든, 그렇게 하면 될지라. 그러나 긴 세월을 함께 나누며 지낼 인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 두 달이 지나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좋으리라. 두 달 이상을 진지한 관계로 사랑한 뒤 이별하게 되면 여협에게 남기게 될 상처는 더욱 큰 것이 되리라. 그러니 명심하라. 인연이 아니다 싶은 여협과는 과감히,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여협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안전을 확보해 준 뒤에는 십초 숨참기와 말따라하기 점혈법으로 상대 마음의 움직임을 봉쇄하도록 하라. 어디로 가는 것을 봉쇄하는가? 그대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협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다. 다음은 금나수법. 신체적 접촉을 가짐으로서 그대를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나선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대가 원하는 분위기의 대화로 이끌어가도록 한다. 경계해제, 점혈법, 금나수법, 질문법. 이 네 가지만 기억하라. 그리하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신속히 물러설 줄 아는 미덕을 견지하라. 이러한 구결들이 어지간한 내공의 소유자들에게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강호 초행자들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구명절초는 되리라 여기며 강론을 마치도록 하노라. 더욱 심오한 상승비전에 대해서는 쉽게 발설할 수 없는 바... 비인부전이로다. 인연이 닿는 자에게는 전해지리라. 부디 그대가 불세출의 고수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잘 보셨는가? 이 정도면 작업의 큰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 대략 맞은 볼 수 있었으리라 여긴다. 아마도 비인부전의 심오한 상승비전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끝맺은 데 대하여 많은 행자들이 아쉬움을 품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라. 비인부전의 금기를 해제하고 이제부터 모든 상승절학들을 공개하여 낱낱이 해설하도록 하겠다.

짧은 구결만을 전하고 자세한 주석을 달지 않은 구음정경에는 본래 짝이 되는 비급으로서 구음기경(九陰奇經)이 존재하니… 이미 수백 년 전에 실전된 구음기경을 본좌 음와심권이 완벽하게 복원하여 정립하여 세상에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구음정경과 구음기경이 하나가 되어 시공을 뛰어넘어 구음진경(九陰眞經)으로 완성된 바, 이를 현대에 맞게 번역하기를 ‘쿨가이가 되자’, 혹은 ‘쿨가이 신공’으로 세상에 내놓아 후대에 전하게 되었으니, 부디 후학들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 쿨가이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 두 눈 똑바로 뜨고 다음 장을 넘기기 바란다.

- * 쿨가이비급으로 여성을 사귀면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그 경우 헤어지면 큰 상처를 남기므로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여성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길이다.
- * 연인과 헤어질 땐 단호하게 헤어짐을 얘기하는 것과 이별 뒤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장 적게 주는 길이다.

쿨가이가 되자
연공편



선택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책을 구입하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애 초행자를 위한 내공전수를 하겠다.

그전에 먼저 이야기 할 것이 있다. 항상 이런 글 올리면 이래저래 태클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명심하고 태클을 걸어 주었으면 고맙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가치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 어설픈 좋은 사람되기 태클은 사양이다. 좋은 사람되기 원하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라. 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힘과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뜻이다. 여자 만났을 때 선택의 주체가 스스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귀자고 말했다 때 누가 선택을 하나 생각해보아라. 과연 여자 만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지배하고 선택의 주체로서 스스로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무규칙 이종 격투기를 보라. 자신을 단련한 이들이 격투의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봐봐라. 아름답지 않는가? 무규칙 이종 격투기를 보면서도 착한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 할 것인가?

선택의 주체가 된다는 것,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힘과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관용과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의 주체가 아닌 자가 어떻게 관용과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어찌다 여자 생겨도 만날 여자한테 징징거리거나 여자를 꼼짝도 못하게 자기 감시 하에 두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여자와의 관계에서 상황을 지배하고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여자를 구속하거나 억압할 이유가 없다.

착한남자가 되려는 분들은 착한남자가 되시라. 그런 남자들이 멀리서 감탄만 하며 상상만 하는 그런 여자들이 나 같은 남자들에게는 울고불

고 매달린다. 그리고 누가 내 욕하면 그 사람과 다시는 안볼 각오로 대신 싸워주기 까지 한다. 착한남자가 많은 세상이 나 같은 힘과 능력이 있는 놈들에게는 천국이다. 그러니 부디 착한남자가 많이들 되어 주시라. 그것도 자랑이냐 느니 인간이 그러면 되냐 느니 하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 착한친구놈들이 생머리에 눈 크고 가늘가늘하고 피부 하얗고 예쁜 여자애 두고서 이런 저런 얘기 뒤에서 할 때 나는 가로등 불빛 내리쬐는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와 부둥켜안고 키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네 마누라가 너 같은 놈이랑 놀아났으면 좋겠냐는 말을 하는 초딩들이 있는데 걱정 말라고 하고 싶다. 내 마누라될 여자는 예쁘고 늘 씩하고 처녀였고 고분고분하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인줄 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걱정은 고맙지만 걱정해 주시는 분들 주위의 여자나 걱정하시라.

열 받는가? 그러면 나보다 더 잘나가 보라! 이게 내가 말하려는 것이다. 한 가지 문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곳에 있었던 선각자들은 모두 기존 문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문명 안에서 그 문명을 넘어선 것이다. 유태교 전통에서 예수가 그러했고 힌두교 전통에서 석가가 그러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해서 나보다 더 잘나가도록 해보라. 아마도 상황을 지배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여자들 상대하다보면 몇 가지 패턴이 나오고 거기서 벗어나는 애들 없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해서 한 여자에게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려고 강호에서 금분세수하면서 은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오래전에 알았다면 나는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기에 강호 초행자들을 위해 이런 글을 주

저리주저리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의미하는 것을 늦게나마 알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섹스 하는 재미에만 사는 놈들도 많으니 초행자들은 실력을 길러 그런 놈들 손에서 착한 여자들을 구원해주도록 하라.

이렇게 얻은 힘과 능력으로 나는 한국말 통하는 곳이고 여자 있는 곳이라면 1년 이내에 내 사업체를 가지고 독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여자한테 빌붙어 산다는 거 아니다. 어리건 노인이건 치마만 둘러쓰면 모두 다 내가 파는 상품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불황이든 뭐다 하지만 그런대로 큰 불편 없이 사업체 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금 하는 것이 망해도 다시 어디서라도 시작할 수 있다. 1년이면 그 계통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1개월 변신 비급

보통 사람들은 쿨가이가 되려면 돈과 외모와 개인기가 따라줘야 한다고 여기는데 그것들은 부가적인 플러스알파일 뿐이다. 돈, 외모, 개인기 등을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꼭 그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쿨가이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돈은 머리 깔끔하게 만지고 깨끗한 새 옷 두세 벌 정도 있고, 조금 비싼 스킨이나 향수 한 개정도 갖추고 커피 마실 돈정도면 된다. 외모는 공을 들이는 만큼 바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깔끔하게만 하면 일단 합격이라는 것이다. 개인기는 앞으로 언급할 숨참기와 말따라하기 점혈법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에 조금 보충한다면 보험 삼아 손금 보는 법정도 배워두는 것도 좋다. 손금 이야 손만 있으면 볼 수 있고, 손금과 보면서 작업하는 것은 후에 언급 하도록 하겠다.

서문이 길었다. 그러면 우선 초행자용 1개월 쿨가이 변신비급을 소개 하겠다. 먼저 긴장을 풀어야 한다. 그러면 긴장을 어떻게 푸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또는 연예인 목소리를 떠올려 보자.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긴장 풀고 쿠울~해 지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러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편해 질것이다. 이게 바로 쿨가이 되기 비급의 첫 번째 초식이다.

다음으로는 용모에 대한 것이다. 사실 잘생기거나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가? 지저분한가? 이다. 손톱, 발톱, 머리, 수염 등등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걸로 된다. 머리가 길면 묶거나 헤어 밴드를 써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옷도 역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다만 스킨이나 향수 하나쯤은 조금 비싼 메이커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여자는 의외로 후각적 자극에 민감하다.

그러면 앞으로 10일간 다음의 수련을 하도록 한다. 무술인들이 폭포 맞으며 수련하듯이 우리도 다음의 수련을 꼭 해두어야 한다. 이것이 내

공의 기초가 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도록 한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예쁜 여자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다가가서 눈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하고는 “실례합니다. 제가 길을 찾고 있는데요. ~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요?” 하고 묻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인천에 있으면 “인천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요?”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요?” 하고 묻어는 것이다. 아마도 여자는 조금 황당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여자는 별로 없다. 이렇게 10일간 하루 10명에게 길을 물어 보도록 한다. 이거 하고 나면 여자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해도 그렇게 크게 면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그냥 머리로 알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한다. 그렇기에 일정기간 잠재의식에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말을 걸어도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그런데 100명이라는 숫자에는 마술이 있다고 한다. 어떤 마술인지 10일간 매일 10명씩에게 길을 물어 보자. 그러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이다.

다음 10일간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눈에 띄는 여자에게 1~2미터 정도 떨어져서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 관찰한다.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다른 곳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서 관찰해 본다. 그리고는 자세와 호흡을 따라해 본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된 기분을 갖고 과연 어떤 성격일지 어떤 기분일지 어떤 건강상태일지 등등을 상상해 본다. 의외로 많은 것을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을 10일간 하루 5명 이상씩 해본다. 하면 할수록 빨리 여러 가지가 파악되는데 이것은 초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좀 더 민감하게 여자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도록 훈련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여자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검도의 고수는 상대가 검을 뽑는 순간에 벌써 기량을 안다고 한다. 이 계통의 고수는 100미터 떨어져서도 쓸 만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낸다.

마지막 10일간은 명품 점을 돌도록 한다. 명품 점들에 가보면 대개 미모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업원들이 한둘 정도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짙은 여자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여친 생일선물 고르러 왔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종류를 생각하느냐고 묻거나 예산이 얼마냐고 묻거나 할 것이다. 주눅들것 없다. 당신들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 여자는 알지 못한다.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마음 놓고 말하도록 한다. 두 번째 10일 수련을 제대로 했다면 아마도 그 여자에 대한 느낌이 올 것이다. 만일 차분한 성격에 어찌고저찌고... 이런 느낌이 드는 여자라면 여친이 차분한 성격에 어찌고저찌고... 하는 타입인데 어떤 선물이 좋을지 몇 가지만 골라 달라고 말한다. 가격대를 물으면 다른 가격대로 몇 개정도 골라 달라고 한다. 그러면 골라 주는데 여기서 말따라하기 점혈법을 쓴다. 꺼내면서 “이거는 요즘 많은 젊은 여자분 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어찌고 하면 “아...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거군요...” 이런 식으로 말따라하기 점혈법을 쓴다. 그러면서 각 제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본다. 사실 이런 명품들에 대한 지식들은 나중에 다른 여자들과 작업할 때 대화소재로 최적이므로 공부하는 셈치고 열심이 물어 보고 말따라하기 점혈 쓴다.

그렇게 한 십분 이상 이야기 하다가 고맙다고 하면서 다른 매장들 좀 더 돌아보고 다시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개 명찰이 있겠지만 만일 없으면 이름을 물어본다. 명찰이 있으면 명찰의 이름을 읽는다. 이름이 김유경이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유경씨.”라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고 가볍게 목례하고는 미소 짓고 나온다. 또는 매장에 조금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나오다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가

가서 여기 매장을 처음 오는데 김유경씨가 참 친절해서 이제 자주 와야겠다고 말해주고 오늘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하며 목례하고 나온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3개의 매장을 10일간 돌아본다. 그리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종업원이 있던 매장에 일주일 후에 다시 가본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안녕하셨어요? 김유경씨? 하고 말을 걸어 본다. 아마도 정말 반가워 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와주었는데 여친이 시계(만일 가방 전문매장이라면)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샀다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한다. 그러면 대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것인데 며칠 내로 와서 다시 한 번 도움을 구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지난번 작업이 얼마나 상황을 바꾸었는지를 체험하라는 것이다. 종업원 제복을 입은 미인이 내가 다시 찾아 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느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상황을 지배하고 선택의 주체가 되며 힘과 능력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 것이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더 이상 초행자가 아니다. 강호에 입문할 자격이 있다. 강호에서 사용할 실전초식은 다음번 글에 올리겠다. 여자에게 1-2-3단계 접근을 통해 꼬실 수 있는 실전기들을 다루겠다. 또한 섹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진도 보아가며 소개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섹스 팁을 준다면 빨리 싸는 이들은 역복식호흡을 익히도록 한다. 역복식호흡은 순식호흡이 숨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숨 내설 때 배가 들어간다면 이걸 반대로 숨 들어 마실 때 가슴을 내밀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고 숨 내설 때 아랫배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자위하다가 조금이라도 흥분이 오면 이렇게 역복식호흡을 해본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사정하려고 힘이 모이다가 숨내쉬며 배를 내밀 때 싸지 않고 힘이 빠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을 마스터 하면

사정하고 싶을 때까지 사정하지 않은 채 여러 번 방사 직전의 흥분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천에 사는 화교에게 거금주고 배운 방중술이다.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팔약근 조이라는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행자 아직 못 봤다.

그럼 다음 장에서 다시 보겠다.

쿨가이가 되자
실전편

작업에 임하는 기본자세

우선 최면은 꼭 익혀두어야 한다. 이걸 필수이다.

나도 영업사원 댔 때 영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바닥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돈 가져다 바치면서 배웠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떻게 최면 트랜스에 들게 하느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런 분은 최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최면은 전통적인 직접최면으로 한정된다. 이 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최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밀턴 에릭슨의 비지시적 최면이다. 비지시적 최면은 의식이 말쑥한 상태에서도 최면 트랜스에 들어간다. 상대방은 자기가 최면 트랜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 에릭슨의 비지시적 최면을 이어받은 신경언어프로그래밍(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에서는 이 기법으로 십여 분만에 신경쇠약을 치료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오럴섹스를 엄청 싫어하는 여자도 이 방법으로 오럴섹스를 하면서 오르가즘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속해서 이러한 손금과 최면 등을 작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 내 글이 길거나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 거부감이 드는 분은 다시 책을 덮고 읽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보통 작업이라 일컫는 연애초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룰은 중급이상의 경험치가 쌓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일 다 제쳐 두고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다른 일들도 하고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유는 언제라도 “관둬라 관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초보자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이 소중함을 알고 자신이 몰두할 일이 있을 때 작업하려던 여자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 즉시 “관둬라 관둬”를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여자는 다시 맘을 돌

려먹는 다는지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는지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생활이 망가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늘 자기 자신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는 실제 작업 들어가는 법의 예제들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비지시적 최면

먼저 최면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말하는 최면으로 작업한다는 것을 이성에게 최면 걸어서 깊은 최면 상태에서 ‘너는 나에게 사랑에 빠지고 나를 볼 때마다 흥분된다.’ 이런 식으로 건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짓하는 찌질 이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알게 모르게 쓰이게 되는 비지시적 최면 기법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면에는 지시적 최면과 비지시적 최면이 있다. 지시적 최면을 보통 직접최면이라고 하고 비지시적 최면을 보통 간접최면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최면교습서에 나와 있는 ‘너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깊이깊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암시 문을 ‘지시’ 하는 것을 지시적 최면 또는 직접 최면이라고 한다. 똑같이 편안해 진다는 암시를 할 때 ‘네가 정말로 편안하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가 그러니?’ 하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받은 상대는 편안했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편안했을 때를 떠올리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이 비지시적 최면이다. 당연히 작업초기에는 비지시적 최면을 쓰는 것이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먼저 머릿속에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살짝 살짝 비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자, 피부는 하얗고 콧날이 오뚝하고 눈이 크고 길고 검은 생머리가 윤기가 흐르고 옷깃너머로 가슴의 윤곽이 보이는 여자를 떠올려 보자. 방금 목욕한 샴푸냄새가 나는 그런 여자를 떠올려 보자. 그 여자의 나지막한 숨소리까지 느껴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서 어느 위치쯤 떠올랐는지 기억해보자.

다음으로는 병들고 나이 많은 노파를 떠올려 보자. 옷도 허름하고 냄새가 나며 마른기침을 하며 때때로 각혈을 하는 노파를 떠올려 보자. 아마 대개의 경우 두 가지 모습이 머릿속에서 다른 위치에 떠올랐을 것이

다. 그러면 이어서 노파의 모습을 엄청나게 예쁜 여자 떠올렸던 곳으로 옮겨보자. 아마도 대 부분의 사람들은 옮기기 힘들 것이다. 같은 실험을 음식으로 해보자.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자. 눈앞에서 그 향기와 질감과 맛을 떠올리면서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것이 떠오른 곳을 기억해 두자. 다음으로 어떤 취한 이상한 녀석이 토해 놓은 것을 떠올려 보자. 아마도 역시 다른 곳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역시 토한 것을 맛있는 음식이 있던 곳으로 옮겨보자. 아마도 안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기분조은 것과 나쁜 것을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해 둔다. 이 말은 여자 머릿속에 어느 부위에 나의 영상이 그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여자에 의한 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만일, 쿨가이를 그리는 곳에 나의 영상이 그려진다면 나는 그 여자에게 쿨가이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쿨가이가 되는 데에 돈과 외모와 개인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한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여자가 쿨가이를 그리는 곳에 나의 영상을 저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최면은 래포와 트랜스이다. 래포란 아마도 신뢰성 정도로 번역될 것이다. 트랜스란 몰입된 상태라고 보통 설명될 것이다. 지시적 최면은 트랜스를 깊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비지시적 최면은 래포를 깊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트랜스가 깊어지면 래포도 깊어지고 래포가 깊어지면 트랜스도 깊어지기에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낳는다. 반복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작업초기에는 어떻게 여자를 AT필드를 무력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AT필드를 무력과 시키고 벽을 넘어서 다리를 놓는 작업이 래포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여자를 유혹하는 실전 초식

우선 무난하게 잘 아는 여자들 중에서 작업들어가고 싶은 여자 있을 때 하는 방법부터 들어가겠다. 이편이 더 쉬울 것이므로 초행자들의 편의를 위함이다.

여자 만나러 나갈 때 초기에는 오늘은 나를 조금은 특별하게 여겨줄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자 만나러 갈 때 해야 할 질문은 오늘은 그녀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해줄까 하는 것이 바른 질문이다. 이때는 선택의 주체가 나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친구의 여친이 속한 동아리에 눈이 번쩍 뜨일만한 여자가 있다. 턱선과 어깨선이 단아하고 목소리도 맑으며 무엇보다도 죽이는 미소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작업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 놈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그 애가 괜찮다느니 그 애가 지난번에 자기가 무슨 말 했을 때 웃으며 어떻게 대답했느니 그게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니 할 것이다. 그냥 그 무리에 끼어 있을 것인가?

제일 처음에 할일은 개한테 뭘 느끼게 해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편안함, 재미있음, 설레임 정도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침부터 열정의 밤을 불태우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 한다면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권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가까워지면 짜릿함, 황홀함, 가슴 저미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난 후에 밤을 함께 보내고 싶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비지시적 최면은 최면에 걸린 사람이 모든 선택을 자신이 했다고 믿는다!!!! 여성은 자신이 선택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지 최면에 걸린 거라 생각 안한다. 비지시적 최면은 항상 일상 대화중에서 이루어지기

에 그렇다. 그러면 편안함, 재미있음, 설렘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 만한 질문을 생각하도록 한다. 별로 어려울 것은 없다. 그냥 가벼운 인사와 몇 가지 일상적인 이야기 하고나서 근래에 정말로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했다고 느낀 적이 있니? 나는 요즘 늘 스트레스만 쌓여서 말 이야... 이 정도만 말해두면 되겠다. 더 좋은 문장 있으면 그거 쓰도록 해라. 이렇게 물으면 대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을 하면서 여성이 자신이 그리고 있는 상상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아래에 올렸던 말따라하기 점혈법이다. 이것의 본래 명칭은 백트래킹이라는 비지시적인 간접최면 기법이다.

지난주에 집에 내려가서 엄마랑 저녁 먹었거든... 이런 식으로 편안했을 때를 떠올리며 말을 하면 그 말에서 몇 가지 단어를 뽑아서 맛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아... 집에서 엄마하구...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해주면 여자는 점점 더 자기만의 상상의 공간에 몰입해 들어간다. 아까 위에서 트랜스가 뭐라고 했는가? 트랜스란 몰입이다. 바로 상상의 공간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트랜스인 것이다.

여자에게 작업을 자주해 본 행자들이라면 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이다. 여자가 자기 세계로 몰입해 들어 갈 때 그것을 도와주면서 더 깊이 그곳에 빠지게 하는 것이 비지시적 간접최면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끔씩 세부사항을 질문한다. 저녁 반찬은 뭐였는데? 고등어조림이랑... 그래? 너무 짜지 않았어? 아니 맛있었어... 이렇게 상상의 공간 안에 더 깊게 몰입하도록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한다. 너무 자주 질문하면 트랜스에서 깨어나므로 백트래킹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한다.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은 전문용어로 하향유목화라고 한다. 이러한 비지시적 최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된다. 그거 기초과정만 해도 수백만 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주고 전문가 과정까지 마쳤지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여자는 대개 상당히 쑥스럽고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거 상당히 귀엽다. 아니 귀여운 걸 넘어서 당장 껴안고 싶어진다. 하지만 대개 비지시적 최면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이런 표정을 보면 속으로 “걸렸다!!!” 라고 만세를 부른다.

여자는 한번이라도 어떤 남자에 의해 트랜스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게 된다.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최면 거는 사람이 나쁜 맘이 없더라도 일단 최면 트랜스에 한번 들어가면 그 여자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게 된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위와 같이 여성을 자기세계에 빠지도록 하고나서 화제를 돌려서 재미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행하고 설던 기억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전화나 메신저로 해도 된다. 이거 잘하면 개인기 화려한 이들 못지않은 선수가 될 수 있다. 그 여성은 아마도 상당히 나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라. 이게 진짜로 통하나 안통하나 어려운 것 아니니 실제 해보라. 그리고 이것으로 여자를 얻게 되면 나중이라도 술 한 잔 사라. 비지시적 최면에는 이보다 더 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계속하여 기대해도 좋다.

알고 지내는 여자를 유혹하는 실전 초식 2

그럼 계속해서 간접 최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선수들의 작업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탁월하다. 하나는 래포(신뢰)를 얻어서 사람의 상대의 AT 필드를 무력화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트랜스(몰입)에 들게 해서 대상이 다른 생각 못하고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간접최면의 백트래킹은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친구의 여자 친구가 속한 동아리에 눈이 번쩍 뜨일만한 여자가 있다고 해보자. 턱선과 어깨선이 단아하고 목소리도 맑으며 무엇보다도 밝은 미소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하는 여자가 있어서, 처음에 편안함과 설레임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까워진 상태라면 다음 단계로 설레이는 사랑에 빠지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질문을 한다. 이 경우 과거에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땠었는가는 물어보아도 좋지만 그걸 듣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질문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여자의 과거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

아무튼 내 생각에 가장 무난한 질문은 “만일 지금 여기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남자가 있고 그 남자도 너를 진심으로 절실히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남자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고 싶어?”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 할 것이다. 이제 할 일은 백트래킹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여자의 상상의 세계에 함께 참여해서 여자의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본인을 상상속의 이상형과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 가면 이어서 “만일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본인 앞

에 있다면 어떤 말부터 해주고 싶어?” 라든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 등등으로 질문해 가면서 여자로 하여금 이상형과의 연애의 세계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에 말했던 하양 유목화 작업이다. 여자가 이상형을 설명하면서 묘사하는 내용이 지금의 나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도 상관없다. 그 이상형을 나중에 나에게 덧씌울 것이므로...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투사라고 하고 일상용어로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남자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을 써서 남자를 상상의 세계에 몰아넣고 같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대강 이정도면 충분히 스킨십을 시작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자신이 없으면 이번에는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대한 상상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위로가 섞인 감탄사를 말하며 손이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살짝 끌어서 가슴에 기대게 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래포와 트랜스를 잘 구성해 왔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음에는 이성에게 고백할 때 잘 거절당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앵커링 -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의 초식

그러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여자에게 거절을 듣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많은 선수들은 여자에게 질문할 때 'NO'를 들어도 최소한 건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보면 초보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그럼 커피를 마시러 갈래요?'라고 묻는다. 답은 예스 아니면 노우로 확률은 반반이다. 하지만 선택의 권리는 당연히 여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묻는가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할래요? 아니면 그냥 저기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 할래요?' 답은 커피를 마시던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건 최소한 확보된 것은 계속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역시도 선택의 절반은 여자가 갖는 것이다. 간접최면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확보에 닷 걸기라는 기법을 더해서 사용한다.

닷 걸기란 원문으로는 앵커 링이라고 한다. 배가 정박하기 위해 닷을 수면아래에 걸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건반사와 비슷하다.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 노래가 그러한 설레임이라는 감정에 닷 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형이란 바로 이러한 닷 걸기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을 보고 듣고 만나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 상태에 접속되도록 하는 상황이 바로 이상형이라는 닷 걸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먼저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그것은 참으로 멋지고 즐거운 일이라는 감정에 닷 걸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헤이즐넛 커피 향을 맡으면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무엇인가 아련하게 막연한 설레임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OO는 특별히 좋아하는 커피향이 있어?" 그러면 커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역시 백트래킹을 해서는 커피와 행복한 감정이라

는 상황에 몰입시키자. 그러면서 커피와 행복이 연결되는 단어들을 기억해 두자. 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 찻집에서 눈이 오는 어떤 날에 마신 어떤 커피가 참으로 어떠했다고 말했다면 눈과 나무타는 냄새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다. 그러고는 대화가 끝나면 “커피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커피 생각이 나네~ 그리고 보니 내가 아는 커피전문점이 한겨울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거기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 할래? 아니면 그냥 저기 그늘에서 이야기 할까?” 라고 묻는 것이다. 한겨울에 모닥불 피우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지 그런 카페라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데나 데려가서 그런 분위기라고 우기면 된다. 여자는 대개의 경우 특별한 생각 안하고 대답해도 되는 경우에는 일단 노우부터 말한다. ‘아니 괜찮아요.’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커피와 즐거움을 닷 걸기를 해놓고 나서 제안을 하면 잠시 지난 추억속의 즐거운 것에 대해서 떠올려 본 후에 답을 하기에 노우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처음에 닷 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만일 예스가 나온다면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완전히 지배했다는 뜻이 된다.

또한 이것은 나중에 사귀자는 말을 할 때도 유효하다. 어느 정도 눈치로는 그 애도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 사귀자고 하기에 망설여 질 때가 있다. 그럴 경우 역시도 노우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귀다는 것이 행복함에 닷 걸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여러 번의 대화중에서 이 세상을 사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뭐라 생각해? 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등등의 질문을 하고 백트래킹을 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한다. 그러면 상호간의 신뢰라든지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운명적인 만남이라든지 등등의 핵심어가 나타날 것이다. 이 핵심어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함이나 사랑이라는 관계에서의 중요함에 이미 링크된 단어들이다. 그러면 나중에 사귀자고 할 때나 “너 참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귀고 싶

어”라고 말하기 보다는 “나는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너를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으면 해. 그래서 나는 늘 우리가 서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며 함께 하고 싶거든.....” 이라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면서 사귀자는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

쿨가이의 시작과 끝, 센터링을 위한 실전 초식

- 스위시

또한 닷 걸기를 말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 닷 걸기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현재 작업하는 여자에게 내 마음이 닷 걸기로 걸려 있으면 계속 빨짓을 하거나 징징대며 매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제목에 말한 쿨가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닷 걸기에 걸려 있지 않는 남자를 말한다. 그러한 상태를 중심잡기 또는 센터링이라고 말한다. 센터링이라는 개념은 NLP의 기법은 아니며 동양의 선불교와 원운동을 하는 무술로부터 서구심리학자들이 배워서 확립한 개념이다.

처음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누구나가 그 여자에게 닷 걸기가 되어 버린다. 이는 무술에서 상대방의 기술에 걸려서 나의 중심이 깨진 것과 같은 상태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 여자와 이야기하거나 그 여자가 떠오를 때 머리 속에서 웃긴 노래를 트는 것이다. 나는 초창기 때 내가 조금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여자를 만날 때면 늘 머리 속에서 텔레토비 주제가나 돌리 주제를 돌렸었다. 이러한 기법을 오라토리얼 스위싱이라고 부른다. 스위싱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뒤바꾸는 것으로 비주얼(시각)과 오디오토리얼(청각)과 키네스틱(촉각)의 시위싱이 있다. 이 오디오토리얼 스위싱은 전에 앞의 연공편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목소리로 침착하세요라는 말을 귓가에 듣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또한 텔레토비로는 잘 안되면 그 여자의 목소리를 영구나 맹구로 바꿔어서 듣는 방법도 사용한다. 나중에 여자들을 많이 접해보면 어떤 여자든지 간에 결국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므로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만 초기에는 유용하다. 쿨가이 연공편은 바로 이러한 센터링을 훈련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여자들을 만나보는 것과 자신이 열중할 수 있는 끼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센터링 유지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그 여자에게 “관둬라 관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링이 유지되면 많은 경우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센터링에 대해서는 책의 후반부에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사실 어떤 면으로는 모든 작업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 이것이다. 여자들이 가장 끌리는 남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남자들은 잘난척하는 것이나 자만심을 자신감으로 착각한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 중엔 자기 전공 이야기를 잘난 척하면서 끝도 없이 늘어놓는 남자가 늘 상위 랭크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은 자기중심이 잡혀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앞서서 오디오리얼 스위시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본다. 아무리 환상적인 여자라 해도 지금 내가 유혹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엔 지구상의 다른 남자와 신나게 섹스를 즐길 여자일 뿐이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여자를 차치하고서라도 성취해야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혹해서 함께할 수 있으면 다른 일하는 데에도 여러모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를 만날 때 이러한 생각으로 만나면 여자에 집착하게 되서 몸과 마음에 생활까지 망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상상으로 조금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여자를 바라보도록 한다. 이렇게 시점을 바꾸어서 바라보는 것도 스위시 기법중의 하나이다.

내 여자로 만드는 실전 초식- 혼란

이제 대략 센터링과 스위시를 마쳤으면 다음은 타임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타임라인이란 시간선이라고 번역되는데 주로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필자의 경우 이를 시간선 혼란이라고 바꾸어서 사용한다. 간접최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래포를 통한 트랜스 → 혼란 → 원하는 결과를 이끄는 암시문

지금까지 충분히 백트래킹과 닷 걸기를 통해서 래포를 얻었으리라 믿는다. 래포를 통해 트랜스상태에 빠졌음을 아는 방법은 주로 눈동자접근단서라고 불리는 기법을 쓴다. 보통 시각적인 상상을 할 경우 눈동자를 좌우의 위쪽으로 치뜨게 된다. 청각적인 상상은 좌우 평면으로 눈을 돌리고 촉각적인 상상으로는 좌우 아래쪽으로 눈을 내리간다. 이것을 토대로 내가 현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을 사용해서 상상에 몰입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눈동자가 약간 몽롱하게 풀리면서 자기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말이 조금 늦어지고 어린아이처럼 퇴행한 어투를 사용한다면 확실한 트랜스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언제든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 여자는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단계인 ‘혼란’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일단 한 가지 예제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금보기를 통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해줄게” 라면서 구걸해서는 안 된다. 항상 쿨하게 중심잡기를 해야 한다. 손금책 한두 권을 보아야 하나 생각하겠지만 전혀 필요 없다.

카페든지 약간은 조용한 곳이 좋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면 더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트랜스에 들도록 한 후에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처럼 손목을 잡고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흘깃 보는 척 한다.

그리고 그냥 혼자 씩 웃고 도로 손을 내려놓은 후 마시던 음료를 마신다. 대개의 경우 여자는 반응을 보인다. 만일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혼자서 딴 곳을 보면서 뭔가 생각하며 웃는 척을 한다. 그럼 반드시 여자 쪽에서 질문이 온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하고 계속 의미 모를 미소만 지어보라. 그럼 여자는 궁금해서 안달이 날 것이다. 그러면 여자에게 가르쳐 줄 테니 뺨에 뽀뽀 해보라고 한다. 대개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끝까지 하라고 하면 하게 된다. 단 분위기가 깨질 정도로 강요하지는 말도록. 다시 손을 잡고 손바닥 쪽을 보는데 먼저 내가 여자의 왼쪽에 앉아 있다면 여자의 왼손의 손목부위를 잡고 오른쪽에 앉아 있다면 오른손의 손목부위를 잡고 보도록 한다. 그러면서 살짝 끌어서 내 쪽으로 기대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그리고는 “내가 웃은 것은..” 하면서 말을 꺼낸다. 아무선이나 가리키면서 “여기 이게 이렇게 된 여자들은 침실에서 상당히 섹시하대” 라고 농담 식으로 말한다. 이때 절대로 느끼하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대개 “뭐야~~” 하면서 여자가 한대 툭 치는 등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럼 다시 손을 잡아서 내 쪽으로 끌어들인 후에 다른 선을 가리키면서 “이 선이 이렇게 흘러가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속으로는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말을 끊었다가 “작년 여름쯤에는 조금 놀랄만한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강 말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보통 많은 경우 금전 운과 애정 운이 가장 관심들이 많으므로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럼 “돈을 얼마나 버나 한번 볼까?” 라고 말하면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미 알겠지만 이 과정이 바로 최면과정이기도 하다. 트랜스란 몰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 안했던 선을 하나를 짚으면서 “이 선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뻗으면..” 이라고 말하고는 잠시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왜? 나빠? 돈 못 벌어?” 하면서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 손을 잡으면서 “○○야~ 나와 결혼하자!” 라고 말한다. 이 말도 조금 과장되게 연극 식으로 한다. 그럼 한참 웃을 것이다. “이런 손금은 3년 이내에 큰돈을 버는데 그 돈이 본인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애인이 그런 큰돈을 벌도록 해주는 손금이야. 보통 왕비손금이라고 하거든. 나랑 사귀어줘~” 라는 식으로 대답한다.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좀 한 후에 손을 바꾸도록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팔을 돌려서 여자의 어깨 쪽에 걸치고는 몸을 당기면서 다른 쪽 손목을 잡아서 가까이 가져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가 몸을 돌려서 다른 쪽 손을 내놓는데 그러면 몸과 몸이 떨어져서 좋지 못하다. 그리고는 다른 쪽 손도 대충 보면서 말을 만들도록 한다. 그러다가 여자가 내말에 관심을 갖고 몸을 좀 더 수그릴 때를 포착해서 기습키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키스를 하고는 그냥 떨어지지 말고 힘껏 안고서 여자 귓가에 나지막하게 “사랑해... 정말로...”라고 말한다. 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여자는 일단 없다. 다만 스토커가 될까봐 두려워는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래포를 이루어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져 앉은 후에 손을 잡고서 이야기 한다. 전에 이야기한 여자의 인생이나 사랑에 링크되어 있는 핵심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이다. 만일 ‘신뢰’, ‘영원한 사랑’, ‘운명적인 만남’ 등이 핵심어였다면 “나는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끌리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너와 서로 간에 신뢰를 쌓으면서 언제라도 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나는 네가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느끼거든. 그래서 네게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곤 이어서 말하라.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있으면 돼...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네게 있어서도 내가 정말로 서로 신뢰하는 사람이고, 운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대로만 있어줘. 그럴 수 있지?” 이것은 사실 말장난이다. 이미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자는 현재 혼란스러운 상태이므로 대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일단 대답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시간선 혼란

다음으로는 시간선 혼란으로 넘어가겠다. 시간선 혼란이란 시간감각을 붕괴하는 것으로 미래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이다. 일단 대화의 시작은 이렇게 한다.

“나는 그냥 혼자 상상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멋진 모습을 그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술이 아닌 묘사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 서술이지만 ‘내가 열정으로 충만 되어서 모든 일에 자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갖고 싶은 차)를 타고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틀고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 역시도 미리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배경을 미래로 돌린 후에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귀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등을 그녀의 핵심어가 반영되도록 하면서 묘사하도록 한다. 그냥 상상이라고 했으므로 여자는 ‘그런가보다’ 하고 듣고 있지만 잠재의식에서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 그려지게 하기 위해 서술형이 아닌 묘사 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색깔과 온도와 향기와 촉감 등등을 충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낸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상대방이 곁에 있을 때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 꼭 “오늘도 내 생각 많이 할 거지?” 라든지 “내 생각 많이 해야 해~”라고 말해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녀의 마음이 시간선 혼란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에 의해 오염되어서 나를 사랑하도록 해야 하므로 한 3~4시간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동안에 집에서든 PC방에서든 와서 다음단계를 준비한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녀가 들으면 가슴 설렌다는 노래나 편안해진다는 노래를 택해서 배경으로 깔고 배경그림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한다. 여기에서도 먼저 집에 잘 들어갔는지, 식사는 잘했는지, 몸은 좀 어떤지, 등등의 개인적인 것을 처음에 물어본 후에 다시 한 번 시간선 혼란을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나의 모든 행동은 자신에 대한 사랑의 척도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기에 그렇다. 괜히 그런 소리 자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고백한 첫날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이며 시간선 혼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3~4시간 후에 전화를 할 때까지만 주의하면 된다.

이메일을 보낸 후에 3~4시간 후에 전화를 한다. 그리고는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 이메일과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그리고는 다시금 트랜스로 몰고 간 후에 적절한때에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간선 혼란을 사용한다. 가능하면 그동안 여자로부터 얻어왔던 핵심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여자로 하여금 감동받는 이야기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여자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메일 보냈다는 이야기도 하도록 한다.

다음번 만났을 때부터는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면 된다. 손잡고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고 백트래킹으로 트랜스에 들게 하며, 시간선 혼란으로 미래상을 더욱 강하게 입력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면 된다. 그렇게 몇 번 만나는 동안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사랑한다고 했을 때 반응을 살핀다. 거의 99퍼센트는 고개 숙이고 수줍게 듣고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된 것이다. 굳이 ‘나와 사귄래?’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냥 사귀는 사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미 시간 선에 혼란이 와서 행복하게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것이다.

만일 거절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물어보아도 역시 거절 당할만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런 일은 경험상 거의 없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실전 비급 중간 정리

앞장에서는 시간 선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만약 백트래킹이 어색하다면, 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등으로 시작하다가 간단한 단어 한 두개정도 따라해 보도록 한다. 여자가 ‘...해서 정말로 웃겼어..’ 라고 한다면 ‘그래? 그거 정말 웃기다’ 정도면 되겠다. 하다보면 요령이 생겨서 일부러 하지 않아도 절묘한 타이밍에 한두 단어로 백트래킹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면 단순히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여자와 이야기할 때 시선처리에 무리가 있는 경우, 여자의 이마를 바라보도록 한다. 눈을 뻘히 쳐다보고 있으면 괜히 눈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보지 않고 이마를 보도록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눈길을 마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머릿속에 웃긴 노래를 틀든지 아니면 숨을 내쉬며 어깨의 힘을 빼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 어깨 힘을 빼는 것도 스위시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잘 아는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 걸고 시작하는 것은 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먼저 어떤 것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좋은 기분, 친밀함, 따뜻함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상형과의 사랑도 있을 수 있다. 전에 글에서 든 예제인 ‘만일 이상형의 남자가 눈앞에 있다면 어떤 말부터 할 거니?’ 라는 유형의 질문은 기본적인 패턴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한한 응용이 가능하다.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화제는 음식, 음악, 여행, 패션, 명품, 다이어트, 전생 등이다. 이러한 것을 소재삼아서 자신이 여자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맛인지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음식(음식이름)을 이상형의 남자와 마주앉아서 식사한다면 어

떤 곳이 좋을까? 바닷가가 나올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다. 이상형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형의 남자와 ‘마주 앉는다’든지, ‘눈앞’에 이상형이 있다든지 등의 말을 함으로 해서 눈앞에 있는 자신과 이상형을 은연중에 링크시키는 것이다.

다음단계로 닻 걸기 기법을 사용한다. 여자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슬쩍 나를 링크시키는 것이다. 즉, 전자가 이상형에 나를 링크시키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자의 인생, 미래, 영혼 등에 대한 여성의 중요 핵심어를 파악하고 대화중에 그를 자주 포함해 나를 링크시키는 것이다. 특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를 자주 쓴다. 그리고는 시간선 혼란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센터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센터링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된 느낌이 든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서있고 어떤 표정이며 주위의 대기의 흐름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힘과 자신감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를 떠올려 보도록 한다. 그런 느낌이 충만하다면 엄지와 검지를 마주잡는다. 부처님 손 모양(수인)을 짚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언제라도 이렇게 수인을 만들면 늘 지금처럼 센터링 상태에 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둔다.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센터링이 깨질 때마다 이 수인을 짚어서 센터링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도 닻 걸기 기법이다. 또한 이러한 닻 걸기는 나중에 여자와 성관계시 여자가 오르가즘을 강하게 느낄 때 낮은 목소리로 ‘너만을 사랑해’ 라든지 등의 특정문장을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데에도 쓰인다. 그리고 나면 그 문장은 여자에게는 오르가즘에 닻 걸기가 된 문장이므로 평상시에도 귓가에 그 문장을 속삭여 주면 여자는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성이 살아있으므로 당장 벗고 덤비지는 않지만 상당히 에로틱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사귀는 사이가 되거나 시간선 혼란으로 사귀는 것으로 느끼는 사이가 된다면 다음 단계로 성관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콘돔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작업은 성관계를 근사한 체험 또는 행복한 경험이라는 것에 닮 걸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노골적인 성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여자들은 불편해 하므로 먼저 여자들이 즐겨 읽는 로맨스 소설에서 성관계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읽어 보도록 한다. 여자는 그러한 소설중의 성적인 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해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만나서 대화할 때는 전혀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여자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지지하며 그에 동조하는 대화를 위주로 한다. 하지만 이메일에는 로맨스 소설의 기법을 사용한다. 먼저 늘 하던 대로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나서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묘사’를 충분히 쓰도록 한다. 늦가을에 프랑스로 여행을 함께 가서 해가 지는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따위의 소설을 쓰도록 한다. 그리고 이메일에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경음으로 까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시간선 혼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미래의 일이니 얼마쯤이라도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해본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눈에 비친.. 어찌구 하면서 따듯한 손길이 어깨선을 스치면서..등등의 로맨스 소설에서의 묘사를 모방하도록 한다. 물론 여기서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묘사를 모방하는 이유는 여자가 로맨스 소설을 읽을 때 웬만한 성적인 묘사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흥분을 타인에게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메일 역시도 직접 상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부담 없이 성적인 흥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노골적인 묘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한 이주정도 이메일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만났을 때 조금씩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좋다. 물론 처음에는 농담 같은 식이 좋다. 전화통화중에 ‘이제 뭐할 거야?’ 하고 물었을 때 목욕하고 잘 것이라고 한

다면 ‘응~ 그럼 구석구석 뽀득뽀득 씻어 그거 다 내거니까~’ 정도의 농담이면 된다. 그렇게 몇 번 성적인 농담 단계를 지난 후에는 3인칭 관점의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든다면 ‘요즘은 몇 번 만나자마자 같이 잔다구 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는 반대야. 물론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포함되므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잠자리를 반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사랑만큼이나 몸의 사랑도 충분한 배려(핵심어)와 그 사람에 대한 관심(핵심어)이 필요하다고 여겨. 그래서 두 사람의 영원한 마음(핵심어)을 이어주는 사랑에 이러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사랑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여기거든....’ 대강 이러한 방식으로 핵심어와 제3자나 일반적인 사랑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답답히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 좋다. 그때 여자가 손가락으로 잡은 손을 비비거나 한다면 이는 신체접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린다. 대개 오늘은 술 먹여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뒤끝이 안 좋거나 하는 때가 많다. 그것은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는 직감으로 느끼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그냥 위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런 순간이 포착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도록 한다. 자신의 내면의 동물적 본능을 믿도록 한다. 남자의 성적인 흥분이 방출이라면 여자의 성적인 흥분은 축적이다. 꾸준히 자극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를 넘었을 때 자연히 흥분되는 것이 여성의 성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작업은 그러한 자극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것이다.

질문의 중요성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글을 보면 알겠지만 질문이란 상당히 강력한 도구이다. 인간의 뇌는 언제든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려 한다. 이것이 두뇌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OS의 구조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확히 필요로 인해 생겨난 질문이 발명의 어머니이다. 무엇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발명을 낳게 되는 것이다.

내가 고딩 때 선생이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라는 값싼 말을 했었다. 정말 똥 같은 말이다. 신경언어프로그래밍적으로는 “왜?”라는 질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나는 왜 여자와 인연이 없는 것일까? 재는 왜 저기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질문의 답은 결국 공허할 뿐이며 시간낭비이며 잘못하면 자기비하에 빠져버리게 만든다. 바른 질문이란 “어떻게”로 묻는 질문이다. “왜”라는 질문은 싸이언스이고 “어떻게”라는 질문은 테크놀로지이다. 현대는 테크놀로지의 시대라고 말해진다. 결국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란 바로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여자와 인연이 많아질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던질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책의 후반부에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글도 쓰겠다. 물론 채워나 어디를 자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언어적인 이야기들이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실전 초식

이번에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다. 기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지만 3단계를 거쳐서 들어간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공적인 단계 - 공적이지만 개인적인 단계 - 개인적인 단계 이렇게 3단계를 구분해서 접근하면 큰 무리가 없다.

공적인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기분에 대한 링크를 일으키는 소재를 쓰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집 근처 서점에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 할 것 인가하는 것이다. 당연히 첫 단계인 공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소재를 사용한다. 물론 개인기가 뛰어나고 말을 잘 한다면 처음부터 ‘공적이지만 개인적인 단계’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인 대화를 한다.

이 경우라면 당연히 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된다. 다만 다음번을 위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사항을 기억해 두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머리핀, 머리스타일, 향수, 반지, 옷의 브랜드, 구두 등등의 것은 기본이고 가능하면 이름도 물어 보는 것이 좋다.

이는 쿨가이 연공편의 마지막 단계와 거의 비슷하다. 이름을 묻는 것도 당연히 공적인 대화라는 이미지를 주는 어투로 물어 보도록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이름까지는 아직 묻지 않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두세 번, 공적인 거리감각을 두고 접근한다.

다음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적인 거리감각을 유지하지만, 몇 가지 사적인 부분을 섞어 넣는다. 예를 들어 같은 반지를 계속 끼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그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반지인가 보죠?” 하는 정도의 가벼운 질문을 하도록 한다.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인사말을 건네는 기분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오든지 백트래킹을 해준다. “친구가 선물해 준거예요” 라면 “아... 친구가요? 센스가 있는 친구시네요” 정도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공적인 대화를 마쳤으면 이름을 물어 보도록 한다. “늘 신세지는데 다음에 오면 뭐라 부르죠?”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적절한 호칭을 알려 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찾아 왔을 때엔 이름을 부르면서 마찬가지로 공적인 대화를 하도록 한다. 물론 지난번에 소개해준 서적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인사말도 함께 하고 또한 몇 가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걸도록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선 이름을 부르고 웃으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록 한다. 날씨 이야기라든지 음식이나 여행 등등에 대한 소재도 좋고 전생도 괜찮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인사말 나누고 나서 “그런데요... 전생이란 것이 있을까요?” “무수한 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영혼의 동반자(소울 메이트)나 운명적인 사랑은 있을까요?” 란 식이다.

앞의 두 단계를 충분히 밟아 왔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이야기도 충분히 화제꺼리로 좋을 것이다. 다만 근무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 상대가 어느 정도 흥미를 보인다면 이때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 참 좋은 카페를 알고 있어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만일 지금의 대화가 즐거웠다면 이 즐거운 대화와 링크(달 걸기)된 카페의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다음에는 당연히 전생과 운명적 만남이나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러한 상대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나를 링크시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정도면 좋을 듯하다. 이 이후의 과정은 앞서 소개한 초식들과 동일하게 나아가도록 한다.

쿨가이의 필살초식

- 임베드 커멘드(Embed Command)

그럼 신경언어프로그래밍(NLP) 전문가 과정에서 배우는 임베드 커멘드(Embed Command)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백트래킹이 저격용 총이라면 임베드 코멘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것은 상대의 AT 필드를 때려 부수면서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암시문구를 각인시키는 기법이다. 사실 이러한 기법들은 그 기법의 강력함 때문에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들 중 하나이다. 임베드 커멘드란 숨겨진 명령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여자에게 “나와 사랑에 빠진다!” 라는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개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임베드 커멘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의문문은 톤이 위로 오른다.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된다.

다음으로 평상문은 평조로 흐른다.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명령문은 톤이 떨어지면서 짧게 끊어 발음한다. “나를 사랑해!(↘)”

임베드 커멘드는 이러한 명령문의 톤을 이용해서 문장중에 명령문을 숨겨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현재의식은 문장전체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지만 잠재의식은 명령문을 받아들인다. 사실 이러한 기법은 간접최면기법이라기보다는 식역하최면에 가까운 기법이다.

식역하최면의 예로는 영화의 필름 프레임중 하나에 “마시자! 코카콜라~”를 넣었더니 코카콜라의 매출액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 수 있다. 현재의식에서는 감지되지 않지만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잠재의식은 동물적인 감각에 가깝기 때문에 저 너머로 잘

들어나지 않는 것에 더 경계를 하며 의식을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어긋남에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도 몇 가지 법칙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줄때 더 강렬하게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다. 위의 코카콜라 실험 시에 그 다음 프레임에는 “배가 고픈가? 팝콘을 먹자!” 라는 문장을 넣었는데 코카콜라보다 팝콘의 매출액이 더 늘었다는 일례가 있다. 이는 앞에서 “배가 고픈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팝콘을 제시하는 방식이기에 더 강렬하게 작용한 것이다. 특히 광고 분야에서 이러한 식역하최면은 빈번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 두면 대화중에 유용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임베드 커맨드로 돌아가자. 위의 미친 사람 취급받을 만한 문장을 임베드 커맨드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아는 후배가 있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 후배가 정말로 말이지..
나와 사랑에 빠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냥 동생 같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만일 ○○이 같으면 늘 친한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로 ○
○이를 좋아해서 깊은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 “...빠진다” 에서 아주 짧은 시간 숨을 멈추고 나서 “...고 한다면”을 이어서 말하는데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백트래킹으로 트랜스에 들게 한 상태에서 임베드 커맨드를 사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이는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섹스로 가는 기법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섹스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치들을 링크시키면서 이를 사용한다.

운명적인 만남의 완성은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의미중의 하나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것만큼 몸으로도 느끼는 사랑을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여기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임베드 커멘트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쇄살인범중의 몇몇은 실제로 감옥에서 그와 접촉한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기법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언어의 기법들은 그것을 배운 이들에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내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힘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도덕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이슬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나오고 뱀이 마시면 독이 나온다. 선택은 이 지식을 통해 얻은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각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공포스러운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도 내가 가진 지식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가진 힘과 지식이 신과 같은 능력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지배당하지 않고 제한적이나마 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배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는 되리라 여긴다.

지금까지 배운 래포, 트랜스, 백트래킹, 앵커링, 센터링, 타임라인, 그리고 임베드 커멘트까지를 모두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비급을 손에 넣은 것이다. 남은 것은 실제로 해보

는 것이다. 더 이상 짝사랑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쿨가이가 되시기를 기
원한다.

정신공간 다루기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의 프랙티셔너 과정과 마스터 프랙티셔너 과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면서도 차이가 난다. 동일한 기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앵커링 사용이 그러한 부분이다. 프랙티셔너과정에서의 앵커링은 어떤 특정 상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매설하는 것이었는데 마스터 프랙티셔너에서는 이것이 정신공간 지배와 관련되어지는 것이다. 현재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은 두 종류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는 초심리학과 관련되어서 ESP라든지 등등의 기법으로 빠지는 종류와 본류의 두뇌라는 하드웨어에 장착된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조작기법으로 보는 종류로 나누어진다. 물론 나는 후자를 지지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신공간이라는 것도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초능력을 사용하는 정신력의 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에 해보았던 실험을 다시해보도록 하자. 먼저 긴 생머리와 손대면 분가루가 묻어나올 듯 한 흰 피부에 큰 눈망울과 짙은 눈썹과 긴속눈썹을 가진 여학생이 막 목욕을 마치고 살짝 살짝 비치는 하늘색 잠옷을 입고는 향긋한 샴푸와 비누향기를 풍기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는 그 상상의 그림이 어디쯤 있는지 손가락으로 전방의 공간 중에 한곳을 짚어보자. 아마도 전방의 어떤 공간을 어렵지 않게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여기쯤에 그 그림이 상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여학생을 저장해두는 정신공간의 영역이다. 머릿속의 상상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특정 영역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제 저녁식사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다음은 어제 점심식사장면을 떠올려보자. 그다음은 어제 아침식사장면을 떠올려보자. 그다음은 그제의 저녁식사장면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과거로 가면서 떠올

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장면들이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가까운 과거는 머리앞쪽에 있으며 과거로 갈수록 머리 뒤쪽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역시도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정신으로 인지하는 공간이 물리공간에서도 특정영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신공간의 구조를 물리공간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남자친구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다.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해서는 그 남자친구에 해당하는 물리공간을 설정해 둔다. 그것이 “그래. 그럼 여기가 ○○(남자친구이름)라고 하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담뱃갑이든지 연필이든지 특정 물리공간에 그녀의 남자친구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화제가 바뀐 대화에서는 그 물리공간에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앵커 시키는 것이다. 강간범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바람둥이라든지 등등을 그 공간에 예를 들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는 또 남자친구에 대한 화제가 나오면 남자친구를 동일한 물리공간에 앵커 시키기를 반복한다. 이는 반대로 말한다면 여자가 이상형을 떠올리는 공간을 어떤 특정 물리공간에 속박하고 나서 나를 그 공간에 앵커링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공간에서의 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래포를 확립하고 가벼운 트랜스에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래포가 확립되면 가벼운 트랜스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전에는 여자가 자신이 하는 상상의 세계에 몰입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상상의 공간에 개입하는 것이다. 전에 쓴 글에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숙달되면 거꾸로 내가 상상하는 세계 안에 상대방을 끌어들이 수 있다. 이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이다. 카리스마란 바로 이러한 정신공간의 장악능력이다. 또한 나의 정신공간 안에 상대방의 의식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카리스마이다. 이는 정신공간에서의 작업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카리스마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고 상대의 정신공간에 스며드는 기법을 연습하도록 한다. 외형적으로는 백트래킹과 상향유목화(큰 개념으로 바꾸기)나 하향유목화(작은 개념으로 바꾸기)에 따른 질문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겠지만 의식적으로 내 주장 없이 상대방에게 동조한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한다. 일단 이렇게 해서 래포를 얻어서 상대방의 정신공간에 들어선 후부터는 그 정신공간에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신경언어프로그래머에서 신경언어해커가 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대화가 일반적인 내용. 즉,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몰라…….”라는 식이라면 하향유목화를 해서 “그래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지?”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너무 구체적이라면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상향유목화이다. 대화가 소재가 모자라는 것은 이렇게 상향과 하향의 다원적인 접근이 없이 평면적으로 대화가 흐르기에 그렇다. “간단하게 어제 저녁반찬이 뭐였어?”에서 시작한 대화에서도 상향유목화를 사용해서 생선은 모두 다 맛있는 것 같아도 나아갔다가 “고등어살 중에서는 배 쪽에 가까울수록 맛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라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원적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상대가 어제 저녁반찬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의 상상의 공간에 몰입해간다면 조금씩 그 당시를 현재공간에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아! 그래? 그럼 고등어 반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찌개그릇은 여기 쪼에 있었어?” 이런 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방의 정신공간을 물리공간으로 환원시키고 있으면 어느덧 상대방은 나에게 의존적이 되어가게 된다. 이것이 경과되면 가벼운 트랜스에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하자고……, 핑크색에 하트모양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 공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지하게 된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 지금부터 내가 손으로 쓸어주면 점차로 커져서 행복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행복을 늘 바라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그 공간에 하트를 들어 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는 손을 쓸어주는 것을 하면 행복감과 사랑이 실제로 커 감을 체험하게 된다. 무슨 마술 같은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작용기전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작동된다. 단, 래포와 트랜스로 정신공간을 다루는 데에 익숙해 졌을 때에는 말이다.

그렇게 나에게 의존적이 된 상대방은 나에게 존경심과 애정을 함께 투사하게 된다. 섹스와 관련해서도 이 정신공간을 다루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우선적으로 정신공간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신공간의 지배에는 전에 설명한 묘사가 중요한 것이 된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본다는 것은 공간인지이기에 그렇다. 일본과 미국의 최면의 대가들 중에서는 두세 문장만으로도 상대방의 정신공간을 완전하게 장악해 버리는 분들도 계신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정신작용이 물리공간에서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화가 나있으면 그 분노라는 느낌이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라. 그러면 그 모양과 느낌을 상상으로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감과 성취를 위한 투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공간을 맡겨버린 상대는 나에게 자신의 에로틱한 부분을 그대로 들어내게 된다. 이는 실제 해보면 알겠지만 정신공간의 AT필드만 사라지면 모든 여자(물론 남자도)는 에로틱해진다.

섹스 실전 초식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쓰는 글은 힘과 능력에 대한 글이지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글이 아니다. 같은 이슬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처럼 이 테크닉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사람의 정신은 생각 외로 약하다. 그렇기에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온 래포와 트랜스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살피고 가도록 하자. 앞으로 여자와의 대화에서 가능하면 줄여야 할 단어가 있다. 그것은 “나”라는 단어이다. 또한 많이 늘려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자기, 애기야, 등등)이다. 물론 이 세상에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법이 신경언어프로그래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고수들은 나름의 노하우로 그것을 해낸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선수들이 자신만의 기법으로 키워낸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기에는 무리인 것들이 많다. 그렇기에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을 통한 방법은 하나의 틀로써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음으로 섹스에 대해서 살피도록하자. 남자에게 있어서의 섹스의 의미와는 다르게 여자에게 있어서의 섹스의 의미는 신뢰성(래포)과 직결된다. 물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원나잇 섹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일상적인 만남에서 섹스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 신뢰성이 상당히 깊음을 의미한다.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의 기법에서 섹스가 갖는 의미는 바로 강한 래포와 깊은 트랜스가 섹스 후에 찾아온다는 부분이다.

인간의 기억이란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렇기에 조그마한 조작으로 과거의 기억이 송두리째 다른 느낌과 연결로써 채색되어 버리기도 한다. 여자 친구에게 어떤 남자로 보이고 싶은가? 여자 친구에게 첫사랑이자

오직 단한명의 남자이고 싶은가? 여자 친구가 이미 사귀기 전에 그전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여자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알고지낸 사이정도의 사람이며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이라고 기억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섹스후의 래포와 트랜스 상태인 것이다.

먼저 섹스에 들어가기 전에 섹스와 그 여자가 갖는 인생 또는 가치관의 중요 핵심어를 앵커링 시켜둔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여자의 흥분은 축적되어서 임계를 넘는 방식이기에 여러 날에 걸쳐서 래포를 이루고 그녀의 상상의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서서히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그녀의 상상의 공간을 내 이야기로 채색하도록 한다. 오감을 동원한 묘사를 써서 상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시간선 혼란을 사용해도 좋다.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난하다. “나른한 오후에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 내가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만으로…….” 이러한 식으로 오감을 동원한 묘사를 해나가도록 한다. 그러면서 섹스와 그녀의 긍정적인 핵심어를 연결시켜 묘사해준다.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해 나아가면 조금씩 섹스에 대한 방어막이 약해지게 되고 말한 대로 어느 순간에 분명한 기회가 오게 된다. 물론 그전에 키스와 진한 스킨십 등으로 분명하게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섹스를 마친 후에 옆에 팔베개를 하고 눕게 만들고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전까지의 만남이나 그녀가 중히 여기는 가치를 평범함에 앵커링 시킨다. 불쾌하지 않도록 나쁘게 말하지 말고 평범함으로 앵커링 시키면서 나와서 만남과 관계가 그 이상의 특별함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이때 이야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묘사를 사용해야 한다. “푸른 숲에서 아침이슬에 젖은 풀잎향기가 가득한 통나무로 지은 집에 벽난로를 켜고 나무 타는 내음이 그윽한 빨간불을 보면서 은은한 향이 나는 차를 함께 마셨으면 좋겠어……. “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꺼내면

서 그렇게 그녀의 정신공간을 나의 말로써 채색해 가는 것이다.

묘사의 체크리스트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된다.

1. 오감을 동원하는가?
2. 충분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인가?
3.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만들고 싶은가

이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론적인 면이 많아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쿨가이 시리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망설였었다.

일단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의 6가지 차원에서 만나기라는 기법은 거꾸로 말하면 6가지 차원에서 인간을 재구성하기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6가지 차원이란 다음과 같다.

환경, 행동, 능력, 가치관, 정체성, 영성

이 6가지 차원 중에 근래 범죄심리학 등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겨우 행동주의적인 관점일 뿐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프로파일링 등의 강력한 기법이 나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범죄심리학 관련 카페에 프로이트나 융의 잠재의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곳 전공자의 답변은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행동주의 패턴이 있을 뿐이지 잠재의식과 같은 것은 없다고 본다는 답이 주류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프로파일링 기법 중에 수사관이 그 범죄의 범인이라고 자기 암시를 한 후 범죄를 유추하는 기법 중에 몇몇 요원들이 진짜 범죄자가 되어 버린 일이나, 연쇄 살인범들 중에서 타인의 심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등 행동주의 심리학으로만 은 설명이 곤란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튼, 위의 6가지 차원이 모두 변화 가능하고 재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보통 첫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신경언어의 입장에서는 내가 100번째 사랑이라도 나와의 사랑이

첫사랑인 사람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위의 6가지 차원에서 모두 나와의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인지하도록 구성이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기에 그렇다. 그러면 기억까지도 왜곡이 일어나며 정말로 내가 첫사랑이고 나를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 왔으며 나만이 운명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유는 어떤 여성이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특별해 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의 왜곡현상에 그 여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위의 6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특별할지를 랜덤으로 그 후의 만남들을 참고로 해서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했다면 6가지 차원에서 자신을 어떤 사랑으로 여기기를 원하는지를 정하고 나서 그렇게 느끼도록 ‘묘사’를 통한 그 ‘느낌’을 일으키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상대방이 그렇게 인지하면서 기억의 축소나 확장이나 왜곡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성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경우 처음부터 마음이 끌린 상대도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마음이 쏠리는 상대는 자신을 트랜스(환상을 꿈꾸는 상태)로 이끌어주는 남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쉽게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 때 중요한 것이 6가지 차원에서 어떤 사랑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를 정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상대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6가지 차원에서 어떤 사랑이기를 내가 바라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6가지 차원 중에서 환경은 ‘언제 어디서’를 말한다.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는지…….

어디서부터 나를 사랑했는지…….

이러한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어디서 어떤 만남으로써 사랑을 시작했는지 등등은 ‘사실’로 간주해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신경언어를 통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다가 이제야 만나게 되었다고 상대여성이 생각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행동이며 이는 ‘무엇을’을 의미한다. 사랑 중에서도 ‘무엇을’이라는 행동적 차원에서의 구성을 말한다. 나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등등을 말한다. 다음은 능력이고 이는 ‘어떻게’를 말한다. 가치관은 ‘왜’에 속하고, 정체성은 ‘누가’에 속한다. 영성은 초개아적인 상태로 모두의 행복과 자기실현에 이르는 부분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느끼게’하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환경, 행동, 능력, 가치관, 정체성, 영성까지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내가 원하는 기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상대가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사랑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이미 6가지 차원에 랜덤으로 기록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새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시스템 에러가 나기 쉽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라는 질문은 시간 낭비인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도 여자의 마음속 여섯 가지 차원에는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출력을 담고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로 쿨가이 시리즈의 큰 그림인 것이다. 어떻게 래포를 만들고 트랜스에 들게 할 것인가? 초기에는 이것이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나를 싫어 한다는 말조차도 이용해서 트랜스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 사람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랑을 정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나에게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눈물 흘리는 사랑이기를 원하는가?

그녀가 나의 몸에 반해서 밤마다 나를 원하게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가 명료하지 않으면 여성이 자신의 사랑을 위의 6가지 차원에서 랜덤에 맞추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작용인 6가지 차원, 내부감각(오감을 통한 묘사)의 환기, 인간정신의 세 가지 인식 패턴(일반화, 왜곡, 생략)등의 신경언어의 기본이론에 대해서 조금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쿨가이 비급 총정리



이 장을 통해 쿨가이 시리즈를 정리하며 일단락 짓도록 하겠다. 쪽 겹겹게 보여주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필자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이름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그 실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NLP 라는 심리기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NLP라는 기법에 대해서는 내가 소개해 드린 서적들을 공부하시고 관련 사이트의 정보들을 읽어 보시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다. NLP의 강력함은 그것이 웨이큰 트랜스라는 각성상태의 트랜스를 만들기에 최면에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최면에 의한 트랜스 상태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다. 이는 NLP의 선조격인 밀턴 에릭슨의 비지시적 최면요법에서 시작되었지만 NLP에 와서 그 기법이 더욱 정치하게 세련되어졌다. 최면이란 래포(신뢰)와 트랜스(몰입)이 전부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진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사랑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 관여하는 기전이다. 그렇기에 NLP가 사랑과 그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NLP의 원점인 에릭슨의 간접최면을 조금 살펴면서 쿨가이 시리즈의 최종정리를 하겠다. 간접최면유도의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관심
2. 허용
3. 격려
4. 묘사
5. 환기

먼저 첫 번째인 관심을 보도록 하겠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래포를 얻는 기법-백트래킹-이란 바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잠재의식 수준에서 인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기법으로써의 백트래킹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써의 백트래킹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백트래킹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외형묘사이다. 이는 “오늘은 빨간 니트를 입고 왔네?” 와 같은 외면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밖에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선 충분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무엇인가 응대를 해 오게 된다. 대개는 내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이때 그러한 이야기에 개입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앞의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면 두 번째 단계인 허용이 된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잠재의식이 받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잠재의식이라는 점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말을 하는 상대방은 상대방의 거대한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 상대방의 거대한 의식세계 전부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식세계에 내가 들어 설 수 있는 초대장을 받는 것이다. 간접최면이란 상대방의 세계에서 그녀(또는 그)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용 속에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격려’를 한다. ‘격려’라는 것이 단어 그대로의 격려가 아니라 말을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격려를 말한다. 만약 그녀가 지난여름 MT에서했던 게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게임을 참 잘 하는구나.’ 라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말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이 ‘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꿈을 꾸는 듯한 눈빛이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 이

야기의 주제는 내가 느끼는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묘사이다. 말도 안 되는 판타지의 세계라도 무방하다.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과 용기와 남자의 꿈을 느꼈는지를 ‘묘사’ 하는 것이다. 또는 함께 본 감명 깊은 영화 이야기도 좋을 것이다. 또는 드라마속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 이 아니라 ‘묘사’ 라는 점이다. 오감을 총동원해서 ‘가상현실체험’ 을 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내가 어떤 것을 체험시킬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다. 만일 부정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세계관을 송두리 채 무너뜨려서 계슈탈트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상대방은 폐인이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람에게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게 되며 최악의 경우 두 사람 모두 함께 파멸하게 되어버린다.

긍정적인 것이란 사랑, 행복, 희망, 용기, 성장 등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굳이 사랑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 단계에 들어섰다면 이미 사랑과 존경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에 그렇다. 그렇기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대방에게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기란 ‘주의를 환기 시킨다’라는 뜻의 환기이다. 이는 ‘블러일으킴’이라는 의미이며 간접최면에서는 암시라는 주입식 기법을 쓰지 않는다. 모든 필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 속에 다 들어 있기에 새로운 ‘암시’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면 충분하다.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체험 중, 용기에 대해서라면 ‘용기를 갖게 된다’ 와 같은 주입식 암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불굴의 용기로써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묘사를 해주면 그것을 자신

의 정신 안에서 체험을 하고, 그 영향은 현실에 드러나서 용기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힘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마치 멋진 무술영화를 본 후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가 잠시간 유지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처럼 NLP도 간접최면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을 우리의 내면세계로부터 끌어오기 위한 기법이다. 우리 안에 갇든 거대한 힘을 억제하고 있는 봉인과 금제를 파악하고 그를 해제해서 본래부터 지내고 있는 천재성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오직 나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를 체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여자를 유혹하는 기법을 넘어서 그 여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줄 그녀 안에 갇든 내면의 힘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요소는 “관심”이다. 사람의 내면에 대한 관심. 이것이 쿨가이 시리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이 기법을 어려운 곳에서 실천하지 마시고 쉬운 곳에서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경우는 위에서 말한 봉인과 금제가 인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랑을 예로 들면 현재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는 자신이 봉인과 금제 속에 있음을 인지 못하기에 그를 끌어 올려서 인지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사랑이 깨진 상태의 여자는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기에 좀 더 쉽게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 물론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지만 처음엔 가능하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사랑이 끝난 사람을 택해서 그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그 상대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여자가 아니라도 가까이에서 그러한 여자가 있다면 이 기법으로 힘이 되어 주면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또한 아름다운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봉인과 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했다. 그 봉인과 금제는 늘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고통과 두려움을 잉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봉인과 금제가 풀렸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내게 그러한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지식을 많은 분들과 나누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글을 써왔다. 이 글로 인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은 분이 있다면 필자 역시도 많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행복하실 수 있으신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쿨가이 배경지식



쿨가이 탄생 배경

이 내용은 쿨가이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는지 그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나의 생각의 흐름들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모두 가설들의 모음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읽다가 무언가 근원적인 의문이 생겨나신다면 그것만으로 이 글의 목적하는 바는 다 한 것이라 여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답을 드리는 글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다.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아래의 서적들을 읽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듯하다.

마인드 바이러스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도킨스와 이기적인 유전자
집단정신의 진화
루시퍼 원리
우리는 왜 섹스를 하는가?
악마의 사도
확장된 표현형
미디어 바이러스
정의로운 체제로써의 자본주의

위의 서적들의 공통점은 정신작용의 유전자라 할 수 있는 밈(meme)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쿨가이의 가장 독자적인 개념인 “센터링”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다. 중요한 것은 밈에 대한 개념이 진리이기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밈으로 표현된 개념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센터링을 설명하기에 가장 괜찮은 개념이기에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서적들 중에서 꼭 읽으셔야 하는 것은 밈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서적과 그 서적에 대한 해설 판이라 할만한 ‘도킨스와 이기적인 유전자’는 읽어 두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마인드 바이러스와 집단정신의 진화와 루시퍼 원리를 보시면 될 것이다.

늘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가 되기를 바란다.

밈으로서의 쿨가이와 센터링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몇몇 분들께서 도대체 왜 음와심권님은 이런 지식을 제공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이다.

그것은 쿨가이라는 밈이 저의 두뇌를 벗어나서 많은 분들의 두뇌로 번식하기를 원하기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 가능할 듯하다.

밈에 대한 기초서적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이다.

하지만 이 서적은 개체 유전자의 번식과 경쟁과 도태와 진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면 집단정신으로써의 밈에까지 이르게 된다.

먼저 각 생물 개체의 청사진은 유전자 안에 깃들여져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적인 모든 활동과 그 부산물은 밈안에 깃들여져 있다.

유전자가 인간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든다면 밈은 인간 두뇌의 모든 지적활동과 그 부산물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본래 OS 는 컴이라는 하드웨어의 종속물이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로 OS에 맞추어 하드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밈은 유전자에 종속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전자를 넘어선다.

보통 집단은 유전자의 유사성을 위주로 구성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혈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물은 이러한 유전자의 유사성을 표기하는 표식을 갖는다. 이는 냄새, 울음소리, 색깔 등등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문화라는 것으로 발전해 간다.

즉, 어떠한 집단의 “가풍”이라고 말할 때 이 가풍이라는 것은 그 유전자 유사성 집단과 비유사성 집단을 구분하는 표식이 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초기 형태의 밈이다.

그렇기에 대개의 초기 종교나 문화는 철저하게 유전자 유사성집단안에만 존재하며, 유태인만이 구원받는 다는 사상처럼 그 유전자 유사성 집단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밈이 발전하면서 유전자 유사성 집단을 넘어서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전까지 유태인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타민족에게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며 자신들과 타자를 구분하는 표식이기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밈은 발달해야 할까?

바로 작게는 인간정신의 네트워크이며 크게는 자연전체의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선택이 그것이었다.

혈연이라는 유전자 유사성 집단으로써의 집단정신보다는 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단위로서의 집단이 집단전체의 생존 조건에 좀 더 잘 맞는 것이기에 그렇다.

이윽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유태인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밈이 로마제국을 집어 삼킬 정도로 번식에 성공했다.

유전자가 스스로의 보존을 위해서 개체를 희생시키거나 투쟁에 가담하게 하듯이 밈도 스스로의 번식을 위해 인간의 정신을 사용한다. 마르크스의 두뇌속의 밈이 60년간 자본론이라는 책에 코드로 숨겨졌다가 레닌과 스탈린을 통해서 번식을 해서 지구상의 절반 가까이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쿨가이라는 지식도 역시 밈이 아닐까?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떤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감명 깊게 보면서 무언가 획기적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대개 가장 가깝게 느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말하고 싶어지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서 처음 생성된 밈이 번식하기를 바라는 충동이다.

여기서 가깝게 느낀다는 것은 위의 유전자 유사성처럼 밈 유사성을 가진 존재이다.

생각의 구조 또는 코드가 맞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래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래포란 밈 유사성으로 느끼는 같은 종족의 느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얻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상대방의 사상에 반론을 제기 하지 않고 긍정해 주는 백트래킹이 될 것이다.

밈에는 좋은 밈과 좋지 않은 밈이 있다.

쿨가이나 유명한 세이노님의 칼럼은 좋은 밈일까 좋지 않은 밈일까?

답은 좋지 않은 밈이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지식을 준다는 것이 좋은 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밈이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전파되는 자기복제 능력을 가진 밈을 좋은 밈이라 한다. 이는 좋다는 관점이 인간 개개인에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정신의 측면에서 좋다는 뜻이다.

쿨가이나 세이노님의 칼럼은 그를 배운 이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조금 적게 일으킨다.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이번 대학 가요제의 이상미양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은 밈이다.

문희준이나 귀여니에 대한 기사들이나 비난의 글들은요?

상당히 좋은 밈이다.

그러면 어쩌서 독점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일까?

자본론은 60년을 코드로 잠들어 있었다.

바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써의 밈과 대립되고 또한 아직 그 대립에서 전덜만한 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도 여자들 위주의 게시판 등에서 쿨가이식으로 여자와의 관계에서 지배성을 갖는 것과 착한남자 되지말기등을 이야기 한다면 아마도 비판적인 공격이 무지막지할 것이다.

이는 바로 기존 밈들의 공격이다.

그러면 쿨가이에 대한 공격적 성향이 그나마 조용한 곳은 어째서일까? 그는 바로 그곳은 필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쿨가이의 밈풀(밈들의 집합)이었기에 그렇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

바로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모두 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밈의 자기 복제에 지나지 않는다.

아, 먼저 오해가 있을 듯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여기서 밈은 “존재”에 대한 “명사”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형용사”라는 점이다.

즉, 화살이 빠르다는 문장이 있을 때, 밈은 화살과 같이 어떤 “존재”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 “빠르다”와 같이 어떤 “현상”에 대한 형용사이다.

즉, 밈은 유전자나 세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사고처럼 “흐름”이자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인도철학이나 불교구사론(유식불교의 기본)에서처럼 화살이 빠르다는 화살이라는 존재에 빠르다는 요소(존재)가 더해진 통합물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면 철학의 경지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접는다.

그러면 밈의 자기 복제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의 흐름이 확장되는 것이라는 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밈을 메타 밈이라고 한다.

지금 제 글이 그러한 것이다.

메타 밈이란 밈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밈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밈에 대한 지식조차도 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밈은 쉽게 퍼져가는 좋은 밈이고 어떤 밈은 금새 사라지고 잊혀지는 밈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집단정신이 스스로 발전해 가며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밈의 생존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아하! 그렇다고 느끼시면 그것도 집단정신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여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반발하는 것도 집단정신이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읽는 분들도 모두 이러한 집단정신의 결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판단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그 선택을 이해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집단의식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선택했는가 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살다보면 어떤 것들은 되는 사람들만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되는 사람들은 집단정신이 되도록 선택을 한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도록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러한 선택의 주체를 “신”이라 부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물론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이 선택의 주체인 집단정신은 시공을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다. 시공의 네트워크로써 시공안에 스스로 자가조직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여호와보다는 힌두의 브라만이 더 유사한 존재다.

그렇기에 요가에서는 에고를 버리고 신과 합일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무조건 신의 선택을 따르라는 것이다.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것까지 모두 이미 신의 선택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이 글을 읽는 것조차도 신의 선택이기에 인간은 신에게서 조금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만 포기하고 스스로를 신에게 바치고 헌신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가?

쿨가이의 센터링은 이러한 집단정신으로써의 신에 대한 인간의 독립운동이다. 물론 집단정신을 부정하고 그를 적으로 돌려서 그를 무찌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센터링이란 그렇게 집단정신이 정하는 것을 이용하는 노하우에 대한 것이다. 바로 위에서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성자가 말한다면, 쿨가이는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동남풍이 불기로 정해졌다면 그는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남은 것 중에서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님 그를 이용하는 법을 탐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여기서 쿨가이가 말하는 “Why(왜)는 필요 없다. 오직 How(어떻게)만이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가 나온다.

센터링이란 이렇게 집단정신의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그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늘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맘이 설익은 상태에서는 자신도 잘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려 들게 된다.

* 센터링의 뿌리가 되는 불교의 진리는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실천적 개념이다

쿨가이의 센터링 – ‘왜’와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어떠한 결론이 아니다. 무수한 가설을 이리 저리 엮어서 근원적인 의문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도대체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쿨가이의 센터링에서 ‘왜’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위의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을 통달하신 도인들이나 가능할 듯하다.

단세포 생물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만 활동한다.

하지만 단세포 생물이나 우리 몸의 세포 하나는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다르게 활동한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는 우리 몸이라는 더 큰 실체를 위해서라면 자기 파괴를 기꺼이 한다.

인류의 문화에서도 그런 현상은 끊임없이 보인다.

자기희생이라는 숭고한 정신에서부터 자기 파괴라는 정신 이상까지 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물 집단에서는 종족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런 일이 행해지지만, 인간에게서는 문화나 믿음이나 가치관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인간은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 부여와 자신이 존속 여부까지 담보 잡히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분신자살과 같은 일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숭고한 희생입니다만, 메타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기존 믿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믿이 인간 하나를 희생시켜 번식 속도가 느린 좋지 못한 믿을 번식 속도가 높은 믿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탄핵직후의 촛불시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영화 매트릭스로 돌아가 보자
네오와 그 일행이 키메이커를 데리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이다.

거기서 그는 “이유”가 곧 “힘”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네오 일행은 이유 없이 왔으므로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그의 오류다.

소득 없이 돌아가며 자신들이 잘못했나? 를 생각할 즈음 모피어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며 그것의 증거가 아직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자신들의 행동에 이유가 없다면 자신들은 이미 죽었을 텐데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보면 살아 있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집단정신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집단정신이 탄핵을 선택했고, 촛불시위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거대여당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선택되어진 “이유”를 이해 못했기에 시간이 흐른 지금 지지율 급락이라는 도태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들이 선택되어진 것은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들의 이상이 숭고해서가 아니라 집단정신이 그들의 주장을 선택했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왜” 그 주장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치밀한 사유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시간 속에서 말이다.

선택되어진 이유는 과거사의 정리나 친일파 처벌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해서 만들어질 미래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세이노님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부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쿨가이 없이도 여자가 붙는다.

그것에는 그것의 이유가 있기에 그렇다.

만일 그들이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유가 납득이 되어서 집단 정신의 조종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쿨가이에서 말하는 센터링은 그렇게 이유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경우처럼 어떻게 내가 집단정신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며 그 통찰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NLP의 어소시에이션(몰입)과 디소시에이션(관망)의 자유로운 조절이다. 집단정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어소시에이션이다. 집단정신의 선택을 바라보며 그 흐름의 패턴을 읽어내고 끝없는 직관으로 그를 파악하는 것이 디소시에이션이다.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센터링의 기본이다.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여자에게 몰입하는 것과 관망하는 것을 자유로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자신의 삶의 흐름의 패턴을 주의 깊게 살피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를 갖게 된다면 몰입과 관망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그 흐름 위를 서핑하라.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음의 질문과 지금의 질문은 축이 바뀌었다.

제가 말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다.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종교 박람회에 나오는 이야기 이다.

눈 내리는 겨울밤 추위에 떨면서 성냥을 파는 헐벗은 소녀를 본 신부님은 하나님께 묻는다.

“주님! 어째서 이런 고통을 이 세상에 만드셨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곧 대답을 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너를 창조했느니라..”

신부님의 “왜”라는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로 대답하고 있다.

쿨가이 배경지식 시리즈를 마친다.

그럼 늘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쿨가이 외전



그녀를 잊기로 한다

실연을 당한 가슴 아픈 체험을 하신 분들께 어떤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그러한 아픔에서 벗어나는 NLP 기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 하겠다.

시작은 ‘관점의 전환부터’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프로세스가 만들어 내는 어떤 심리적 반향의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될 수도 소거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심리적 프로세스를 일으키면 어떤 대상에게라도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정나미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하는 법을 생각해 보겠다. 혼자 있거나 했을 때 먼저 어떤 것을 계기로 그녀와의 여러 추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고 그것은 이윽고 자기 처벌과 자기 연민으로 바뀌면서 견잡을 수 없는 회한과 통한의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

일단 최초의 어떤 것을 계기로 그녀와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NLP 용어로 ‘디스어소시에이션(분리)’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고풍스러운 액자에 넣어서 점차로 낮고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변해가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이면서 점점 멀리 사라져 가도록 한다. 그런 후에 천천히 일어나서 낮은 LP판을 트는 것을 상상하는데 거기에서는 테너 성악가의 경쾌한 목소리의 ‘희망의 나라로’가 나온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윈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커피향이 가득 마음 깊은 곳의 늘어지는 느낌을 일깨울 때 커튼이 내려진 창가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을 상상하고 창을 활짝 열어 밖을 내다본다. 가슴 후련한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면 그를 맘껏 들이마시고 하늘을 보니 맑고 파란 하늘 한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있다.

크게 기지개를 한번 켜고서 왼손을 세 번 힘을 주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자. 언제든지 회한이 몰려올 때 이렇게 왼손을 세 번 주먹 쥐면 지금처럼 상쾌한 기분에 자신감 넘치는 자신이 되실 수 있게 된다. 이를 앵커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다음 장의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방법을 해보도록 한다.

늘 즐거우신 날들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사랑 ‘끌어오기’

필자가 본 만화책 중에 ‘충몽’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 인간은 스스로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본능수준에서 신경계의 반응을 한 것에 불과하고 뇌에서 그러한 선택에 이유를 붙여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착각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현재의 뇌생리학이나 NLP의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합되는 내용이다.

우리의 신경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아온 교육들과 나름대로 익힌 생존전략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OS로 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 줄 때는 전혀 다른 이유로써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합리적인 사고라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어떤 특정한 인과(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내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경계에 프로그램되고 탑재된 OS에서 반발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 안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걸로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지성이 생각하는 것의 99%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행동의 선택에 대한 것조차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인데, 상대방 여성이 내게 보여주는 행동의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내게 탑재된 OS의 코드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특정상황에서 치명적 오류

를 일으키는 버그를 잡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OS자체는 누구나 완벽하다는 점이다.

다만 특정상황에서 에러를 일으킬 뿐이다.

그 특정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며 각각 개인들의 OS는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다.

그렇기에 내가 상황을 극복한 해결책이 타인에게도 적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사랑을 끌어온다는 것은 바로 내안에 탑재된 OS를 분석하고 디코딩해서 사랑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버그들을 디버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신경언어프로그래머의 작업이기도 하다.

자신의 신경계에 탑재된 OS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언어로써 변화시키는 작업이 그것이다.

만일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이 된다.

바로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이 위대한 지성의 모방에서 출발한 것과 같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신경계에 탑재된 OS를 카피하는 것으로 그들의 탁월성을 모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NLP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대한 성인들의 신경계를 모방한다면 범부도 빠른 시간 안에 성인이 된다는 관점의 ‘초개아적(자기초월적) 신경언어 프로그래밍’도 있다.

NLP의 여러 차원 중에서 영성 차원과 초개아적(자기초월적) 심리학을 접목시킨 기법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첫 단계는 자신의 OS의 작동방식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에러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이다.

제대로 그 에러를 찾아 낸 것만으로 이미 99%의 디버깅은 끝난 것이다.
1%는 디버깅 후에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 해보아서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만 해주면 된다.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이 오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예를 들자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 온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는 프로세스를 떠올려 보지.

만일 그것을 떠올리자마자 ‘나이트에 오는 여자들은 대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술 마시다 뒹굴던 여자들이라 여기서 내 사랑을 고르기는 싫어’ 라는 느낌이 온다면 거기서 스톱이다.

축하드린다!!!!

자신의 OS에서 버그를 발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이트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가 친구 손에 이끌려 나이트에 처음 가보았고 앞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내 스타일의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위의 버그는 그러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버그이다.

나이트에서 사랑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리프로그래밍 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선택의 폭이 적어서라고 NLP에서는 가르친다. 그렇기에 유연한 사고로 선택의 폭을 넓히면 삶의 질이 바뀌게 된다. 무엇이든 상상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러저러해서 안 돼’라는 느낌이 오면 디버깅을 하라.

바로 NLP 서적에 나오는 삭제-왜곡-일반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기에 그것이 어느 부분이 삭제되었고 왜곡 되었고 일반화 되었는지를 납득하면 그 즉시로 디버깅이 일어난다.

그런 후에 다시 한 번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보아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거나 단 일회에 완성되거나 하면서 디버깅 프로세스를 계속하라.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특히 섹스 시에 내 판타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면서 내 친구들 앞에서는 다소곳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또한 똑 부러진 충기마저 가진 긴 생머리의 흰 피부에 질고 긴 속눈썹의 그녀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녀가 나를 좋다고 매달리는 것을 떠올려 보라.

그러한 세부사항의 상상 중 어느 부분에서 버그가 튀어 나오는지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전체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여자가 내 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경계가 그러한 여자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발하지 않도록 기회를 열어 놓도록 해 놓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많은 상황들을 리프로그래밍 할수록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초능력처럼 누구의 정신을 텔레파시로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대역폭을 넓히는 심리기법이다.

또한 같은 방법이 영업이나 학업이나 그 외 모든 것에 통용된다.

‘편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떠올릴 때 어떤 버그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를 디버깅하는 것이다.

그러면 편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존의 심리학이 개인의 심리구조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탐구했기에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인 특별한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를 넘어서는 특별한 체험을 심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초개아(자기초월) 심리학이다. 이 심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NLP를 재구성 한 것이 초개아적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다. 즉, 인간이 물질로만 만족하고 행복을 영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물질을 넘어서 선 곳을 추구하는 심리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심리학과 그 이론으로 그를 성취하도록 하는 기술로써의 NLP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최면으로 이성 유혹하기

인터넷의 한 카페에서 최면관련 검색을 해 보면 최면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카페가 있다. 대강 훑어보니 전생 봐 준다고 말하고 최면을 건 뒤 래포로 인해 감정적으로 기대게 만들어 이성을 유혹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었다. 그 곳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간접최면 기법이 더 실전에서 쓸 만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직접최면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 직접최면의 경우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친구들과 최면 연구회라든지 전생 탐구회 등등의 모임을 만들고 나서 그 곳에 이성을 불러서 전생퇴행최면을 하면 쉽다. 중요한 것은 최면문구중에 다음의 문구를 슬쩍슬쩍 넣는 것이다.

“...나의 말을 따르면 점차로 편안하고 따뜻하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반복 3회 이상)

“...최면에서 깨어나면 이 세상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며 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가 사랑스럽고 가슴 설레게 보입니다...” (반복 3회 이상)

“...마치 첫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마치 목숨을 다 할 만한 깊은 사람에 빠졌을 때처럼...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존재들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반복 3회 이상)

위와 같은 문구는 얼핏 보면 일반 최면 유도중의 문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뜨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시적 최면 거는 법은 여기저기 강좌도 많고 책들도 많으니 따로 말하지는 않겠다. 책 한두 권을 보면 그 책이 그 책이니까. 몇 가지 소개한다면 최면술과 인간관계(하이텔베르크 사건을 포함해서 일상에서 저

자가 타인의 마음을 조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한권으로 완성하는 최면 테크닉(에릭슨 간접 최면에 대한 내용이 있다), 최면과 최면치료(간접최면과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의 내용이 있다), 최면치료 입문(아마도 에릭슨 간접최면을 다룬 국내 유일 서적일 것이다), 설득의 심리학(세뇌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정도 보면 직접최면에 대해서는 충분할 것이다.

도대체 그녀는 왜 그럴까

많은 남자들이 당혹해 하는 것은 분명히 내게 관심이 있다고 여겼던 여자가 가까이 다가서기 무섭게 거리를 두며 연락을 끊으려 하는 상황일 것이다. 분명하게 누가 봐도 내게 호감을 보였다고 여겼는데 정말로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이런 때일 것이다. 앞에도 썼다시피 여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물론 모든 여자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여자 분들이 남성들에게 친절한 미소정도는 늘 제공한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해주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 내게만 어떤 특별한 ‘사인’을 보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내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상처를 입는 남자들이 많다. 몇 번 언급한 것 같지만 여자들에게 있어서 호감이란 참으로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자들의 경우 단순히 좋아하거나 관심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이다. 그렇기에 “나는 너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고, 너의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연락이 늘 기쁘고, 또한 둘만의 시간이 꿈결과도 같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라는 말을 여자들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

이유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존경, 배려, 좋아함 등등...)이 호감이지만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호감이 사랑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더 가까워지면 “정이 들까봐 만나기 싫다”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한다. 즉, 여러 겹의 호감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행동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필자의 답이 모범답안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 각자의 답이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답을 한 가지 제시함으로 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 정답일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해서 드리는 말이다. 필자는 여자의

호의나 호감표시는 무조건 무시해 버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자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마음속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구한다는 것이다.

여자의 호의나 호감표시는 그것이 아무리 각별하고 내가 보기로는 정말로 그녀가 은근히 사랑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해도 그녀 입장에서 어떤 층에 속한 호감인지 알 수 없기에 그렇다. 인간 심리는 너무나도 미묘해서 늘 확실적인 답이 있을 수 없다. 연애 심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여긴다. 그렇기에 필자의 경우 나 자신의 마음에서 그녀가 좋다면 그녀와 나 자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두 사람 모두의 사랑과 행복,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것이다.

그녀가 내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선부른 답을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여자의 마음은 깊고 복잡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나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 뿐 그녀의 행동이나 미소에 두지 않고 있다. 어떤 길을 가든지 두 사람의 원하는 사랑과 행복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남자의 경우와 또 다른 경우가 여자의 경우 무난한 남자와 연인관계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무난하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많이 구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정도의 개념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남자와 연인관계를 허락하고 나서 여자는 많은 부분 후회를 한다.

그 후회의 대부분이 짜릿함(영어로는 케미스트리)가 없다는 부분이다. 자신을 좋아해주고 이래저래 무난하기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정도의 남자라면 괜찮겠단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가 갈수록 지루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헤어질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데 계속 잘해주는 남자를 보면서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에게 잘해줄 필요 없다느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느니 등의 이야기를 한다.

여자에게 짜릿함 또는 연애감을 일으킬 수 없는 남자는 여자에게 퇴출대상 1호가 된다.

어느 분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개그맨들의 여자가 미인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이다.

여자의 경우 남자의 용모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연애감을 일으키는 남자이다.

물론 용모가 출중하면 그 자체로 연애감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만일 그런 것 없더라도 여자로 하여금 연애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킬을 가진 남자라면 충분히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만날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자에게 왜 그런 식이냐고

따지다가 싸우게 된다면 그녀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이 되겠는가?

NLP용어중에 앵커링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만일 레몬을 상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녀가 나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떠오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이다. 나와 만나는 시간의 대부분에 로맨틱한 생각을 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녀는 나를 떠올릴 때 마다 로맨틱한 느낌과 함께 떠올릴 것이다. 나와 만나는 시간의 대부분에 즐겁게 웃는 일이 많았다면 그녀는 나를 떠올릴 때면 웃음부터 떠올릴 것이다.

지금 내가 그녀와 만날 때 그녀가 어떤 느낌을 주로 받는 것일까?

그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만 그것만으로 로맨틱한 기분에 들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마님과 머슴의 관계로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영영 로맨틱한 느낌은 사라져 버린다.

대개 못된 남자가 미인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은 못된 남자는 머슴이 되지 않기에 그렇다.

어떻게 하면 여자가 로맨틱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니? 로 시작하는 구문에 대한 필자의 글을 참조하라.

중요한 것은 나와 만나는 시간의 대부분이 로맨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웃는 일이 많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물이나 챙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NLP, 유목화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해 드리자면 NLP는 심리학의 방계에 속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서서히 기존 심리학과 정신의학분야에서 그 기법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이다.

NLP는 심리학 분야 중에서 행동주의에 가장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행동수정이나 교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NLP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NLP의 다른 이름이라고까지 불리는 15분 포비아 리무벌(공포증 제거) 덕분이다. 이는 무수하게 많은 공개시연과 연구로써 현재 단 15분 만에 몇 십년간의 공포증을 치료하고 현재까지 80%이상이 10년 이상 재발없이 지내고 있다.

이러한 NLP는 현재 방대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 기법이다.

바로 밀턴모델과 메타포(은유)와 메타모델 이다.

NLP에서는 모델 또는 모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NLP에서는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것은 심리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모델 또는 모형구조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에 올린 글에 상향유목화와 하향유목화와 동급유목화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상향유목화의 과정이 밀턴모델이고 하향유목화의 과정이 메타모델이며 동급유목화의 과정이 메타포이다. 동급유목화는 래포를 기르고, 상향유목화는 트랜스로 몰아가며, 하향유목화는 트랜스에서 깨어나게 한다. 메타포는 국내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서적이 있으므로 그 서적을 참고하라. 상향유목화는 언어의 모호한 사용을 의미하며 이를 밀턴 에릭슨이 최면 시에 사용한 언어 패턴이라 해서 밀턴 모형이라 한다.

상대의 말을 백트래킹 할 때 상향유목화를 주로 사용하면 트랜스에

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향유목화는 언어를 세부적으로 명료화하는 것으로 트랜스에서 깨어나게 한다.

트랜스는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울한 기분에 젖어서 모든 것이 귀찮을 때... 이럴 때 역시도 트랜스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트랜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 기법이 바로 하향유목화이며 이를 메타모델이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메타모형을 들어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의식 상태를 자각시키는 것이다.

굳이 연애에만 국한한다면 먼저 메타포로써 래포를 강화하고, 상향유목화로 트랜스로 유도하며 과거의 남자에 대한 기억은 하향유목화로 트랜스를 파기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영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NLP서적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얻길 기원한다.

쿨가이가 되자

FAQ



[질문]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가?

[답변] 가장 처음에 읽어야 하는 것은 ‘인생을 위한 NLP’이다. 다른 서적들과는 달리 실제적인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혁신을 위한 NLP 파워’와 ‘NLP,무한성취의 법칙’이 있다. 최면 중에서도 타인최면과 자기최면이 있는데 앞의 서적은 타인 최면적인 요소가 많은데 비해서 이 두 서적은 이론과 자기최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두 서적은 꽤 많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 두어야 한다.

세 번째는 ‘최면치료 입문’이다. 이는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의 토대가 된 세 가지 심리학 계통 중 밀턴 에릭슨의 간접최면을 다룬 서적이다. 다만 최면의료전문서적이므로 내용이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재 절판되었는데 앤서니 라빈슨의 ‘무한능력’을 구할 수 있으면 보도록 한다. 만일 ‘무한능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대신 보도록 한다.

인생을 위한 NLP, 자기 혁신을 위한 NLP 파워, NLP 무한성취의 법칙, 최면치료 입문, 무한능력. 이렇게 5권을 읽으면 신경언어프로그래밍 기초(프랙티서너)과정의 약80퍼센트 정도와 전문가(마스터 프랙티서너)과정의 약50퍼센트 정도를 배운 것과 같다.

만일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꼭 직접 배워보기를 권한다. 아마도 기초과정이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안다. 국내에 교육기관도 한 세군데 정도 되는데 어디서 배우든지 내용은 거의 같다. 신경언어프로그래밍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수백만원짜리 강좌 내용을 고스란히 책에 써 놓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브라질리언 주짓수책에 나온 것을 보고 암막을 배우는 것과 체육관 가서 암막을 배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기법들도 책에서 보는 것과 체육관에 가서 배우

는 것은 확실하게 다른 면들이 있다. 게다가 실전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된다. 아마도 기초과정이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안다. 국내에 교육기관도 한 세군데 정도 되는데 어디서 배우든지 내용은 거의 같다.

[질문] NLP 추천서적 외에 더 보아야 할 서적이 있습니까?

[답변] 설득의 심리학, 실용 연애편지(남녀 편 모두), 유혹의 기술, 남성 심리학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남자의 생, 센터링 - 중심이 서는 삶으로의 여행, 센터링으로의 초대 등이 있습니다.

[질문] 신경언어프로그래밍과 심리학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정확히 말한다면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은 심리학의 본류가 아니며 아마도 대학서 심리학을 전공하신다고 해도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안다. 또한 쿨가이 시리즈의 기법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을 때 그러한 예제를 신경언어프로그래밍에서는 패턴이라 부르며,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이 본래 누군가가 성공한 것을 본뜨면서 발전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을 인간의 탁월성의 모방이라 얘기한다.

[질문]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꼬시는 법은 있을까요?

[답변] 사실 이 주제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유혹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눈을 돌리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유혹하려는 남자 외에도 이미 여자 친구가 있는 남자에게도 보통문제가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한다면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보다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더 유혹하기 쉽습니다. 가끔 친구와 여자 친구를 함께 잃으셨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 분이 그 친구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여자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친구는 사전에 파악해서 멀리 하게 필요합니다.

전에 남자의 욕구는 방출형이고 여자의 욕구는 축적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남자의 욕구는 대상과 관련되고 여자의 욕구는 느낌과 관련된다. 이 말은 여자는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중시하고, 남자는 “누구”와 사랑을 하는가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한 새로운 남자를 찾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도 다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도 마음이 갑니다. 문제는 여자로 하여금 그러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남자가 한국 땅에 몇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여자 친구에게 할 만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자 친구가 모든 이야기를 시시콜콜히 다하는 여자 친구의 친구에게 여자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은 왜 생기는 것인가? 여자는 위에 말한 그런 느낌을 24시간 1년 365일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는지요?

그러므로 여자가 만족하는 남자란 본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인간은 상상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타임라인은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만나는 여자 친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되었는데도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한번 만난 다해도 전화 통화나 문자는 매일 주고받을 것 입니다. 바로 이때 타임라인으로 1년 365일 공백 없는 사랑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등을 물어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백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목소리 톤이 조금 느려지면서 자기 얘기에 빠져드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시간선 혼란을 줍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 저렇게 했을꺼야... 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다는 상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스케줄을 안다면 미래의 일도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묘사’를 한다는 것 입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묘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사랑을 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시간 선에 혼란을 주는 것 입니다.

여자는 축적 형이기에 그러한 느낌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 느낌의 축적이 임계를 넘어서면 그 느낌에 대한 표현을 대담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의 축적이 임계에 다다르지 않으면 표현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면 일단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 남자친구로 인해서 받고 있는 느낌이 임계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바로 찬스입니다. 외롭다, 쓸쓸하다는 말을 동성친구에게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성 친구에게 그 말을 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외롭다는 말을 했으니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

하지 말고 그럴 때 일수록 전후를 살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래포와 트랜스로 대화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임계 치와 무관하게 즐거웠던 일들이라든지 행복했던 기분이라든지 이상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드라마 이야기도 좋을 것 입니다. 늘 중요한 것은 백트래킹과 진심으로 그 말을 재미있게 듣는다는 느낌을 여자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친구를 부정적인 사항에 앵커링 시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바람피우는 남자를 증오했다면 먼저 바람피우는 남자들이 얼마나 비열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때 담뱃갑이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면서 그 바람피우는 사람이 이거라면 말이야…….상대 여자는 이쪽에서 있었다는 거거든…….하면서 특정 사물과 바람피우는 남자를 앵커링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화제를 바꿔서 그 여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 여자의 남친)가 여기 있을 때…….그러면서 아까 그 담뱃갑을 그 남친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앵커링은 전문가 과정에서 배우는 앵커링 기법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마약이나 술을 이런 식으로 간접 앵커링시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하면 점점 남친과의 관계지수가 임계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의 방법을 쓰든지 저절로 임계이하로 내려가기를 기다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임계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쿨가이 시리즈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유혹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우 외에 남친이 있는데도 딴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가 쫓아다녀서 연인사이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계 치에 못 미치지만 지금 당장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사귀는 사이인 것입니다. 신경언어에서는 사람의 동기부여에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취 형 동기 부여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 형 동기부여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하는) 성취 형 동기부여이고 가난이 싫어서 일하는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회피 형 동기부여입니다. 많은 경우 여자들은 회피 형 동기부여가 많다. 여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모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귀다는 경우도 현재 남친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사귀자는데 에 동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그 느낌이라는 것이 늘 1년 365일 임계 치 이하인 것 입니다. 만일 그 같은 상황이라면 래포와 트랜스를 만들어 앵커링과 타임라인으로 여자로 하여금 임계치 이상의 느낌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이벤트에도 여자친구의 마음이 날아가 버리게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반대로 그런 경우라면 마음 놓고 접근해서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기 바랍니다.

[질문] 쿨가이 기법을 좀 정리해주세요.

[답변] 쿨가이 기법은 주로 신경언어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계통의 최면과 세뇌기법들을 보조로 해서 구성된 것 입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3가지 범위가 됩니다. 래포(신뢰), 트랜스(몰입), 어퍼메이션(암시)이 그것 입니다.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래포를 얻는 것 입니다. 방법은 상대로 하여금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 입니다. 신경언어에서는 이를 상대방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나를 만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내가 그와 동류의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트래킹과 함께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상상하도록 합니다. 나의 상상력이 강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의식에도 전염이 됩니다. 이것이 조난자들의 환각전염이기도 합니다. 최상의 상태는 상대방이 혼자서 방안이나 욕조에 누워서 노래들으며 자기 자신에게 독백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 정도가 되도록 나의 존재감을 지우고 그녀의 세계 안에 동화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래포입니다.

다음단계로 그녀를 그러한 상상의 세계 안에 완전히 몰입(트랜스)시키는 것 입니다. 방법으로는 질문과 타임라인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암시(어퍼메이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묘사와 임베드커맨드와 앵커링등이 중요한 기법이 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여자는 임계치를 넘는 축적이 있는 후에야 겉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극이 주어지면 바로 반응하는 남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극이 쌓이고 쌓이지 않으면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암시문구는 그런 의미에서 씨앗이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의식 안에 심어 놓는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여자의 의식을 지배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는 자신의 할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질문] 여자에게 고백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싫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답변] 여자에게 고백했는데 노우를 들었거나 처음에는 예스라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여자의 노우

를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덮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자가 노우를 했다는 것 은 래포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아직 암시라는 씨앗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다시 상대방의 세계에서 상대를 만나고 그 세계에 몰입시키면서 그 세계 안에 나의 씨를 뿌리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그 씨앗이 자랄 때를 기다려서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것 입니다. 또 노우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여자의 노우는 ‘지금’ 안 된다는 뜻 입니다. 그것은 ‘나중’에는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여자들을 그런 맘으로 대하고 조종하듯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답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쿨가이 시리즈는 힘에 대한 것이지 도덕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못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안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입니다. 쿨가이에서 가르치는 힘이란 선택과 관련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쿨가이를 배워서 그로써 진정 사랑하는 한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그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쿨가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주체로써의 힘일 뿐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록

에릭슨 언어패턴과 예제



목 차

● 나는 이렇게 쿨가이가 되었다

그대안의 쿨가이를 깨워라	121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가?	125
쿨가이를 처음 접하고	128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133
헌팅할 때 Tip	139
약속 잡을 때 Tip	142
디오니소스의 축복	144
여자가 나와의 대화를 재미없어 한다고?	148
센터링에 대한 단상	151
사랑에 빠지는 과정	154
여성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156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160
처음 잠자리하기	166
새로운 시도	170
그녀를 놓아줄 준비를 하자	174

● 쿨가이, 그 후

쿨가이가 이루어야 할 것	181
쿨가이가 되고 나서	186
나는 쿨가이가 되었다	189
쿨가이이기 때문에	192
쿨가이로 산다는 것	196

● 쿨가이는 이렇게 말한다

NLP언어 패턴모음 201

사랑멘트 모음 209

나는 이렇게 쿨가이가 되었다



그대안의 쿨가이를 깨워라

2004년 8월, 우리사이에서 ‘심계’라 불리는 한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우연한 기회에 쿨가이를 알게 된 나는 ‘슬픈비요일’이라는 별명을 사용했던, 쿨가이에 대해 전혀 몰랐던 한 남자였다. 쿨가이를 알게 된 심계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연애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던 쿨가이에 대한 첫인상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런 쿨가이를 보며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며 실제 연애생활에 접해보던 중 쿨가이와 NLP에 관심 있었던 여러 명의 회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해 10월 경, 활동영역을 네이버의 카페로 옮기게 되었다. 그것이 네이버의 “NLP로 멋진 남자 되기” 카페의 시작이었다.

초창기 카페회원은 600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카페는 이미 심계에서 소위 ‘고수’라 불리던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마인드가 섞여있던 심계 시절보다, 같은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급상승한 래포 덕분에 회원들의 활동량과 참여도는 엄청나게 증가했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쿨가이라는 하나의 지붕아래에서 도약을 위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다. 올라오는 고수들의 글을 보며 나 역시 고수를 꿈꿨었고 고수를 꿈꾼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닌 카페 모든 회원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카페에서 활동을 한지 3개월여가 지난 후, 이전부터 회원들 사이에서 추진하자던 카페의 1차 정모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당시 처음 모였던 회원은 3~40명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만나던 여친과 1박2일의 여행을 마치고 조금은 뒤늦게 정모에 참석했던 나를 반겨주시던 당시 카페 매니저, 라이히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온라인에서 글로만 보고, 만났었던 회원들을 오프상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그 설렘을 안고 정모자리에 참석했을 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란…….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회원들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남자들끼리 모여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면서 당시의 첫 번째 정모는 지금은 둘도 없는 지인들이 된 당시 회원들과 함께 웃으며 되돌아보는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었다. 정모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 계시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라이히님을 보좌하는 새로운 운영진들이 선출되었고, 그 중에는 나, 슬픈비요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맨 처음 심계에 쿨가이를 따라한다던 진행기를 쓰던 내가 카페의 운영진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후에 내가 카페의 2대 메니저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당시에는 쿨가이와 그에 관련된 자료와 회원들의 노하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카페 회원들끼리만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났었고 그로인해 카페내의 정보 혹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회원들 각자가 상당히 민감했다. 카페의 초창기 때 일어났던 카페자료의 외부공개 유출이나 보안에 관련된 사건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무마되었던 경우가, 시간이 흐르며 카페의 기반과 토대가 닦여가며 운영진이 자리를 확실하게 잡음으로서 후에 몇몇 사건들에 대해선 그 대응이 확실해져 갔었고 카페는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었다. 내가 카페스텝으로 활동하던 당시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혀 없진 않았다. 그 사건들 중에는 카페 내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회원이 관련된 사건도 있었다. 그 사건들 중에는 카페의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그때마다 카페회원들의 믿음과 도움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별 탈 없이 잘 이겨내 왔었다. 당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회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카페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뒷수습이란 전혀 없이 카페를 스스로 탈퇴했었는데 당시의 그 대처자세가 지금까지 섭섭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카페 회원들 모두일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당시 탈퇴했던 그 회원들께 이 지면을 빌어 여쭙본다. 당신은 정말 쿨가이가 되고 싶었

는가?

카페가 앞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회원들의 활동이다. 회원들 개개인의 활동이 없으면 그 카페는 죽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쿨가이를 통해 더 나은 모습의 자신을 만들려는 카페의 성격상, 카페활동에 참여도가 높지 않았던 회원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기에 카페 초창기 때부터 회원정리가 계속해서 있어왔었고, 회원정리의 기준은 회원개개인의 활동 성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성적이란 것이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운영진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가벼운 다수보다는 무거운 소수를 지향했던 카페의 취지역시 카페회원의 양적팽창을 우려했었고 그로인해 정리되었던 카페회원들의 반발도 조금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인해 우리카페와 노선이 다른 몇몇 카페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지면을 빌어 그 분들은 잘 지내시는지 안부말씀을 드려본다.

앞에 우리카페의 성격과 노선이 다른 카페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카페에 이런 저런 사건이 생기면서도 시간은 흘렀고 처음에 쿨가이와 NLP를 앞세운 연애키카페로 시작한 우리카페는 더 이상 연애키팀만이 아닌 더욱 다양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의 장으로 발전했다. 성공학, 최면, 역술, 오컬트, 남성해방학 등등 연애에 국한되지 않은, 말 그대로 질적 팽창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카페에 모인 회원들은 모두 각자 다른 나이, 환경, 직업 등의 상이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런 유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현재 우리카페는 연애키팀을 위한 모임이 아니다. 더 나은 인생을, 더 멋진 인생을 살려는 남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훌륭한 스테이지다. 이 스테이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의 노하우를 습득하며 나 자신의 기예를 뽐내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던 스텝이자 매니저를 지냈던 나는

그리 좋은 매니저가 되지는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회원분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려 본다.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 졌던 카페차원의 몇 번의 정모와 모임들.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서로의 시간을 함께 해주는 지인들과의 자리…….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쿨가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음와심권님과 카페의 모든 회원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나 역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에.

올해는 카페가 생긴지 햇수로 3년째가 되는 해다. 이제 쿨가이는 우리의 품안을 벗어나 더 큰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3년간 매일매일 생각하고 접해왔던 쿨가이는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한권의 책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간다. 이제 이 책을 접한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자들이여, 그대 안에 숨어있는 쿨가이를 깨워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가?

보통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하여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한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위에선 맑고 순수한 바람으로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끔씩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여자에게도 통할까?

중학교 시절 BOYS BE.. 라는 남자용 순정만화를 읽고 깊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들이 동갑은 물론 연상연하 가릴 것 없이 미소녀 엘프들을 사귀다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는 만화였다.

하지만 만화는 만화일 뿐.. 결국 소년들을 위한 자위용 만화책일 뿐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선망이 되는 여자와 사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소년들을 연애에 기술을 가진 남성으로의 발전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고 영원히 해바라기 순수한 사랑만을 찾게 만들어버리는 빌어먹을 악마의 바이블 일 뿐이었다. 빌어먹을 순정과 만화..

이러한 악마의 바이블을 읽고 사춘기때 크나큰 감동과 영향을 받는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연애 좀 해보려다가 찌질 하게 끝나고 항상 '그래도 나는 간절하고 순수한 사랑을 했어'라며 자위를 했고 결국 도키메키 메모리얼과 동급생을 시작으로 미연시 켄의 오타쿠가 되고 말았다. 나는 그 게임들에서 나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줄만한 나만큼 순수한 여자친구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비교적 개방적인 남녀 분위기와 자유로움..

그리고 미팅!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1학년 첫미팅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가져온 빌어먹을 만치 아팠던 추억까지 말이다..

자그마한 몸집에 까만 긴 생머리.. 미팅에서 만난 그 여자아이는 순수한 사랑에 있어 세뇌된 나에게 있어 완벽한 이상형이었다. 핸드폰 번호를 받고나선 정말 눈물 나도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나의 마음을 갖다 바쳤다. 잠이 안온다고 하면 젠장맛을 양도 세어주고 우울할 때 달래주고 옷게 해주려고 되지도 않는 유머도 하고.. 눈물나리만큼 순수했다. 그리고 간절했다. 이런 여자애와 사귄 수만 있다면..... 친구들은 좀 있으면 사귀는 거 아니냐고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런 친구들의 말에 난 조용히 웃음만 지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이별통보를 받게 된다. 이별을 통보받은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미안해 내가 너를 부담스럽게 했구나. 그동안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술집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죽여 울었던 쓰리고 아팠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 그 후로 미팅이란 미팅은 죽어라 나가서 나만의 사랑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 돈과 시간을 들였으며 패션과 재미있는 얘기들도 준비했다. 그러다 같은 수업 듣는 긴 생머리를 가진 예쁜 2학년 여선배와 별 생각 없이 친해지다 사귀게 되었다. 고백할 때도 별 생각 없었다. 첫 만남부터 간절함도 없었다. 선배와 사귀고 난 후 난 그때까지 잊지못하던 첫미팅 때 만난 년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통쾌하게 복수를 했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지는가? 적어도 연애에 있어서는 아니다.

간절함의 함정은 연애뿐만 아니라 섹스에서도 마찬가지다.

23살, 한창 클럽에 빠졌을 때의 일이다. 강남NB에서 만난 마르고 귀여운 20살짜리와 클럽데이 때 홍대NB 최상판에서 건진 몸매 좋은 22살짜리, DD에서 건진 S여대 다니는 김민정 닮은 예쁜이. 나에겐 3명의 여자가 있었다. 전부 진한 스킨쉽까지만 간 상태였다. 왜 클럽질 당일 모텔에 안 갔냐면 당시 공익근무중이라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과 돈의 압박으로 3명 모두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기에

일단 22살짜리는 포기했다.

그리고 영계가 좋지라는 생각에 20살짜리에게 올인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영계를 향한 간절한 노력은 점점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살짜리와 같이 클럽에 가서 스킨십 허용의 한계치를 높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골짜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런 나의 간절한 바람은 그 날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영계의 빌어먹을 친구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3명은 그 날 찜질방에 갔다. 제기랄..

우울한 기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는 중.. 그간 신경도 안써줬는데 자꾸 귀찮게 하던 S여대 김민정뽕에게 연락이 왔다. 보고 싶으니 오늘 만나자는 것이었다. 몸도 피곤하고 귀찮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도 부탁하기에 집에 들러 대충 준비하고 나와 김민정이와 만났다. 그리고 그날 나는 김민정이를 데리고 역삼동의 L모텔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곧바로 공익근무를 나갔다. 간절하게 노력한 20살짜리는 먹지도 못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고 별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김민정뽕과는 엮였다. 21살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영계라면 영계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후로도 그랬다. 꼭 간절하게 바란 여자들은 내 돈만 몸에 쳐 바르고 사라져갔고 귀찮아했던 여자들은 그 여자들 자취방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그렇다고 귀찮아했던 여자들이 못생겼느냐? 절대 아니다. 자취방 빌려 쓴 여자는 이윤지를 쏙 빼닮았었고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쁜 축에 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내가 먹고싶어서 간절히 바랬던 여자들은 나의 개인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가? 꿈도 꾸지 마라. 절대로 간절히 바라지도 말고 간절히 마음먹지도 말라. 여자들 앞에서 간절한 듯이 행동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마저 간절하게 만들지 말라. 그 간절함은 독이 되어 돌아와 스스로를 썩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간절히 바라지 말라.

쿨가이를 처음 접하고

과거에 나는 연애에 있어서는 다소 평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숙맥인 성향이 있는 남자였다. 밝고 명랑한 성격에 여자들에게서 인기도 있었다. 또 친하고 재미있게 지낸 여자애들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드는 여자 앞에서는 뭔가 뻣뻣하게 행동했었다. 웬지 모를 긴장상태에 말도 제대로 못하곤 했었다. 그렇게 이렇다할 애깃거리도 없이 마음속으로만 품어보곤 하던 가볍고 애달픈 풋사랑의 감정들은 시간의 뒤안길로 흐려져가곤 했다. 게다가 나는 어렸을 땐 사귀기 위해 누군가에게 잘해준다거나 작업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았었다. 나의 관념 속에서는 그냥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면 연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연인이 되더라도 그걸로 끝이었다.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든가 해서 유혹하는 일이나 연인이니까 특별히 잘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애와 따로 만나더라도 작업이라 할 만한 걸 해본 적도 없었다. 그냥 데이트를 신청해놓고 만나서는 옆에서 머쓱하게 껴다 놓은 보리자루마냥 어색하게 서 있곤 했었다. 내가 한 것이라곤 이 애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침묵의 중압감 속에서 도피하려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곤 했다. 그렇게 풋풋하면서 연애라 하기도 뭐한 연애를 몇 번 해봤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우습지만 그런 것들도 다 추억이 되어 나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어설픈 사랑을 겪으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고 나를 아파보기도 했으며 사랑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종래의 어설픈 연애보다 좀 더 제대로 된 연애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심리학 서적도 뒤적이고 탐구도 해보며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내 나

름의 여자를 대하는 법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쿨가이를 접하게 됐다. 웬지 내 눈을 사로잡은 그 단어. 쿨가이…….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쿨가이 비급을 찾아냈다. 그리고 쿨가이의 그 미친 듯한 흡입력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거침없이 쿨가이를 읽어나가며 그 진면목에 감탄하였다. 산중을 헤매다 전설 속의 비급을 손에 넣은 것처럼 그저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 때 나의 상황을 쿨가이 식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쿨가이를 읽어나가는 동안 나는 트랜스 상태였다. 그 쿨가이를 읽어나가는 몰입의 경험 속에서 나는 힘과 능력을 갖춘 자, 바로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를 체험한 것이다.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 여자로 사로잡는 멋진 남성으로서의 삶을 체험하였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모두 성취해내는 능력을 가진 남자로서의 삶을 체험하였다. 쿨가이의 충격폭풍은 나에게 언어의 표현 한계를 멀찌감치 벗어난 수준의 그것으로 강렬하게 내 영혼을 울리며 나의 정신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쿨가이를 통해 환기된 용기와 자신감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그칠 줄 모르고 내 머리를 어지럽히며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긴 용기와 자신감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저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막연할지 모르는 자신감과는 무언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내 것만 같았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이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 정신에 대한 관심에 뜨거운 기름을 부은 듯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보다 넓어졌다.

잠깐 쿨가이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시중에 술하게 남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이나 남녀대화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있다. 그런 책들에서는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한다. 재미있게도 쿨가이 기법 일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종래의 책들이나 대부분의 자기

계발서가 읽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잊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쿨가이는 매우 쉽고도 실천적인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쿨가이 이후 그 아류들이 많이 생겨났다. 대부분 표절이나 각색한 것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mim의 자기복제 충동이라 불리기도 하는 자기 안의 생각을 남한테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mim이 설익은 상태에서는 특히 더 남에게 가르치려 하게 된다. 아마도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와 과시욕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 남에게서 배껴온 내용으로라도 자신이 남들한테 말해서 인정받고 싶고 동조 받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경탄, 칭찬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 자신은 현재의식수준에서 파악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의 깊은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러한 것에 기대지 않고서는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확고히 하기란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그러한 파급을 낳은 쿨가이를 접하고서는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탐구욕에 불타올랐다.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지만 쿨가이를 접한 당시 나는 무작정 학교도 때려치우고 집을 싸들고 집을 나와서 음와심권님 밑에 들어가 알바나 허드렛일이라도 하면서 직접 기예를 배우며 성장해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음와심권님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무턱대고 짐싸들고 찾아간 뒤에 나의 결의를 보여주며 밑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을 간청할 작정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못했거나 배운 기술이라도 없었다거나 다니는 학교가 전망이 없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 중의 한 곳에도 나의 이름을 올렸었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전망 좋은 학과도 가졌었다. 어릴 적에는 각종 규모의 대회를 석권하며 상도 많이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밝고 명량한 아이였다. 그러다 부패한 선생을 만나며 입은 심신의 상처 위로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워갔다. 실체가 없는 대상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증오를 품은 채 나는 걸돌았다. 수직적 억압이 존재하는 제도권 교육에 이유 없는 반항을 더해갔다. 뒤늦게 공부를 해서 진학한 대학의 강의에서도 아무런 흥미를 찾을 수 없었다. 교수가 떠들고 있는 강의실의 칠판 앞과 괴리되어 멍청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지나갔다. 열의도 없었고 그냥 김빠진 출석을 채울 뿐인 상실의 시간들이었다. 수능 이후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없는 듯이 느껴졌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몸을 던질만한 열정을 쿨가이에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쿨가이를 접하고 나서는 내 심장의 두근거림이 온몸을 전율케 했다. 나에게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공부’를 할 주제가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맥 빠지고 건조한 대학과 그 이후의 예상되는 무언가 결여된 생활들과 달리 음와심권님 밑에서 실전기들을 익히며 커나간다는 설정은 진검승부의 장으로 다가왔다. 승부욕이 강하게 불타올랐다. 음와심권님 밑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이 사회라는 실전에서 무수히 부딪히며 기예를 이뤄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이 공상은 그대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땐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었다.

어쨌든 그 뒤 연이 닿는 대로 최면을 배우러 다녔다. 운이 좋게 국내엔 보급되지 않은 미국의 선진최면기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 최면을 배우면서 쿨가이 후반에 언급되는 인간의 금제와 봉인이란 것이 좀 더 선명히 다가왔다.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일들로 인한 상처들은 개인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에 족쇄를 채워 그 사람을 자원이 없는 상태로 끌어내렸다. 그것을 해제하여 긍정적인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익혀나가는 것에 내 열정을 쏟았다. 그것에 관해 음와심권님이 쿨가이에서 말한 대목이 있다.

‘그러한 힘과 지식이 갖는 의미를 모르고 여자 꼬시는 재미에만 빠져 있는 인간들도 많다. 그러니 초행자들은 실력을 길러 그러한 인간들 손에서 착한 여자들을 구원해줘라.’

사람의 마음에 응어리진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능력,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일깨우는 능력 말이다. 안타깝게도 지켜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자 꼬시는 기술에만 관심이 많은 듯하다. 그리고 저런 대목들에서의 음와심권님이 하고자 했던 말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흘려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부연설명을 해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쿨가이는 나에게 금서 판정을 받았다. 이것이 영악한 인간들에 의해 악용될까봐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게다가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상의 윤리 잣대로 사회화된 영역들이 여전히 살아 숨 쉬었다. 모든 남자들이 카사노바가 되서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니 끔찍했다. 또한 쿨가이는 얼마나 독점욕을 일으키는 내용인가? 더군다나 쿨가이를 접한 여자들이 ‘백트래킹 쓰지 마.’라거나 ‘임베드 커맨드 쓰네.’ 따위의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마저 들려왔다. 그리하여 쿨가이의 은폐에 힘쓰기도 했었다. 사실 지금도 전 국민이 카사노바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 때는 센터링을 잡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지금은 쿨가이의 출간에 참여하게 됐다. 게다가 이렇게 새로운 글도 써넣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쿨가이를 처음 접할 때는 내가 음와심권님과 함께 쿨가이 책을 펴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만감이 교차할 따름이다. 지금 그 때를 돌이켜보며 글을 쓰자니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라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앞으로 세상 일이 어찌 돌아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을 손에 넣은 사람이 바르게 선 멋진 사람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만남도 없다.”

지방 어느 도시에 살던 내가 서울로 상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가까운 지인들과 서울의 한 변화가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오랜 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어느덧 시간은 훌쩍 11시를 넘어섰고, 서울생활에도 익숙하지 않고 꽤 먼 거리까지 가야했던 나는 아쉬움을 가슴에 담고 술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을 내려가 몸을 벽에 살짝 기대 채 마지막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뒷모습이 상당히 매력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냥 ‘뒷모습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갈 걱정을 하고 있다가 문득 뒷모습이 매력적인 그 여자의 앞모습이 궁금해졌다. 그러곤 슬며시 그 여자를 지나 앞쪽으로 이동한 뒤 앞모습을 확인해 보니 뒷모습뿐만이 아닌 앞모습까지도 매력이 흘러넘치는 미인이었다. 그러다 지하철이 도착했고, 그 여자와 같은 칸에 타게 됐다.

그 여자는 함께 있던 친구랑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밝게 웃었고, 그 모습은 충분히 내 호기심을 발동시켰으나 사람들이 워낙에 꽉꽉 들어찬 지하철이라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심 속으로 같은 곳에서 내리길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다음 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전동차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막차라 그런지 끝까지 가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집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은 집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은 한참을 밀려난 상태였고 그저 앞에 있는 여자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이윽고 다음 역에 전동차가 멈춰서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내리기 시작했고 그중엔 친구와 이미 헤어져 혼자 남

겨진 그녀도 있었다. 나 역시 그 무리에 합류해 지하철에서 내려 어디론가를 향하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그녀가 한쪽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밖으로 향하는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 버렸다. 재빨리 따라가 성큼성큼 계단을 따라 올라간 내 눈에 택시를 잡으려 애쓰는 여자가 보였다. 머뭇거리다간 택시를 타고 그녀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얼른 다가가 말을 붙였다.

“저기요~~ 잠시 만요. 뭐 좀 물어 볼게요~~”

그녀가 귀에서 이어폰을 빼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늦은 시간에 차도 끊기고 불안해서 표정이 그랬던 거였다.

“네..? 뭐라고요..??”

“H 동 가려면 택시를 어디서 타야 되나요?”

“아~ 네 저도 H 동 가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같이 타고 가시죠.”

“음~ 그렇게 하죠. 차비도 아낄 겐...”

“네~ 대신 택시비는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택시를 잡기 시작했다. 뭐 나온 출구방향이 잘못되어 역으로 3번을 더 다시 들어갔다 나오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같이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조금 편하게 말을 건넌 수 있었다. 나는 명함을 건네며 간단하게 내 소개를 했고, 덕분에 차비도 아끼고 심심치 않게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말문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날도 춥고 참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네...”

“사는 곳도 비슷한데 언제 식사 같이 하시죠. 아니면 술을 한잔해도 좋고요.”

“네. 그래요 그럼...”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슬쩍 내밀며 한마디 했다.

“그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연락처요?”

표정을 읽어보니 살짝 고민하는 눈치가 보였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곤란하시면 관두시구요.”

“.....”

그리곤 잠시 창밖을 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뜸을 들였다. 그대로 야경을 감상하며 2~3분 정도를 흘려보낸 뒤 다시 말했다.

“곧 H동에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뭘요?”

“연락처 가르쳐 주는 거요.”

“아~ 그거요? 그건...”

중간에 말을 끊고 피식 웃으며 다시 내 말을 이었다.

“뭐 그냥 고맙기도 하고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서 말 상대할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일 때문이라도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서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생각보다 서울생활 심심한데요.”

“아~ 네. 뭐 그럼 제가 연락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핸드폰에 내 명함을 보고 번호를 입력했고, 나에겐 자기 개인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주며 친구를 하자고 했다. 그러는 동안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먼저 그녀를 내려 준 뒤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 6개월 전 쿨가이를 알기전의 나라면 무턱대고 연락처만 물어보고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거나, 아예 지하철역에서부터 그녀와는 다른 루트로 혼자 집으로 돌아 왔을 것이다. 평상심을 유지하며 초면인 여자에게 내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법.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우연한 사건을 만들어 내는 방법. 사람들이 나와의 대화를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등은 그렇게 먼 곳에 해답이 있지 않았다. 해답은 나 자신에게 있었고 그 해답을 쿨가이가 찾게 해 주었다. 세상 남자들... 그 중에서도 본인이 연애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어디 괜찮은 여자 없냐?”

우습지 않은가? 당장 밖에 나가 10분만 걸어보면 수십 명의 괜찮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늘 주변 사람들에게 쓸만한 여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다니. 그러다 막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아보면 내 스타일은 아니기 일쑤고, 내가 선호하는 타입의 여자들은 이미 다른 남자의 연인이거나 티비속 드라마 여주인공들뿐이니.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고 답답한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초등학교를 졸업 한 뒤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우울하게 마치고, 드디어 ‘나도 여자와 함께 생활해 볼 수 있구나!’ 라는 보랏빛 희망을 안고 입학한 대학교마저 같은 학번 같은 과 여학생 숫자가 한명이라는 어이없는 성비였으니. 그 뒤 단 하나의 희망을 걸고 가입한 대학 동아리마저 대부분이 남자였으니 나도 학창 시절 내내 “어디 괜찮은 여자 없냐?” 를 입에 달고 살았다. 뭐 우연찮은 기회에 그러저럭 괜찮은 여자를 만나 연애도 해보았고, 합동강의 시간에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자기과 남학생과 cc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을 쥐어뜯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다. 그러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남은 대학생활을 지루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는 확연히 다른 여자와 우연히 연인이 되어 하나도 즐겁지 않은 연애를 하게 되고, 그런 소모적인 연애가 싫어 만나는 족족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들은 여자가 많다고도 하고 바람둥이라고 표현하며 속 모르는 소리를 해댔다.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쿨가이”라는 글이 내 인생으로 사뭇히 날아들어 왔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 오는 것도 모르고 심취해 읽어 내려가던 나에게 그 글은 연애기술에 관한 글들이 아니었다. 나에겐 그저 과거를 되비춰보는 거울이었고, 과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치료를 한 백신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나 스스로를 분석해나가면서 찾아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었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다.

“어디에 괜찮은 여자가 있을까?”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타입의 여자를 가장 잘 아는 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지금 나

자신이라는 것. 그냥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 시켜줘.”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진정한 내 반쪽을 어렵게 찾고 있었다는 것을.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고 산삼을 캐러거든 산으로 가야한다. 여자가 있는 곳을 가야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을 수 있고 용기를 내야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 괜찮은 여자가 있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는가. 내가 굳이 강남역 6번 출구 앞에 가면 있다던가. 인터넷 영화동호회 “밤새보자”에 가입하게 되면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 그런 노력조차 귀찮다면 늘 입에 달고 사는 “어디 괜찮은 여자 없냐?” 라는 말이라도 “어디 8등신에 하얀 피부를 가졌고 길게 웨이브진 검은머리에 눈 크고 항상 웃고 다니며 벤츠를 타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재벌가의 무남독녀 외동딸에 나만 최고로 생각해 주는 여자 좀 소개시켜줘.” 라고 당신의 이상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혹시 모를 소개팅견수를 노려보던가. 당신에게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 사람이 적어도 당신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야 소개를 해줘도 해줄게 아닌가?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 스스로 당신의 이상형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다.

아~ 그 택시안의 그녀와는 어떻게 됐냐고? 우린 OO월드 미니홈피 일촌이다. 가끔 안부 인사를 전하곤 하는 그냥 일촌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뭐? 난 지금 쿨가이를 내 직업의 특성과 연관시켜 사용하면서 여자와 연애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일이 바쁘고 제일 즐거울 뿐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만남도 없다.”

헌팅 할 때 Tip

헌팅에서 젤 중요한 것은 하면 아마 열이면 아홉이 흔히 “용기요~!!”라고 답하실 겁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용기만 가지고 일을 저지르신다면 외공이 내조해 준다고 해도 꽤나 어려운 싸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헌팅에서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시켜면 놈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핸드폰을 내밀면서 “야!! 너 맘에 든다~~ 번호 찍어~!!!”라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평범한 여자라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용할 겁니다. ‘번호 찍어주고 만나자 해서 차에 태워서 인신매매라도 하면 어찌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번호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헌팅에서 가장 큰 걸림돌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번호를 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인간인지 밝히지요. (보통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서울역 영등포 용산 역등 각종 Station 혹은 만남의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애들을 주로 대상으로 잡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번화가나 쇼핑몰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상대로 헌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추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같이 뛰어와서 헛소리하는 남자한테 번호를 줄 여자는 없겠지요. 보통 이렇게 주로 저희도 시간을 죽이는 장소, 심심하다하는 장소에서 말을 건다면 여자들이 쉽게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보통 할 일 없이 심심하면 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두리번거리며 여기 저기 둘러 보기도하고, 핸드폰 게임하거나, 혹은 책을 보기도 하죠.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 주위로 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기 전에는 눈을 마주치고 어색한 웃음을 보여주세요. 너무 당당하면 선수처럼 보입니다.

“엇~!! 그 핸드폰 언제 샀어요? 얼마해요? 제 것 낡아서 하나 살까 하는데 그 폰 되게 예쁘네요. 와~ 이런 저런 것도 되여? 대단하다~!!!”

“아~ 그 만화 재밌죠? 저도 궁 재밌게 봤어요...요즘 TV에서도 하던데 TV에선 공내관 좀 깨지 않나요? 만화책이 훨씬 재밌는데..”

“친구 기다리세요? 아~저도 친구 기다리는데... 진짜 안 온다...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

뭐 기타 등등 레퍼토리는 알아서 재밌는 것을 상황 상황에 따라 만들어 쓰시길...

여기서 중요한건 AT필드 없애기와 래포 쌓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안한 이야기가 최고죠. 대신 친구 기다린다고 너무 심심해서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다. 혹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궁금해서 접근한 것처럼 보여서 접근 의도를 속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안 사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하고 맘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식의 도그플레이로 번호를 받아내든지 왠지 전화번호를 안줄 것 같은 포스를 풍긴다. 그럼 “배터리가 다 되어서” 필살기를 씁니다.

그 전에 폰을 꺼두는 센스가 필요하죠.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을 확인하는 듯 핸드폰을 확인하고 배터리가 꺼진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 미치겠네. 결국 꺼졌구나. 충전 하는 걸 매번 깜박해. 저 미안한데 친구한테 한통화만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수작도 전에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래포가 쌓였다면.. 별 거부감 없이 빌려 줄 겁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없는 사람 있나? ㅋㅋ 친

구한테 전화해서 “야..왜 이렇게 안와? 나 배터리 다 됐다... 응 그래? 지금 어디라고? 그럼 OO앞에 몇 시까지 있을게... 10분 안에 안 오면 간다?” 식으로 말합니다. 친구한테 이런 경우에 대해 귀뜸 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 헤어지구 그날 저녁 8시쯤에 문자로 ‘아까 고맙다고..친구 기다리는 거...님이 있어 하나도 안 지루했다고.“ 보내는 겁니다. 답장이 오면 몇 번 더 주구 받다가 또 답에 또 한 번씩 문자하다 전화하다 이름 알아내고 데이트 약속 받아내시면 됩니다.

뭐 외모에 자신이 있다면 ‘사실 그 쪽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괜히 말 걸어본 거다. 그냥 이야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대로 말 못하고 놓치면 후회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본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해 보십시오. 다짜고짜 이 말하는 것보다 약..87.3% 정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리얼 헌터다 뭐다 해서 헌팅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헌팅은 여자들에게 여전히 자랑거리가 되는 편입니다. 자신이 예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리가 없죠. 칭찬은 필수..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헌팅 같은 것 안하는 평범한 사람이다’는 인상만 줄 수 있다면, 연락하는 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친해지는 것은 쿨가이의 몫이고요. 참! 언제나 맘에 드는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슈퍼마켓에 갈 때도 머리를 만져 주시고 옷을 잘 챙겨 입으세요. 언제나 준비된 자세를 가진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 잡을 때 Tip

약속 잡을 때 Tip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한번 씩 꼭 중요한 약속이라 싶을 때, 상대방에게 약속에 대한 impact를 좀 더 주고 싶을 때 특별하게 상황과 시간을 한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약속을 정할 때는 “너 언제 시간 되는데? 시간될 때 함 보자..”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야 지금 뭐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하루 날 잡아서 OO에서 한번 보자. 이번 주는 OOO자나”라고 합니다.(더블 바인딩) 뭐 특별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좋지만 이유는 꼭 붙여 주십시오.

여기 질문에서 상대방에게 “지금 뭐 해?” 하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지금 뭐하고 있나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 만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질문을 함으로써 의향을 물어본 효과를 지닙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그리고 약속 전날쯤 되면 여자 분이 입고 오는 옷이나 들고 올 것을 주지시켜 다시 한 번 상황을 한정합니다. “OO야~전에 입었던 그 녹색 원피스 예쁘더라. 그거 입구 와.” 혹은 “오늘은 바지/치마 입은 거 함보고 싶다야~ 넌 맨날 치마/바지만 입자나.” 뭐 이런 식입니다.

혹은 지갑이나 가방 책등 둘 사이에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응용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센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시간을 정할 때는 “4시쯤 보자~” 이런 식 보다는...“3시 53분에 OO문고 정문 앞에서 보자. 아마 책 보고 있을 거야. 7분 안에 오지 않으면 안에서 책 읽고 있을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구 천천히 와” 라고 합니다. 늦는 것을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진짜 늦는다 하더라도 책 보며 기다릴 수 있으므로 저는 주로 약속장소로

서점을 애용합니다.

다른 연애서 같은 것을 보면 약속 시간에 일부러 늦으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일부러 빨리 도착해서 1분의 오차이내로 장소에 도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늦은 경우에는 “늦었으니 한턱 쏘~” 해놓고서 진짜 계산할 땐 대신 내주면 두 배로 고마워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특별한 숫자를 써서 상황을 구체화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 어기거나 까먹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적이 없습니다. 보통 잘 늦지도 않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시간 맞춰 오게 나와의 약속을 안 잊게 만드는 효과는 보장합니다. ^^

디오니소스의 축복

디오니소스... 그는 술의 신이며 술이 주는 엑스터시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 신이기도 하다. 술자리에서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술자리의 즐거움이 판가름 난다. 술자리의 핵심은 게임이다. 다수 대 다수일 때도, 일대일 일 때도 핵심은 게임이다. 다대다와 일대일에서 게임의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술자리와 게임은 절대로 뗄 수 없다. 무엇보다 말수가 적은 나에게 있어 게임은 탈출구이자 천국으로 향하는 입구이며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기위한 성스러운 예식이었다.

1. 3:3, 4:4 집단전

아주 즐거운 멤버구성이다. 참여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재미’라는 면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술자리 게임들이 가능하다. 베스킨라빈스31, 더게임오브테스, 전기쇼크, 병뚜껑 날리기, 007뽕 등등 일단 만나면 간단히 서로를 소개하고 이름외우기 게임을 잠깐 동안 해도 좋다. 그리고 게임을 즐겨라. 게임에서도 피드백은 중요하다. 걸린 사람은 마시도록 격려하고 마신 사람은 잘 마셨다고 격려하라. 격려가 없으면 술 못 먹는다면서 빼는 인간들이 반드시 나온다. 박수치고 호흥하면 술자리는 자동적으로 즐겁게 무르익는다. 게임 중간 중간 ‘술가락 테이블에 놓지 말기’ 등의 옵션을 걸어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적당히 무르익은 분위기에 남녀가 섞여 앉은 것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한다. 참고삼아 베스킨라빈스31의 비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남녀가 섞여 앉은 상태에서 남자 쪽의 마지막 숫자가 $2+4n$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6,10.....26,30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럼 여자 쪽에서 반드시 걸리게 된다. 단 모든 비

기는 눈치 빠른 사람의 경우 알아챌 수도 있으니 적당히 남자 쪽에서 걸려주는 센스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게임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바로 왕게임이다. 술기운과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의 왕게임에선 과감한 스킨쉽이 가능하다. 왕게임이야 말로 술자리의 꽃이며 피니쉬 펀치인 것이다. 초반에는 가벼운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한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앞서서의 게임에서 충분히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냈다면 여자 쪽에서도 절대로 빠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것이다. 이성끼리 걸리면 어떡하느냐? ‘이성끼리는 무효’라는 옵션을 넣어도 좋지만 무엇보다 남자 쪽에서 사전에 번호를 일정한 행동으로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번은 물 마시기, 2번은 머리만지기, 3번은 코긋기 등등으로 사전에 맞추면 남자 쪽에서 왕이 걸렸을 때는 반드시 남, 여 짝이 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왕게임이 지켜워지면 진실게임을 통해 여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게임을 할 때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피드백이다. 맘에 드는 타겟을 하나 고르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되 그것을 탄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걱정수준의 탄지로 괴롭히다 ‘많이 마신 거 아니냐?’며 챙겨주고 또다시 탄지를 걸다가 챙겨주는 식으로 게임의 물결 속에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보인다면 올 길을 하는 것도 꿈이 아니다.

2. 2:2 신이 내린 조합

2:2에서도 다수대다수 와 마찬가지로 게임이 중심이 된다. 단 게임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베스킨라빈스31, 손가락 뒤집기, 병뚜껑 튕기기 콤보 등이 좋다. 위의 게임을 통해 남녀가 섞어 앉기만 하면 축복의 예식 준비는 끝난 것이다.

2:2 술자리는 신이 내린 조합이다. 어찌되는 간에 남녀로 커플이 탄생하게 된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남녀가 짝을 이뤄 앉았으면 이제 필요한 조건이 바로 파트너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성끼리의 파트너쉽이 아닌 이성끼리의 파트너쉽이란 점이다. 이 상황에선 친구로 더 이상 동료가 아니다. 나의 파트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이고 마주앉은 두 사람은 우리의 라이벌인 것이다. 그리고 팀플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하라. 게임에서 걸리면 걸린 사람의 파트너도 함께 마신다던지 ‘당연하지~’ 게임을 팀플로 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팀플을 통한 자신의 파트너와의 깊은 레포형성과 스킨쉽인 것이다. 게다가 양 팀의 경쟁심이 높아졌을 때 벌칙으로 상대편 팀에게 스킨쉽을 시키면 도량치고 가재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로 더 심한 스킨쉽을 벌칙으로 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1:1 쿨가이가 되자!

1:1 에션 위와 같은 게임이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게임을 할 구성 자체가 안 된다. 이 때야말로 갈고닦은 쿨가이 스킬이 꽃을 피우는 시간인 것이다. 위에선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1:1 술자리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닌 우울함이다. 쿨가이를 이용하여 우울함을 최대로 이끌어내며 격려하라. 그리고 당연히 격려에서 술이 빠지면 안 된다. 술 한 잔과 더불어 격려를 해야 한다.

술기운이 오르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데 지금 이 순간 여자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다.

분위기를 봐서 옆에 나란히 앉는 것도 잊지 말자. 마찬가지로 1:1에서도 필수적인 것이 스킨쉽이다. 1:1 에서 스킨쉽이 빠진다면 줘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 외로울 때 힘이 되어주는 빌어먹을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가? 1:1 에서 우울함과 스킨쉽은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제물인 셈이다.

4. 저주받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남녀 균형이 안 맞는 술자리나 스킨쉽이 불가능한 친목도모 술자리 같은 저주받은 상황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남자 4에 여자 2 같은 1:2 이상의 경쟁률에서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엔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타겟을 선정하고, 약간의 래포를 얻은 뒤에 서로 1:1 의 경쟁을 유도하라. 병뚜껑 텅기거나 가위바위보등을 해서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식으로 타겟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한다. 물론 중간 중간 ‘너 게임 되게 못하는구나?’ 라는 경쟁심을 자극하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신다면 물이나 다른 먹기 힘든 고추장, 간장먹기 같은 것도 무방하다. 요는 ‘경쟁심’을 얼마나 자극할 수 있느냐 이다. 단 여자의 성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심 유발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땐 그냥 재주껏 쿨가이 스킨쉽을 사용해라. 염두에 두어 둘 것은 ‘이 자리는 다음 만남을 위한 래포다지기’ 일 뿐이란 점이다. 이러한 1:1 경쟁 속에서 래포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생성된 둘만의 공간은 제3자가 끼어들 여지조차 배제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방어시설도 갖추고 있다.

글에서 소개된 것 외에도 많은 좋은 스킨쉽들이 있을 것이다. 글을 참고 삼아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킨쉽을 개발해서 그 스킨쉽을 통해 디오니소스의 축복을 받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와의 대화를 재미없어 한다고?

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중 하나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내가 유혹하려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미 있다거나 아니면 아래 누가 쓴 글처럼 그 남자를 못 잊고 있다거나 또는 여자가 본인과의 대화를 재미없어한다면 참고해볼만하다.

많은 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내 생각엔.. 그런 녀은 잊는 게 좋을 것 같아..”이다..

여자가 무슨 바본 줄 아는가?? 여자는 뭐 잊어야한다는 걸 몰라서 그 녀 얘기를 하는 줄 아나? 여자도 안다. 그리고 그녀이 자기한테 못해준다는 것도 알고 못됐게 했다는 것도 알고 그러므로 그런 녀은 잊고 새로운 녀을 만나서(당신이면 좋겠지만..)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새 출발하고 싶어 한다. 당신이 “내 생각엔..”으로 하는 말은 그녀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여기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녀은 잊고 내게로 오라고 해야 할까?

그럼 무슨 소릴 듣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도 이런 건 아닐까?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신뢰감이 가며 존경스러우나 저를 두근거리게 하지는 못해서 싫어요! 등의 핑계 말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고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서 말한다. “xx야 넌 정말 좋은 남자야.. 하지만 애인사이는 결국 헤어져야 하잖아.. 그런데 난 너랑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어.. 그러니 우리 좋은 친구사이로 남으면 안 될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간단하게 말하겠다. 그녀이 당신과 있을 때 이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녀은 잊으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말하는걸 보니 정말 사랑했었나보구나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니?? 등으로 시작해서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니?? 또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등의 질문으로 그녀가 스스로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의 감정을 불러내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한다.

물론 좋아하는 여자가 온갖 행복한 표정을 지어대며 그님과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등의 얘기를 하면 잠시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어도 좋다.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분명히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괜히 그님 생각을 하게 만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질문이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그런 사랑에 빠질 때의 감정을 몇 번 불러내는 도중에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어? 왜 전혀 관심도 이념이랑 얘기하는데 두근거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당신과 그 감정이 링크 되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멀리서 당신을 봐도 두근거리게 된다. 초반에는 그녀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밀고 나가라.

자꾸 반복될수록 입으로는 누구얘기를 하든 결국 당신이랑 같이 있을 때 두근거리고 사랑에 빠질 때의 감정이 든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될 뿐이다. 그럼 그담부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그럼 이담부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완전 차려진 밥상임을 잊지 말고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깨우쳐라.

그리고 여자가 본인과 대화 재미없다고 여긴다는 사람들은 기억하라. 보통 이런 사람은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지 얘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마르는 타입이랄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본다. 여자랑 얘기하면 제발 여자가 관심있어 하는 얘기를 하라. 여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즐거워하는 얘기를 하란 말이다.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모른다고? 그럼 뭘 어찌자고? 입장 바꿔놓고 어떤 년이 당신에게 작업 들어오는데 기껏

시간 내서 대화를 나눴더니 그녀가 수학에 빠진 여자였다고 치자. 그래서 당신과의 대화 중 90% 이상을 온갖 수학공식들과 현상금이 걸려있는 수학문제 등(수학에 미치면 이런 얘기들이 자신한테는 너무 즐겁다. 당신한테는 지옥이겠지)의 얘기를 하며 혼자 신나서 떠든다고 치자. 당신은 그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녀와의 대화를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녀를 꼬셔보고 싶다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며 숨 참기 내공법과 백트레킹만 해대라 그러면 최소한 당신과의 대화가 재미없다는 소리는 안할 것이다. 이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적어도 당신과의 대화를 그녀가 재밌다고 생각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거다. 그러니 그때부터 몸으로 부딪혀라.

마지막으로 위 내용들은 모두 쿨가이에 그~대~로 있는 내용임을 기억하라...

제대로 읽자...ㅠ.ㅠ

센터링에 대한 단상

쿨가이를 알게 된 후 언급되는 개념 중 쉽사리 깨우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링인 듯합니다. 물론 저 역시 아직까지 센터링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있지 못한 상태고, 또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함부로 센터링이 이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여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센터링에 대한 개념을 살짝 언급해 보려 합니다.

센터링……. 중요합니다. 센터링이 좋아야 좋은 숏이 나오죠. 쿨릭~ 농담이구요, 쿨가이를 보셨던 많은 분들께서 센터링에 대한 개념을 ‘관뒀라 관뒀’로 알고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뒀라 관뒀**’는 틀림없이 센터링이 맞습니다. 하지만 센터링이 ‘**관뒀라 관뒀**’는 아니겠죠.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을 상대할 때, 이성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 들이대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관뒀라 관뒀’을 외치며 외면하는 것이 센터링이라 생각한다는…….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이 원하는, 아니 나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뿌리 쳐가며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센터링인지 아니면 자기 학대인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성에게 정말 대쉬하고 싶는데, 그 마음을 거스르고 내 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현재 상황을 나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센터링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기 시작했을 때 항상 머릿속을 되뇌었던 말 중 하나가 ‘**일방의 센터링에 중독되면 안 된다**’ 이었습니다. 일방의 센터링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무조건 ‘관뒀라 관뒀’가 무조건 센터링은 아니라는 소리지요. 연애를 하다보면 이성에게 들이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성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물불 안 가리고 상대방에게 뛰어들고 들이대야 할 때는 분명 존재합니다. 소위 밀고 당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길 때는 확실히 당겨줘야 한다는 거죠.

음와심권님께서는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음와심권님께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로써 아직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이성을 나에게 당겨야 할 때.. 다시 말해 이성에게 열라 들이대야 할 때는 반드시 들이대야 합니다. 관둬라 관둬…….필요 없습니다. 열라 들이댁니다. 그게 센터링입니다. 단 밀고 당기기라 표현한 위에 언급한 두가지의 센터링을 이성에게 보여주는 텀은 상당히 짧아야 할 겁니다. 일년여를 이성에게 들이대고 싶다고 해서 죽어라 들이대다가, ‘아, 이렇게 들이대는 센터링을 지켰는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맘을 안준다는 건 이젠 돌아서는 센터링을 지켜야 하나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성에게 작업 걸던 것을 딱 중지한다면 그 상대방은 좋아하겠죠. 혹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말이죠. 어찌면 1년이 되기 전에 스토커로 찍히게 될지도. ^^

그리고 정말 이성에게 들이대고 싶어서, 들이대야 할 상황에서 진심으로 들이대고 열라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런 때가 왔다면 깨끗이 물러서야지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들이댔냐는 식으로 매몰차게 돌아서야 하겠죠. 역시 서로간의 텀은 짧아야 할 겁니다. 타이밍도 중요할 것이고요. 이전에 들이대던 나 자신……. 센터링을 너무나 잘 지켰던 나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도 센터링 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깨끗이 잊어버리고 쉽게 발을 뺄 수 있는…….어떻게 보면 ‘관둬라 관둬’라는 일방의 센터링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센터링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닌, 내가 여성이 필요하면 여자에게 잘 해주고 여자와 관계없는 나의 일

을 할 때는 여자뿐만 아니라 일에 관계되지 않은 다른 것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그런 나의 모습이 싫다는 여자는 가차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음와심권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지배하는 쿨가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從心所欲不踰矩(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남이 없다-’ 개념은 다를지 몰라도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이치에 거스르는 것이 없을 때……. 진정한 센터링이 완성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나 저의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올린 내용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_ _)

사랑에 빠지는 과정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다.

먼저 그대는 상대방과 함께 있는 동안에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대는 상대와 헤어져서 혼자 있으며 상대를 생각할 때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최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대는 항상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최면자이기에 그렇다.

여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나온다. 그대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누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리고는 상대의 이미지를 의식에 그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대는 상대방에게 하나씩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정말로…….”

“그녀는 진짜로…….”

“그녀는 정말 정말로…….”

그리고 나서 아마도 여러 상황에서 그대가 그녀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 깊은 곳 어디에서 핑크빛 하트가 생겨나게 되고 황홀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녀의 이름을 162회 정도 되뇌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멍청이라면 그 이름을 노래하며 집안을 돌아다닐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 그녀의 이름을 매번 언급할 것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으로 그대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내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하는 프로세스 일뿐이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구덩이가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그대에게 가지도 않고 단지 이 글을 쓴 것만으

로 그대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고 그대는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

만일 내가 그대에게 문장으로 그것을 해내었고 그대가 그 노하우를 알게 되고 능숙하게 이를 표현할 수 있다면 여자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 가고 거기에 그대를 링크 시키면 그녀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위에 언급한 그대가 줄 곳 해온 명칭한 프로세스를 그녀가 하도록 만들어 가면 그녀는 그대에게 빠지게 될 것이다.

여성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1]

나는 항상 여성의 선택을 기다렸다. 헌팅에 미쳐있던 당시 많은 여성을 만났지만, 내가 여성을 대하는 매너는 항상 동일했다. 상대가 나의 개그나, 착하게 포장한 성격, 멋있어 보이는 연기에 매력을 느끼고 나에게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어주고 손을 잡을 때까지 나는 항상 기다렸다. 마음속에서는 번득이는 고양이 눈처럼 호시탐탐 사고를 위장한 스킨십을 바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기다릴 줄 아는 남자며, 여자경험 없는 남자며, 묵석이며, 숙맥이었다. ‘쿨가이가 되자’ 중에서 한 문장 빌자면 ‘선택의 주체는 여성’ 이었다.

5개월 전쯤에 만난 쌍둥이 자매여성중 한명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문이다. 훗날 키에 비록 짝퉁티가 나지만, 그럭저럭 고급스러워 보이는 비통 가방을 왼편 어깨에 둘러매고 열은 눈썹에 텔레토비를 연상케 하는 눈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런 만화적인 눈과 비통 가방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옆으로 길게 내린 생머리를 감안하면 내 마음에 많이 드는 편이었다. 1차로 ‘팔쥐부대찌개’를 가고 본격적인 대화 작업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로마의설날’로 데리고 갔다. 나는 쉽게 가까워지고 싶은 여성과는 그녀의 최근 즐거웠던 기억으로 시작하여 7세 정도의 어린시절까지 하양유목화로 대화를 진행한다. 역시 그날도 그러했다. 7세 때 그녀가 겪었던 흥미로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처음으로 시계를 봤는데 이미 두 시간이 훌쩍 지나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트랜스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텔레토비눈과 중앙집중형 입술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문득,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가 넘쳐흐르는 것을 느끼며, 처음 만난 날의 신속한 스킨십을 위해 잠시 적절한 패턴의 검색을 위해 대뇌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적거렸다.

‘EJ 씨는 평범한 듯하지만, 꽤 개성 있는 어린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문득 제 어린시절도 자꾸 생각나고요.’

‘갑자기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가락 두개를 잡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생각이 나요, 한없이 부드럽지만, 손이 작아서 손가락 두개에 만족해야 했던 그 시절이요’

‘저는 그렇게 어린시절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꼭 안기던 기억이 살아나요’

‘EJ 씨는 언제 꼭 안기고 싶어지나요?’

‘네 문득 외롭다고 느끼거나, 어두운 방안에 혼자 있거나 한때, 누군가의 숨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향기를 맡으면서 안기고 싶죠!’

‘제 오랜 친구는, 눈이 올 때 혼자 길거리를 걸을 때면 누군가와 살을 맞대고 따듯하고 포근하게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EJ씨도 그렇지 않나요?’

‘언제 그렇게 포근하게 안겨 봤나요?’

‘아 정말 다정하신 분이셨네요, 두 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한다는 감정에 빠진다는 것을 경험한 것도 참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상대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 정겹게 팔짱을 끼고 걷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시절 이야기부터 현재까지의 좋았던 추억이나 연애편지를 솔직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여자가 나와 많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로마의설날’에서 나와서 30미터 즈부터 그녀는 나의 자연스런 팔짱을 끼라는 제스처에 순순히 응했다.

[2]

나에게는 저 멀리 지방에 10년 넘게 친구로만 지내온 연예인 김희선 씨를 닮은 여성이 있다.

그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서 그녀의 방안에는 김희선과 자신이 똑같은 각도로 찍은 사진이 붙은 커다란 패넬이 있다. 실제로 그녀가 김희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결론은 예쁘다는 거다. 10년 전 심하게 노는 녀석이 데리고 나온 여러 여자들중 한명이었고,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이유는, 군대도 마쳤고, 지역이 멀어서 좀처럼 가까워지기 힘든 점도 벽이었지만,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에 모든 것을 걸던 나 자신이 가장 문제였다.

최근에 이 여성이 인천 부근에 취직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쿨가이를 사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너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알고 보니 정말 통하는 게 많네?’ 그녀의 전세방에서 제대로 찢하게 뒹굴다가 정신 차렸을 때 들은 말이다. 섹스는 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더 달구어 놓기 위해서였다. 통하는 게 많다고 그녀는 말했지만 솔직히 별로 한거 없었다. 단지, 그녀의 말을 좀더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많이 웃어주었다. 거기다가 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혼합했다.

‘난 어릴 때 항상 뭔가를 안고 잤어……. 다리 사이에 끼고 있거나 두 팔로 터질듯이 껴안거나 하다가 잠들었어.’

‘그런데 지금도 그래,

‘너도 뭔가를 안고 자니?’

‘응 가끔 그렇게 으스스리게 껴안고 상대방의 힘겨운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이나……. 봄날의 포근하고 달콤한 낮

잠을 즐기고 싶을 때!’

‘응 그래 특히 목욕하고 나서 살짝 젖은 몸일 때 더욱 그렇지 살짝 한기가 돌때 누군가를 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거야’

‘막 피어오르는 비누의 상큼함도 느껴지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머릿결을 느끼면서’

‘아 그래서 내가 비누 향처럼 상쾌한 향수를 좋아하나봐 자 맡아봐’
(목을 그녀의 코 가까이 갖다대며)

이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여성의 왼쪽 가슴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엔 고수들이 워낙 많으므로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만 몇 마디 더 써보자면. 누군가가 ‘쿨가이가 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센터링을 꼽을 것이다. 수많은 쿨가이의 언어패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센터링이 확립 되어 있어야 한다. 이유는 이렇다. 여성들이 당신의 느끼한 눈빛이나 어색한 표정을 모를 것 같은가? 단언하건데, 그렇게 어눌한 여자는 없다. 심지어는 완벽한 연기에 완벽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확신되는 때에도 나의 흑심을 눈치 채던 여자도 있었다. 여성들끼리도 항상 떠들지만, 여성의 육감은 예리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쿨가이다. 훗~ 쿨가이를 접하고 나서 여성에게 선택되어지기보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여자 친구분이 다른 남자분과 계속 연락을 해서 너무 불안하고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그 여자 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자친구분이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남자분이 여자 친구 분에게 연애로써의 만족감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이 당사자인 여자는 정말로 그게 나쁜 건지 모르는 경우로 입니다. 글을 읽어본 느낌으로는 후자 쪽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당신은 제가 불에 손을 대도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미친 소리라 하겠지요? 그럼 불이 뭔지 모르는 갓난아기한테 저걸 손에 대면 빛나는 불꽃이 손으로 옮겨와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될 수 있다 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 호기심에 손을 대 볼 가능성은 크겠지요. 그러므로 백날 네가 그넘한테 연락해서 내가 가슴이 아픈데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봤자 그녀는 또 그녀 나름대로 너의 그런 행동을 피곤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괜한 반발심리로 연락안 할 것도 한번 더 하게 되고 그러면 너의 속은 또 타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양쪽 다 힘든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그녀가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일수도 있으니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1. 먼저 그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남과 그녀가 그런 일로 계속 싸우게 되면서 그녀가 그 자체를 피곤하게 여겨 ‘모르게’ 연락하기 시작하는 경우인데 일단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녀가 그넌한테 연락을 하든 문자질을 하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참으세요. 곰아가씨가 쑥과 마늘로 버티며 어여쁜 인간이 된 것을 떠올리며 참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널 이해하기 때문에 기분이 더럽지만 참아준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전적으로 그녀 말처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처럼 행동해야 하며 최소한 그녀는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녀의 신경을 건드려라.

이렇게 참는 과정이 익숙해지면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온 겁니다. ‘사소한 비밀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야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역시 핸드폰입니다. 평소에 그녀와 만날 때 핸드폰을 꺼둔 적이 없다면 슬쩍 꺼봅니다. 말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레 그녀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고 나는 핸드폰을 끈다는 식으로 끄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울 때 과장되게 핸드폰을 챙깁니다. 즉 즐겁게 밥을 먹고 있다가 잠시만 화장실 갔다 올게 라며 일어서서 가다가 10초쯤 뒤에 돌아와서 아참~ 이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챙겨서 갑니다. 이게 늘 몸에 베어야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게 왜 오바하냐?’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걸 일부러 한다는 걸 들키면 여자는 귀엽다며 그냥 무시하고 지켜보기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봅니다.

3. 여자에게 전화가 오도록 하라.

설마……. 이성 친구 하나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간단합니다. 그녀와 함께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다 돌아와서 핸드폰을 챙기기를 몇 번쯤 하면 그녀는 짝끔 손톱만큼 신경이 쓰이면서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여튼 그래도 좋습니다. 이유는 내가 화장실 갈 때 폰을 챙겨가도 되기 때문인데 화장실가서 볼일을 보고 친구한테 문자한통 날립니다. ‘야 잘 지내?? 내가 있지’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걸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또는 전화를 건 다음에 ‘오우 오랜만이지?? 뭐해?? 밥은 먹..’까지 말하고 전화를 끊는 스킬을 사용하든지 어쨌든 상대방한테 전화가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쟁쟁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화를 받으면 되는데 이때 그녀 앞에서 100년 만에 전화가 온 듯 반가워서 밥이 다 안 넘어갈 정도라는 듯 연기를 해줍니다. 전화를 끊고나 서애인이 ‘누구야?’ 등의 질문을 하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SK고객센터 직원이야~’라고 웃으며 얘기해줍니다. 당연히 빵인 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인은 ‘에이 장난치지말구 누구냐니까?’ 등의 질문을 계속하는데 “SK직원이라니까. 한 열 달쯤 폰값을 안냈더니 자기가 내주겠다네. ^^”등으로 몇 번 더 튕겨줍니다. 그러다가 “그래 됐어..” 등의 빠진척하기 스킬을 사용하면 그때서야 말합니다.

“빠진 거야?? 바보.. 그냥 예전에 사졌던 아가씨네 얼마 전에 내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됐다네.. 진짜 오랜만이다……. 용케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네..” 등으로 둘러댁니다. 절!대!로! “너 저번에 봤던 누구 있지? 갸야~” 등으로 상세설명하기 스킬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수를 범할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마늘과 쪽을 먹으며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동굴이 무너져서 죽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렇게 전화하는 친구는 만들도록 하세요. 이모저모

슬모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렇게 머리 쓰지 않아도 연락이 오고 님의 행동은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4. 그대로 돌려줘라.

자~ 이제 통과한 복수의 차례입니다. 이제 님은 오바를 해도 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그간 참았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기회를 노리세요. 이것은 님이 그녀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날려줍니다. 갑자기 난감하게 폰을 낚아챘다고 합시다. 그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못 믿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매!너!없!게!”

그녀가 SK직원이라는데도 자꾸 캐묻습니다.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정말 갑갑하게 왜 이러니??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때 표정은 ‘아 진짜 정떨어지네. 무슨 조선시대 여자냐.’ 입니다. ^^ 그러다 한바탕 했다고 침시다. 그 문제로요. 다 들어줍니다. 군소리 말고. 이러저러하고 폰을 감추는 이유가 뭐냐 혹시 바람이라도 피는 거냐. 우리 사이에 숨길게 뭐냐. 난 예전에 그님과 연락할 때도 다 말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튼 비슷한 내용이면 됩니다. 이때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녀의 얘기가 끝나길 기다립니다. 얘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침묵이 흐른 뒤에 담배에 불을 붙이며 얘기합니다.

“넌 혹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지 아니? 그것은 로

또를 연속으로 몇 번이나 걸릴 정도로 희박한 거래. (대충 둘러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나는 널 만나게 된 걸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사랑싸움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생각을 해봐.. 우리는 XX년 동안 떨어져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오히려 난 가끔씩 이렇게 사랑싸움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XX야. 오늘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사과할게 있어. 혹시 XX는 예전에 내가 그 친구(그놈 그 새끼 등의 말은 하지마세요.)와 연락하는 것을 기분나빠했던 것을 기억하니? ㅎㅎ 정말. 그때 그랬어. 내가 좀 생각이 짧았었는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더라고.. 당연히 친구랑 연락 좀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애인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왕따되게? 친구랑 연락 좀 하면 어때?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당연히 이해 해줘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 우리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서로 행복하게만 지내도 100년을 못사는데 이렇게 싸우는 시간 아깝지 않니? 자~ 그럼 화해의 의미로 뽀뽀! ^^”

대충 이정도면 되겠네요. 급조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쓰는 멘트로 섞어가며 만들어 봤습니다. 맘에 안 들면 맥락만 이어지게 만들어보세요.^^ 여튼 여기서 주 내용은 ‘정말 그런 일은 니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너무 당연한 것이니 이제 와서 탄소리 하지마라’ 등의 말을 대충 꾸며서 둘러대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잘 넘어가는데 이제부터는 더욱 넘의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유는 신경이 쓰여도 지가 했던 말이 있으니 더 이상 탄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적어봤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개구리가 들어간 물통을 서서히 가열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듯이 아주 은밀하고 천천히 이곳저곳에 텃을 설치해가며 그 상황을 ‘즐기는 것’ 입니다. 자기가 죽어 가는지도 모르고

목욕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와 눈을 맞추며 “물은 좀 어때? 미지근하지는 않니?^^”라고 말하며 온도를 올리듯 말입니다. ^^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세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기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저는 서로 좋아서 죽는 시기(연애초기)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지만 자유연애주의자이므로 언제라도 너를 떠날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은근히’ 흘리면서 그녀의 집착을 유도합니다만 이진 좀 힘들 수도 있기에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쓰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그녀가 위처럼 행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_-;; 사람이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그녀가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버린 듯 신나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애에서 이기는 쪽은 헤어지는 것을 겁내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쪽이라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쪽 읽어보셨다면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님만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멋진 사랑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잠자리 하기

사람들의 성 문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되어 있는 지금 모든 남성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들의 관심은 바로 ‘여자’가 아닐까 한다. 그것은 곧 여자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도 ‘남자’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 다른 점들이 서로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한 습성이자 공통된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식욕과 번식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인간의 문명이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인간에게 저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오래전에 인류는 공멸을 하고 말았으리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성문화 자체가 상당히 개방된 것이 지금 현실이다. 남녀간의 섹스문제를 이전과 같이 터부시하거나 감추고 숨기려는 생각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여자들은 더 이상 혼전순결에 연연하지 않으며 남자들도 여자들의 혼전순결을 강요하거나 당연시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나버린 듯 하다. 사귀는 연인사이에 섹스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레포츠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섹스란 남녀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아끼는 부분을 보여주고 공유함으로써 서로간의 일체감과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며 서로간의 사랑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그 효과가 큰 행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라는 것엔 여러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미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섹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려는 연인 사이에서의 섹스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서로 간에 섹스를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별 부담 없이 섹스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비단 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연인과의 첫 섹스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좀 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을지 함께 풀어나가 보자.

다른 곳에 언급했던 얘기지만 ‘연애는 3관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연애를 하려면 3관이 필수여야 한다는 뜻인데, 그 3관이란 바로 관심, 관찰 그리고 관계인데 이는 쿨가이의 마인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신이 만약 남자이고 여자에 대해서 그저 성욕을 푸는 욕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랑하는 연인과의 섹스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의 첫 잠자리를 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1. 먼저 여자가 나를 만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도록 해줄 것인가를 정하라.

짧게 말하면 출력을 정하는 것이다. 나도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 서로 아끼는 마음이 충분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커다란 연인사이가 됐다 하더라도, 여자입장에서 남자에게 몸을 허락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닐 수 없다. 섹스 이후에 혹시라도 모를 임신이라는 책임을 여자는 혼자 몸으로 지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단 서로 섹스를 한다는 전제 하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여자가 나와의 잠자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다. 여자에게 어떤 출력이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 많이 언급이 되었다. 백트래킹, 10초 숨참기, EC,

EQ, ES, 각종 유목화 등등을 이용해서 일단 여자가 나라는 남자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진심이 아닌 남자의 행동은 금방 들키게 마련이다. 여자의 직감을 우습게보지 마라.

2. 절대 서두르지 마라.

여자가 나에게 안심했다 해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건 절대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몸을 허락한다는 건 여자에게 그만큼 커다란 결정이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것이다. 섹스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그 표현에 섹스만이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섹스 후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과 애정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쾌감에만 매료되어 정작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는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섹스가 아닌 강간이 되고 말 것이다. 당신은 섹스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남자입장에서 섹스의 목적이 과연 정액의 배출인가? 물론 정액을 배출함으로써 오는 쾌감을 무시 못 하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쾌감은 사랑하는 여자가 나로 인해 함께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섹스의 목적이 사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섹스는 둘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상대의 마음의 준비를 더 기다려 줘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3. 섹스로 인한 즐거움을 인식시켜라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산재를 통해 섹스가 주는 느낌들을 시나브로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각종유목화를 통해 상대에게 내가 알고 싶은 감정을 함께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것. 기술적인 부분의 예를 들자면,

“거기 도착하니까, 모닥불 피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구. 거기서 음악도 틀어놓고…….사람들 노래도 부르고……. 커피도 마시면서 놀고 있더라~ㅎ 디게 좋았어~ㅎ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담에, 모닥불을 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라** 가더라고. 가끔 뒤돌아서기도 하고, 다시 불 켜고~ 그렇게 있다가, 친구들이 싸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군밤을 은박지에 싸서 모닥불 주변에 **뜨겁게 달아오른** 숯에 깊숙이 **넣어서** 군고구마하고 군감자하고 군밤을 해먹었지~ㅎ 오빠가 감자를 좋아하구나~ㅎ 이쯤이면 다 익었겠다 싶어서, 까맣게 그을은 감자를 꺼내서 먹는데, 고생 좀 했지~ 은박지를 벗겨야지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침엔 손도 못 대겠더라고~**ㅎ 그래도 결국 은박지랑 감자 껍질이랑 **다 벗겨서** 맛있게 먹었지 뭐야~”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섹스는 둘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서로 즐거워야 한다. 만약 어느 한쪽만 즐겁고 만족하는 섹스라면 그것은 실패하는 섹스가 될 것이다. 모닥불에 나무를 잘 마른 장작을 넣어주면 더욱 커다란 불길을 만들어 준다. 당신이 사용하는 산재, EC, 각종 유목화들은 그런 장작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비록 종족번식을 위해 쾌감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어진 섹스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런 본능을 하나의 남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시킨 오늘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진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신뢰라는 바탕에 사랑이라는 나무를 심고 섹스라는 양분을 주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연애생활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새로운 시도

사랑하는 그녀와 사귀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둘도 없는 닭살 커플이었지요. 서로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첫눈에 반했고, 그 순간부터 저와 그녀는 함께 했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똑같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이전에는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정말 알지 못했어요. 잠자리에서도 그녀는 늘 만족해했습니다. 가끔 제가 알바 때문에 힘들거나 피곤할 때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오빠가 좋았으면 나도 좋았어.”라고 말해주며 위로해 주는 그녀였지요. 그런데 저는 그녀와의 잠자리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성심성의껏 애무를 합니다. 섹스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교감하는 연인간의 성스러우면서도 당연한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럴섹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지요. 그녀와의 잠자리에서 애무를 해주며 전회를 즐길 때 항상 아쉬운 것이 저에게 오럴을 해주지 못하는 그녀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일부러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여자 친구도 그 부분에 조금은 미안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잠자리에서 그녀를 꼭 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만난 것 같아. 서로 많이 사랑하고, 위해주고, 무엇보다 잘 맞잖아. 그치 오빠?”

“당연하지.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도 비슷하고……. 그래도 제일 맘에 드는 건 OO이가 담배를 안피운다는게 제일 좋아. 이답에 태어날 우리 아기도 건강한 엄마뱃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거니까^^”

“나도 우리오빠가 담배 안 피워서 정말 좋아요. 지나가다가 몸에서 담

배냄새 나는 남자들 정말 싫어. 오빠가 담배피우면 오빠한테 이렇게 꼭 안길수도 없을걸?”

“OO이는 담배 피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지?”

“응. 냄새가 너무 싫어서 입에 물어본 적도 없는걸. 오빠 피워 본 적 있어?”

“음.....글쎄~ 알아 맞춰봐^^.”

“피워봤겠지 뭐.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경험 있잖아.”

“ㅋㅋ도사네. 응 한번 피워봤어.”

“진짜? 어땠는데?”

“그때가.....97년 1월 25일 새벽이었어. 그때 내 생일이 지난지 얼마 안돼서 고등학교 선배들이 축하해준다고 모였었거든? 그래서 나랑 선배들 3명에서 맥주를 5000을 마신거야. 그때 내가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었거든. 그래서 내가 금방 취한거지. 5000을 다 마시고 나오는데, 술이 술을 부른다고 술이 또 먹고 싶은 거 있지?~ㅎ 그래서 1년 선배 형한테 한잔 더 하러 가자 그랬어. 그 형이 술을 엄청 잘 마시거든. 좋아하시기도 하구. 그래서 근처에 술집에 가서 어묵 안주에 소주를 두병을 마셨다? 근데 앞에 형이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 형이 담배를 빼는데, **나도 빨아보고 싶다(EC)**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그래서 형한테 피워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흔쾌히 승낙을 해(EC)** 주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입에 물고(EC)** 불을 붙였어~ 형이 그러더라고. **입으로 힘껏 빨아(Ec)** 보래. 그래서 **입으로 주욱~빨았지**. 그리고 담배연기를 목으로 넘겼어.....넘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목이 **타 들어갈 것처럼 뜨겁더니**, 바로 목이 **화끈화끈** 해지면서 **짜릿짜릿** 한 느낌이 싹~ 퍼지더라고.”

“와~ 담배피우면 그런 느낌이구나. 내 친구들은 그냥 습관으로 피운다고 하던데.”

“오래 피우면 별 느낌이 없어지겠지. 당연한 게 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거 알아?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욕중의 하나랑 관련돼 있는거?”

“응? 정말? 에이~ 거짓말.”

“아니야.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를 피운 여자가 담배를 계속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빨고 싶어져(EC)** 서래.”

“빨고 싶어서? 뭘?”

“글쎄.....여자가 성욕을 느끼면서 빨고 싶은 게 뭘까?ㅎ”

“에이~ 변태.”

“하하하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 섹스 할 때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EC)** 주는 걸 남자들은 좋아하잖아? 그런데 여자는 오럴섹스를 할 때 남자가 **홍분하는 모습을 바로 보게 되고** 그런 모습에 자기 자신도 텅달아 **홍분이 고조 되간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즐거워지는 건 당연한 거겠지^^. 그럴 때의 기분이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빨고 싶다** 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것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연결 되어 진다고 하더라고.”

“피~ 엉터리다. 그런 게 어딴냐?”

“ㅋ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말구 그 책한테 가서 뭐라고 해~ 오빠 잘못 없으니깐~ 하하.”

이런 대화 후에 우리는 자연스레 섹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역시 정성스레 그녀를 애무했었고 좀 전에 했던 대화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녀는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오럴을 유도하는 저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 여친의 첫 오럴을 받은 날이 지나가고 후에 그녀가 오럴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떨쳐내 버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처음 오럴을 했을 때의 느낌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긴 그날은 이전과 같은 거부감은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었고, 오럴

을 받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도 덩달아 흥분됐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여친의 오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여친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를 놓아 줄 준비를 하자

몇 개월 전 제대를 하고 복학준비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A라는 여자애가 있었다. 그 애는 나보다 3살 연하로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있었다. 나와 만났을 때는 남자친구가 군대간지 8개월여 되던 때. 우연히 알게 된 것 치고는 서로 이것저것 맞는 것이 많았던 친구였다. 나는 군대를 갓 제대했었고 그 애는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우습지만 군대라는 하나의 공감대 안에서 서로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갔다. 물론 서로 사귀거나 사랑하는 사이로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며 서로를 찾게 되는 빈도가 높아져 갔다는 뜻이다. 이성적 감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의 생활에 대해서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남자친구에게 보내 줄 선물도 같이 사러 가고, 여기저기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가끔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그 애와 나의 사이에 이상기류가 흘렀던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나보다 이 여자애가 더 컸다는 사실이었다. 군대에서 동기나 선임 혹은 후임들이 여자친구 때문에 군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 나는 그 애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고, 그런 내 태도를 오히려 자기를 피하려는 뜻으로 오해한 그 애에게 원성을 샀던 적도 몇 번 있었다. 물론 같은 학교를 다니던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혼자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도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한다. 가끔 그 애와 술을 한잔 하는 날이면 일부러 혀꼬인 목소리로 “나 오빠 애인할까?” 라던가 “오빠 내가 여자로 안보여요?” 등의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가끔 던질 때, 남자로서 해선 안 될 짓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적도 꽤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갈등 했던 걸 보면 그 애가 어느 정도 마음에 있었던 것

이 사실이었나 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도 그녀도 학교를 다니게 된 후로는 만나는 횟수가 방학 때보단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화와 메신저로 연락하는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그녀도 그녀 남자친구도, 그리고 나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해져 가고 있었다. 물론 그 애를 내 여자친구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건 아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있는 그 애 남자친구한테 너무 불공평한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 애를 내 여자친구로 만든다면 그 땐, 그 남자친구가 제대 한 후 정정당당하게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드는 것이 옳았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내 생각은 그랬다. 나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내가 잡아줘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녀를 좋은 오빠동생 이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녀가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난 하루 날을 잡아서 그녀와 함께 했던 장소중 기억에 남을 만 한 곳을 오전부터 다시 가보는 여행을 계획했다. 정말 서로 여행을 갔었던 강촌이나 놀이공원 등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장소를 가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았기에 여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게도 들리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내가그녀를 떠나보내는 최소한의 이별여행이었다. 그녀에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을 비워두라는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라고 깔깔대며 좋아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내 마음 한구석을 조금은 아리게 했다. 그렇게 토요일이 오고 그녀를 만나서 그동안 함께 했던 장소를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날 따라오며 즐거워했던 그 애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자는 장소를 의아해 했고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그 애의 모습은 과연 내가 그녀를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저녁시간이 되고 그녀와 함께 자주 걸었던 청계

천변을 걸으며 그녀에게 준비한 말을 시작했다.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응, 너무 재밌었어. 고맙네~ 나랑 이렇게 놀아줘서~ 근데 오늘 오빠랑 갔던 곳들, 우리가 전에 한 번씩 가봤던 곳 아니야?”

“맞어. 전부 우리 흔적이 남아있던 곳이지. 다시 가니까 어땠어?”

“은근히 새로운 맛이 있던데? 지난번 기억들도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나름 재밌었다고 해주지~하하하.”

“남자친구는 어떻게 지낸데? 연락은 자주 와?”

“응. 근데 이번 주는 무슨 훈련기간이라고 월요일이나 돼야 전화할 수 있네.”

“그렇구나. 남자친구 안보고 싶어?”

“보고 싶지. 이번 주는 전화통화도 거의 못했는걸.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놀아주니까 괜찮아.”

“내가 너 남자친구 대타냐, 하하하.”

“아니야, 그런 거. 가끔 오빠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걸…….그럴 때마다 군대있는 남자친구 생각도 나고……. 그러면 그 애한테 미안해지고…….”

“그래서 말인데, 넌 우리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해?”

“글쎄…….나도 잘 모르겠어. 오빠한테도 그 애한테도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우리가 서로 끌리는 건 사실일거야. 성격도 잘 맞고, 취미같은것도 비슷하고. 나도 가끔 네가 여자로 보일 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오빠 오늘 좀 이상하다. 우리 오늘 돌아다닌 곳도 그렇구…….무슨 일 있어?”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비록 내가 너 남자친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남자

친구를 기다려 오면서 잘 참아 낼 수 있던 건, 너희 둘의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것 같기도 하구. 그 사이에 내가 나타나서 너희 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한 적도 많아. 물론 네가 날 많이 꼬시긴 했지만 하하하.”

“에이, 내가 언제 오빨 꼬셨냐? 순영터리.”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고 즐겁게 지내는 걸 만약에 남자친구가 안다면 어떨까? 나도 제대한지 얼마 안돼서 군대간 남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안단 말이야. 너랑 나랑은 오늘 이렇게 놀다가 헤어지고 집에 가서 다음에 또 만나서 노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남자친구는 면회나 외박 때, 아니면 휴가 때 나와서 널 만나고 돌아설 때의 시간들 하나하나가 힘들고 아픈 순간이라는 거지. 왜 그런 말 있잖아.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었다. 뭐 그런 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군대에 있는 너 남자친구한테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야. 이렇게 가다간 셋중 결국 한사람이 아파지게 되리라고 생각해.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너를 내 여자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너 남자친구가 제대하고 난 다음이 돼야 하겠지.”

“그럼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는 소리야?”

“너는 이제 오빠 안 만났으면 좋겠니?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부터 바로 사랑을 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겪어보면서 서서히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가 쉬울까? 오빠 후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만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지. 둘의 사이가 사랑으로 발전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너 좋은 동생이야. 너를 이성으로 보기 전에 먼저 좋은 동생으로 봐왔다는 거지. 그런 예쁜 동생을 이렇게 쉽게 잃는 걸 누가 원하겠어. 서로 선을 지키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남자친구 기다리면서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지 오빠 찾아도 좋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오빠, 동

생 사이라는 선을 지키자구. 내가 좀 바쁘긴 하지만 네가 쓴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놀아줄게. 하하하.”

“뭐야, 바보. 순 엉터리.”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잘해줘. 나중에 휴가 나오면 오빠도 소개시켜주구.”

“.....고마워. 오빠가 그 정도로 날 아껴주는지 몰랐어. 솔직히 나도 남자친구하고 오빠 사이에서 갈등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나도 힘들고 외로운데 그럴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오빠니까.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남자친구 생각을 버전이 하고 있구…….나 너무 못된 애 같은데…….고마워.”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그날 우리는 조용히 청계천변을 걸으며 이별여행을 마무리지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 그녀는 남자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특하게 기다렸다. 물론 중간에 다른 남자들로부터의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난 그 애에게 불러나가서 푸념과 신세한탄을 들어줘야 했다. 물론 그것들은 나로써도 재미있는 시간들이었고…….우스운 건 남자친구가 제대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둘이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기다렸던 그 애가 그렇게 헤어졌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다. 난 그 애의 옆에서 또 신세한탄을 들어줘야 했었고…….ㅎ

그 때, 난 그렇게 그녀와 헤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이었다. 그런데 과연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그녀와 난 어떻게 됐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

쿨가이, 그 후



쿨가이가 이루어야 할 것

여자 친구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하고 생각해본 적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생각들을 여자에게 쏟아 부었던 적이 있는 남자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기 시작하려던 때였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판매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 시장을 형성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감성마케팅이 대박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것은 마케팅의 주류가 되었다. 이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에 가까운 것을 말해준다.

예전에 음와심권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다. 합리적인 이유 달기, 합리적인 지성을 과신하고 타인에게 강요하기,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말씀이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합리적인 지성을 과신한다. 그래서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려한다. 나 또한 그러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옳은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바로 ‘합리적으로’ 반론해서 무너뜨렸다. 그렇게 남에게서 나타나는 모순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논리를 붕괴시키고 합리적이라 믿는 내용을 남에게 쏟아 부었다.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런 논쟁에서도 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 안의 모순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 그제야 남한테서 찾아냈던 그 많은 모순들처럼 많은…….그러나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모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주제에 관해 음와심권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래에 인용해 본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모순 덩어리임을 인정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나는 인간인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모순성을 발견하고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멋있는 말이구나 하고 넘겨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음와심권님의 이 말 씀에 정말로 깊이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합리성을 향한 맹신을 버리고 모순 덩어리인 자신과 인간을 알게 되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발전이 있게 된다.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모순을 발견한다면 상대방 또한 당신 안에서 모순을 발견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생각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이 합리적이라고 믿을 때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야말로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모두가 나름의 합리성을 가 지고 있다. 아니, 모두가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일명 좌뇌의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 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우리의 행동들은 신경계의 반응일 뿐이다. 그렇게 이미 선택된 행동에 우리의 두뇌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갖다붙인다. 그렇게 해서 마 치 우리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럴만한 프로세스가 그 사람의 삶 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타인은 당신과 다른 경험을 해 왔으므로 당신과 다른 프로세스를 행해왔다. 당신의 프로세스가 만들어 낸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과 그것이 같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 유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진지한 통찰이 있고 나면 자연스럽게 상 상대방의 생각들을 있는 그 자체로서 인정하려는 마음이 들게 된다. 자신 과 다른 생각을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만한 경험들을 해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0초 숨참기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당장에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서 제안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깨우친 뒤에 나는 상대방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아도 그냥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습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투성이인 주장으로 여겨져도 말이다. 또 상대방의 말에 대해 내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찌 생각하든 알아서 생각하라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줄도 알게 되었다. 덧붙이자면 어떤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반박이 없었다고 해서 그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의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면 남의 생각을 인정하고 허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타인의 아픔 또한 더 진정어린 마음으로 이해해줄 수 있다. 이러한 인정하는 마음을 안가지고도 쓰기만 하면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으로 백트래킹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녀 대화 심리학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타인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그렇기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쿨가이는 다른 남성들보다 효과적으로 여성의 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순됨을 자각하고 타인의 세계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쿨가이가 이루어야 할 첫걸음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어루만져서 슬픔 같은 부정적인 자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긍정적인 자원으로 끌어내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자원에서 긍정적인 자원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남성이 쿨가이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잘 이해해주는 좋은 이미지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조절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거기에 쿨가이의

센터링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일이나 긍정적인 감정에 몰입해서 더 나은 삶을 이룬다. 그리고 관망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몰입과 관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원 상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센터링이다. 센터링을 잡아야 한다며 무조건 그녀 생각에 행복해지는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악을 쓸 필요는 없다. 당신의 전체성에 있어서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녀와 상관없는 때에 그녀 생각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도 괜찮다. 간혹 그녀 생각은 무조건 떨쳐버려야 한다든가 그녀가 관계 없을 때에는 무조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센터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녀와 상관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녀 생각으로 행복해지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며 기분 나빠해야 하는 것이 센터링인가? 그것이 당신의 전체성에 기여할 때에도? 그녀 덕분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행복을 그녀와 상관없는 때라고 무조건 찢어버려야 하는가?

음와심권님께서 따로 말씀하셨듯이 센터링이란 것은 삶의 전체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전체성에 있어서 자신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 몰입과 관망을 이뤄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음와심권님의 말씀 중에 또 공감하는 것이 여러 여자와 섹스 하는 것이 쿨가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쿨가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쿨가이란 그녀와 나 둘 다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기예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센터링을 잡은 쿨가이는 또한 남성성의 해방을 이룬 사람을 가리킨다. 남성해방학에 관한 책에는 해방된 남성에 관해 아래와 같은 얘기를 한다.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과 함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투명한 상태에서 성인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면서…… 그는 지나치게 수줍어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자부심을 갖고서 사랑의 춤에 몰입할 수 있다.

그렇다. 쿨가이는 바로 스스로의 남성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여성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해방된 사람, 여성을 한사람의 독립된 개체로써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충분히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쿨가이의 심혼에서 말하고자 하는 남성성의 해방을 이룬 사람인 것이다.

tip. 이별하는 방법

→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타입은 애매모호하게 이별하거나 이별 후에도 질질 끌며 가끔씩 연락을 하며 상대방에게 기대를 일으키는 타입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는 중에 이별한다면 딱 잘라서 이별하고 매몰차게 연락을 끊는 것이 그나마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다. 상처를 거의 없게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꾸준히 옆에서 그녀의 자신에 대한 애착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자신에게 집중된 애착을 다른 것에 돌리거나 없애서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상대방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쿨가이가 되고 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평탄한 길을 하염없이 걷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길은 울퉁불퉁한데다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통에 결코 평탄하지 않을뿐더러 길가풍경은 순간순간 넓은 들판이 보이는 가하면 건물들이 있다가도 큰 강물이 흐르기도 하고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가 하면 담벼락이 쳐있기도 하는 등 다양한 풍경이 나타난다.

남녀문제로 국한해서 살펴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간 함께 하는 것과 만나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대략 두 가지 경우로 압축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양한 만남이 그 안에 존재하며, 일시적인 만남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만나다가 다시는 절대 보고 싶지 않는 사이가 되어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백번에 가까이 선을 봐서 결혼하기도 하는 등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다. 10대에서 20대를 거치면서 변변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30대에 접어들면서 혼자 살까하는 생각을 했던 나는 사실 여자를 대하는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연애들 제대로 못해 본 많은 남성들이 나와 비슷할 거라 믿는다.

나는 그랬다. 내가 연애하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을 끄는 여자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 발생했다. 내가 저 여자라면 연애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여자를 회피하게 되고 그 앞에서 서면 말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타기도 하며 어떻게 사귀자고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했다가도 그 앞에서만 하늘이 노래지며 혹 사귀자고 말을 했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이렇게 근처에서 맴도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머물다가 다른 남

자가 채가는 모습을 멀뚱하니 보고나서 혼자서 서럽게 울며 술잔을 기울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러나 늘 변명거리는 넘쳐났다. 여자들이 보는 눈이 낫다, 나를 이해해줄만한 여자는 세상에 없다, 나는 여자보다 공부가 좋다. 지금 급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학점이다. 졸업하면 여자가 생길 거다 등등~

나이 서른에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존 그레이의 책들, 데보라 태넌의 책, 그 외 연애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기술을 전수받았고 남녀의 차이를 어렵듯이 이해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를 만나 연애를 했고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한 쌍의 바퀴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며 결혼을 했다.

그리고 쿨가이를 만났다. 단순히 보면 여자를 유혹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라 결혼한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을 듯했지만, 늘 배움에 목마른 사람이라 그런지 배워서 손해날 것은 없을 것 같아 아내를 대상으로 사용해 보았다.

뜻밖의 성과들이 나를 즐겁게 했다. 내가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줄 알게 되었고, 아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제대로 찾아낼 줄 알게 되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가정을 평화롭고 행복한 안식처로 만들었다. 아내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이내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행복을 선물했다.

직업상 늘 많은 여성을 대하고 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늘 좋은 이미지로 여성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또한 쿨가이를 만난 덕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 나 스스로의 감정처리에 능숙해져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 한없이 짓누르던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벗어날 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사는 게 늘 신나고 가슴 설레며 즐겁다.

쿨가이는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기술이다.

나는 쿨가이가 되었다

나는 바람둥이도 카사노바도 아니다.

나는 연애 중독자다. 내 인생의 팔 할은 여자였다. 언젠가 중학교 어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와 연락을 끊어 본적이 없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대화 거리를 찾아 공부하고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면서 학주를 피해가며, 시커먼 철통같은 뺨뺨을 숨겨 가지고 다니면서 두 발 단속을 피해 2시간 일찍 등교하면서도 내 머리에 든 것은 여자 여자 여자뿐이었다. 특별한 여자일 필요는 없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 첫 만남의 두근대는 감정이 좋았고, 손을 맞잡을 때의 감촉이 좋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기까지 상황을 지배하는 밀고 당기기의 연애 놀음이 재미있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과행사가 무언지도 모르는 신입생 시절이 지나는 동안, 수십 명의 여자들을 만났고 또 헤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무던히도 잔인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만나던 애들과는 달리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애들은 전혀 사랑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지 못했다. 너에게 준 마음 따윈 처음부터 없었다고 아무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미친 듯이 전화 하고, 죽겠다고 난리 치고, 집에 술 먹고 쳐들어오는 애들도 있었다. 나는 좀 귀찮아했을 뿐 무관심으로 일관 하다보면, 어느새 자신들이 먼저 지쳐서 떨어져 나가곤 했다. 나는 그들이 좀 힘들어도 결국은 딴 남자 만나 잘 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다.

그 애는 립살롱을 나가던 여자애였는데 그렇다고 누구와 함부로 사랑을 나누는 아이는 아니었다. 무척이나 불쌍한 여자애였다. 고등학교 때 새 아버지한테 성폭행당하고 집 나와서 목표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삶의 의욕이 전혀 없던 애였다. 그 애가 나 때문에 자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 살고 싶은 희망까지 빼앗아 버렸다는 거다. 그 애 친구

에게 전화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 속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았다.

바람둥이 되기에 혹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바람둥이는 되지 마라.(현빈이 하는 말하곤 조금 다른 의미다.ㅋ) 그리고 이왕 바람둥이가 된다면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고 나서 시원한 존재가 되도록 하자.

그 정도로 충격 먹고도 내 병은 고쳐지질 않았다. 진짜 이 중독 두려울 정도다. 대신 바뀐 점이 있다면 그 이후로 나는 최대한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누구를 만나건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헤어지더라도 상처 대신 좋은 추억으로 헤어지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파편화 되고 외로워하는지. 스스로 만든 봉인과 금제에서 늘 상처 입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지. 연애라는 것은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사람을 찾아 사랑 받고 싶고 또 사랑 주고 싶은 우리네 발버둥이라는 것을…….

사람이 100을 만나면 100명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모두가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법 사랑법이 틀리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눈2개 코하나 입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한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해받고 싶어 한다. 또한 아픔을 지니고 있다. 외로워하고 고독해 한다. 그걸 파해 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해라. 그리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함께 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해하자.

웬지 낯두리처럼 되어버렸지만 앞으로는 내 연애 경험을 토대로 여자를 행복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자는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친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여자를 만났을 때도 최고의 남자가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헤어지고 나서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추억
될 수 있는 그런 쿨가이가 되자.

쿨가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94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대학교 선배가 있습니다. 밝은 성격과 상냥하게 웃어주는 여성인지라 96학번 남성들에게 까지도 인기가 많았었던 여행이었죠.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처럼 연상의 여자를 지금처럼 쉽게 사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또한 꽤나 미인이었던 이유로 학교 내의 다른 선배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안할 때문에 더욱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주변 남성들의 시선과 견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배와 저는 무수한 염문을 뿌리면서 공식적인 사귀는 사이로 까지 소문이 났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귀는 거?’ 라고 저와 그녀에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무슨 마법에 걸렸었는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붙어 있을 때 누군가의 질문에 선배도 똑같이 대답할 만큼 우린 걸으로는 조금 더 가까워진 두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신기한 것이 실제로 저희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남들은 사귀는 줄 알고 저희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닌……. 언젠가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비디오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선배는 제 어깨를 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돌려 선배를 바라보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며 가끔씩 그렇게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술을 스틸하지 않을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잠재의식은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선배를 덮쳐버리면 우리의 돈독했던 관계는 곧 끝나버릴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 입술을 스틸해 버릴까...말까...’ 하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서 가장 기억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배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군대라는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지나서 전역 후에 곧바로 만나러 가기도 하였고, 집이 멀기 때문에 한동안 잊고 살다가 간혹 가다 당시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만나게 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간혹 볼 때마다 저는 옛날 생각에 새록새록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전 기억에 빠져들면 저는 곧잘 “사귄다?” 하고 물어보기 일쑤였는데요. 그 때마다 항상 거절도 아니고 허용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좋아하는 남성상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면서, 재벌2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게다가 레즈비언도 아닌 그 사람이 저를 포함한 어떠한 남자도 사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문은 결국 일주일전 선배를 만났을 때 풀렸습니다. 나이를 더 먹어서 겉모습이 달라진 것 이외에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가 쿨가이라는 무기로 가져갔다는 것이겠지요. 선배이외에 친한 친구 녀석을 한명 더 만나서 초저녁부터 광란의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놀던 중간에 ‘왜 사귀는 사람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 참 황당하게 하는 겁니다. ‘응 있었는데 개가 준 목걸이 잃어버리는 바람에 미안해서 헤어졌어.’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때 그간 선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스쳐지나가면서 이것은 병적인 기피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NLP 패턴을 본격적으로 구사하면서, 남자를 기피하게 된 이유를 알아내고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까워졌다가 헤어진 남자부터 시작하여 하향유목화를 기본으로 하여 질문을 진행하자, 트랜스에 빠지더군요. 이런 방식으로 10분 정도 진행했는데 갑자기 선배의 큰 눈에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나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난 거 있어”

“.....”

“정말 기억에 묻혀서 기억조차 안 나던 건데 왜 갑자기 떠오른 거지?”

선배가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낸 사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6살 무렵, 당시에는 동시상영 영화관이 많았는데 가족 중 누구와 함께 그런 영화관을 갔다고 합니다. 표를 끊고 들어갔는데 좌석이 없어서 모르는 성인남자의 허벅지 위에 앉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남자가 6살 박이의 여아인 선배를 성적으로 더듬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의 사건이 남자를 선배에게서 멀리하게 되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내 나이의 청년들의 많은 수가 대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21살에 3살 박이 아빠인 사람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체험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 온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며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세상들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사람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주변의 세상은 한 번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하기조차 곤란한 문제들을 그냥 안고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음와심권님이 쓰신 쿨가이는 단순한 연애교과서가 아닙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자신에게 힘을 더해주기도 남에게 힘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자의 손에 들어간 무공비급처럼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날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틀 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배의 꿈에 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리고 웬지 모르게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며 고맙다고 말을 하네요. ^^ 잠깐이었지만 저는 선배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네요. 남자를 기피하는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선배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분들 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저는 쿨가이니까요.

쿨가이로 산다는 것

인간은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 또는 정당성을 묻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뻔뻔한 동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와 해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평가와 해석은 결국 절대적으로 개념이 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개정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개념이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 시대의 헤게모니를 잡은 개념이 절대적이 아닌 가변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의 개념에 점착되어 자신의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인간들은 나약하다. 나약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행동강령을 사회의 그것에 일치시킨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은 결코 부정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죄의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자들은 자신의 욕망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모든 유형무형의 제도에 억압당한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복종과 죄의식에 의한 좌절감과 욕구불만은 이 세상 저편에 이데아가 있다는 현실부정, 혹은 ‘돈 있으면 뭐해 행복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하는 가치부정(돈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할 확률이 높다.) 이나 ‘부자들 중에 법대로 양심대로 모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졸부들이지…….’하는 식의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르상티망)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쿨가이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약자들의 원한에 가득한 저주를 들을지도 모른다. 유 기독교적윤리관, 사회적 시선, 도덕관념, 성윤리 등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회적 제약은 생각보다 거대하다.

‘몇 살 차이인데….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들이 좋아서 한 일에 대하여 참견하며 이렇게 저주하고 비판하

는 소리를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런 비판자들의 무의식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쿨가이들에 대한 르상티망의 발현일 뿐이다. 부자들의 소비를 과소비(과소비라니 적정 소비는 소득에 따라 개인이 정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소비를 과한 것이니 아니니 왈가왈부 할 것은 안 된다)라 부르며,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나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하지만 부자들이 그런 비판이 두려워 소비를 스스로 줄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을 표현할 만큼 자유로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에게 쿨가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열은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 내는 실천이며, 긍정의 운동이다. 내 마음의 울림에 충실한 삶,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인위적으로 정지 시키지 않는 것. 흐름을 개방하여 아이디어가 있다는 믿음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내 결정을 사회가 정한도덕이나 신에게 맡기는 비겁한 행동을 멈추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내 마음의 외침을 더럽고 추하고 비도덕적으로 보지 않고...자연스러운 내 욕망의 발현으로 보는 것, 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나에겐 쿨가이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성에 대한 욕망의 당당함을 퇴폐, 음란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 한다. 앞서 강자 약자에 대한 설명에서 비유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이를 들긴 했지만 사실 힘의 강하고 약함은 절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인은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는 자유인인 반면 노예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멈추는 자이다. 주인은 현실세계에서의 지배자가 아니며 노예는 현실세계에서의 피지배자가 아니다.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살자.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여기자. 누가 뭐라 하던지 지금의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들뢰즈의 욕망에 대한 명언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너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쿨가이는 이렇게 말한다



NLP 언어패턴 모음

자 오랜 길을 달려 여기까지 비급을 넘긴 행자들이여 수고가 많았다. ‘쿨가이가 되자’ 비급을 익혔으며, 이미 비급을 익힌 자들의 조언을 들었으니 이제 강호로 나가서 내상을 입고 피를 토하고 단발마의 비명만을 남긴 채 쓰러져 이름마저 남기지 못하는 불행한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쿨가이 비법을 얻은 후학은 이제 고수인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불세출의 신공을 얻어 이론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쓰러지지 않겠지만 강호의 세계는 깊고도 넓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미 비급을 손에 넣었으나 깊이 익혀 그 오의를 꿰뚫지 않고 자만하여 죽음을 당한 자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그들이 흘린 피가 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실에 대대로 전수해 오는 공주병신공을 비롯하여 이미 일전에 언급하였던 영원한 좋은친구신공과 저 높은 천산의 봉우리보다도 자신이 훨씬 높다 여기는 제일자빠내경 등은 특히 조심해 방비해야 할 것이다. 허나 세상아래 완벽한 것이란 없는 법!

그 무수한 희생을 겪으며 그들의 무공을 연구한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수법을 분쇄할 파해법들을 발견하였다. 그중 좋은친구신공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할 수 이 수 있는 구결을 정리하여 남기니, 부디 좋은친구신공에 당하여 내상을 입어 주화입마를 입은 자들은 이 구결로 다시 강호로 돌아와 협객으로의 이름을 날리기 바란다. 또한 이 구결을 숙지하고 응용한다면 다른 수법들 역시 능히 분쇄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잠입명령문>

쿨가이 : 유경아, 오빠가 말이야 어제 좋은 일 하나 했다.

김유경 : 응? 좋은 일? 근데 너 자꾸 오빠라고 할래? 쪼끄만 게.

쿨가이 : 어허. 오빠라면 오빠 줄 알 것이지.

김유경 : 맞고 시작할까?

쿨가이 : ㅋㅋ 일단 좀 들어봐. 내 친구 대원이 있잖냐. 맨날 짝사랑만 하다 여자 한 번 못 사귀어 본 그 썩맥 녀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거야.

김유경 : 근데 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야 네가?

쿨가이 : 그 녀석이 자기는 맨날 프리포즈 해봐도 차이기만 했다고, 자신이 없다는 거야. 편지 쓰는 것 좀 도와 달라더라고~ 그래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수 가르침 을 내려줬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 도와줘야지^^

<산재>

김유경 : 해... 네가? 넌 그런 거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완성됐어?

쿨가이 : 읽다 보면 저절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한 남자의 **사랑에 빠져버린 핑크빛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슴 깊이** 와 닿게 묘사했지~ 아마 어떤 여자라고 해도 **진심이 담긴 그 편지를 읽으면 절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되고 말걸?

김유경 : 치~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친구분은 고백 잘 했대? 성공?

쿨가이 : 말이라고 하니? 오빠가 힘을 썼는데 당연히 성공이지^^

<페이싱 리딩>

김유경 : 와 좋겠다. 근데 둘이는 원래 아는 사이였대?

쿨가이 : 알고 지내긴 한 삼사년 알고 지냈나보더라. 그냥 편하게 마음이 잘 맞는 선후배 사이였는데, 여자 쪽한테 좋다고 작업 들어오는 남자가 생겼다나봐. (페이싱)

김유경 : 그래서?

쿨가이 : 처음엔 대원이도 잘 됐으면 좋겠네 하고 속편하게 있었는데... 이게 애네 둘이 잘 돼가면서 여차 하면 금방 사귄 분위기가 되니까... 점점 가슴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고 불안해지더라. (페이싱)

김유경 : 하하. 실은 좋아했구나?

쿨가이 : 그렇지. 그거지. 그때서야 아 내가 애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야 굴러온 돌한테 뺨길 수 없다고 다짐하고 용감하게 고백을 한 거지. (페이싱)

김유경 : 늦었으면 후회할 뻔 했네 그 녀.

쿨가이 : 응. 나중에 말하더라고. 평소에 편하게만 생각하던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으로 싹트고 있었던 것 같다고. (페이싱) 그런 편안하고 친근한 감정들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리딩)

김유경 : 응... 정말 그렇네.

<연계(그리고 또는 ~ 하면서)>

쿨가이 : 그렇게 그 녀석이 자기 사랑을 손에 넣는 걸 보면서(연계), 사랑이란 건 의외로 가까이에서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김유경 : 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연제(원인과 결과 X + Y)>

쿨가이 :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X) 보다 서로를 잘 이해
해 줄 수 있고 배려하며 예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Y) 네
주위에는 그런 커플들 없어?

김유경 :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그런 커플들이 꽤 되는 거 같네.

쿨가이 : 그치? 그런 애들 보면 요샌 부럽더라. 보기 좋더라고.

<연제(복합치환)>

김유경 : 맞아. 그런 커플들이 보통 오래가고 사이도 좋더라구.

쿨가이 :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곁에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김유경 : 그 전에 자기부터 사람이 되어 있어야 여자가 붙든 남자가 붙
든 하지 임마~

쿨가이 : 그야 당근이지. 난 벌써 사람인데 넌 언제 사람 될래?

김유경 : 뭐야? 이게~ (퍽퍽)

<전제(더블바인드)>

쿨가이 : 하하하 아아아~ 발로 차지 말고~ 차지 마~ ㅠ_ㅠ 우씨...
진정하고 우리 인간답게 얘기하자고. 애가 뭘 먹어서 이렇게 기
운이 세.

김유경 : 네가 맨날 고기 사 맥여서 그런가? 히히.

쿨가이 : 기껏 먹여놨더니 배은망덕이네 요 녀석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만약에 말이야. 유경이 너라면 그런 편안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벌써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네가 먼저 고백해서 사귄 거 같아, 아니면 그쪽에서 프로포즈하

기를 기다렸다가 사귈 것 같아? (사귀는 것을 전제)
김유경 : 음... 고민되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잠입의문문>

쿨가이 : 이미 오래 전부터 네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널 지켜봐 온 사람이 최소한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김유경 : 치... 나 같은 월가닥을 누가 좋아하겠어.(진심이 아님)

쿨가이 : 만일 유경이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이 네 가까이 있다면, 네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한데? (10초 숨 참기)

김유경 : 글썄... 당혹스럽기도 하겠고, 가슴이 뛰기도 할 것 같아...

<불명확한 색인 참조>

쿨가이 :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남자와 사랑에 빠질 때 당혹스러움과 벅찬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고 하더라^^

김유경 : 몰라... 우리 이제 딴 얘기 해.

<메타포>

쿨가이 : 딴 얘기? 좋아. 유경이 너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지?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 말이야^^ 근데 그거 알아? 아무도 몰랐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어.

김유경 : 뭐? ㅋㅋ 또 뭘 헛소리를 하려고 그러냐?

쿨가이 : 어허. 잠자코 들어봐.ㅋ 토끼는 거북이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어. 사랑했으니까... 당연한 거였지. 하지만 거북이는 너무도 느린 자신에 대해 비판만 하면서 언제나 슬픈 표정 만 지었어. 그런 거북이 때문에 토끼는 너무 슬펐던 거야.

김유경 : 오, 제법 괜찮은 변주인데?

쿨가이 : 그치?ㅋ 항상 어두운 표정의 거북이를 멀리서 지켜만 보던 토끼는 결심했대. 자기 자신을 비판만하는 거북이에게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아 주기로.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를 놀리면서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지. 거북이는 경주를 승낙했어. 그런 거북이를 보고 토끼는 기뻐어. 바보같이…….

김유경 : 음…

쿨가이 : 시합이 시작됐어. 당연히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앞서 나갔지. 결국은 토끼 뒤로 거북이가 보이지 않게 됐어. 그러자 토끼는 불안해졌어. 그래서 거북이가 올 때까지 자는 척하며 기다리기로 했지. 자는 척 하는 토끼의 맘속엔 거북이가 자기 옆을 지나갈 때, 자기를 깨워서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토끼의 바람일 뿐이었지. 거북이의 맘을 상하게 한 이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토끼는 잘 알고 있었어.

김유경 : 그래서 어떻게 됐어?

쿨가이 : 거북이는 토끼가 안보여도 열심히 달렸어. 오직 정상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자고 있는 토끼를 제치고 경주에서 이겼지. 하지만, 이걸 몰랐을 거야. 거북이가 자는 척 하는 토끼 옆을 지날 때, 남몰래 흘리던 토끼의 눈물을…

김유경 : …….

쿨가이 : 경주가 끝난 후 토끼는 자만과 교만의 상징이 되어 버렸고, 거북이는 인내와 끈기의 표상이 되었지만 하지만 토끼는 기뻐어. 바보같이… 아마 토끼와 거북이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처럼 보여도 그중에 한명은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고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

김유경 : 어떡해, 나 감동 먹었나봐... 멋있다...

쿨가이 : 네 곁에도, 어찌면 내 곁에도, 토끼처럼 보이지 않게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잠입제안/부가의문문>

김유경 : 내 곁에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조금 들뜬 표정)

쿨가이 : 네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겠지만, 내가 토끼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진실한 사랑을 주어보자** 하고 마음 먹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니?**

김유경 : 으응... 그럴지도...

<부정명령문>

쿨가이 :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무턱대고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지?

김유경 : 몰라. 안 그래도 요새 외로워 죽겠는데 괜히 여자 마음 싱숭생숭하게 하고 있어. 이 나쁜 놈.

쿨가이 :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진 마**.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야지.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 정말 너에게 토끼같은 그런 남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분명 가까이에서 그런 남자가 있을 거야. 널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 줄 사람.

김유경 : 치...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인간적으로 인정해주기>

쿨가이 : (정색을 하고) 왜냐면,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낮간지럽지만... 넌 여자로서도 매력적이지만, 한 명의 당당한 인간으로서

도 충분히 훌륭하고 매력적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김유경 : (발그레) 뭐야~ 사람 난처하게……. 근데 그 말, 진심이야?

쿨가이 : 하하하. 글썄? 네 맘대로 생각해~

김유경 : 이 스비르르~

이 외에도 여기에 쓰이지는 않았지만 시제, 서수, 인식, 부사와 형용사를 사용한 전제로 상대를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끄는 언어패턴과 말을 단순화 시키거나 명사화하고 비교하는 대상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나의 말에 반론하지 못하게 하는 언어패턴, 그리고 대화함에 있어서 운율, 진행성, 범위, 말을 잠시 쉬어줌 등을 통한 말의 모호함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언어패턴들이 있다. 이 방법들은 고급기법이어서 지금은 이런 기법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자세한 내용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자.

사랑멘트 모음

1. 여태까지 내가 느끼던 사랑이 그 여자를 가지고 싶은 사랑이었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사랑은 널 아끼고, 지켜주고 싶은 사랑이야.
2. 너를 이 세상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그 어떤 남자들 보다 훨씬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3. 내 눈 속에 네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맘속에 네가 있는 거지…….
4. 사랑하면 죽을 때도 맘대로 죽으면 안 돼…….이 세상에 혼자 남겨질 널 생각하면, 난 절대 저렇게 쉽게 못 죽어.
5. 오늘부터 하루씩 하루씩, 하루에 하루만큼 널 잊어 갈 거야.
6. 지난 사랑 때문에 힘든 건, 그 사람이 옆에 없어서가 아니야…….그 사람과 남긴 흔적과 추억 때문이지…….
7. 내 인생에 있어서, 넌 로또 1등 같은 존재야~
8. 응, 여자 많이 꼬셔봤어 그런데, 아무 여자나 함부로 꼬시진 않아
9. 쉽게 뜨거워진 사랑은 쉽게 식는 법이래. 너나 나나 서로 끌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 사이가 쉽게 식어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10. 앞으로 울일 있으면, 꾸~옥 참았다가 내 앞에서 울어. 내가 네 눈물 닦아줄 수 있도록
11.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너를 잊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일기장에서 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널 사랑해 볼래. 그리고 이 일기장이 너의 손에 가게 되는 날……. 그날은 내가 널 잊는 날이 될 거야.
12. 혹시나 내가 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그러니까, 내 숨이랑 심장이 멎었을 때…….내 앞에서 딱 5분만 기다려봐. 얼른 하늘로 올라가서,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다시 내려 보내 달라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올게. 내 말발 알지? 5분이면 되.

13. 아마…….너랑 싸우게 된다면…….비록 너 앞에선 자존심 세우고 화냈겠지만, 그 답엔 난 아마 어디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거 같은데? 너 전화만 기다리면서 말이야……. 서로 자존심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서로 생각해보자
14.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처럼 항상 잘 해줄 수가 없을 거야. 가끔 화낼 때도 있을 거구, 우리가 서로 싸우기도 하겠지? 그럴 때가 절대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오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사랑 지킬 수 있게, 항상 노력할게. 지금 이대로만 서로 사랑하자
15. 지금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건…….그만큼 우리 다음에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거자나…….조금 아쉽더라도 우리조금만 참자
16. 지금 나한테 중요한건,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누구 사랑이 더 크고 깊은 거야…….사랑에 순서는 없거든…….
17. 내가 널 사랑해서 바보가 된다면, 나 그냥 바보 할래.
18. 내가 너의 인생에서 첫사랑, 첫 남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되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지만…….)너의 마지막 남자가 되고 싶어…….(마지막 남자가 되려고 노력할게)
19. 단 한번도 너한테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나 자신을 속인적은 없단 소리야…….그래도 계속 화낼 거라면 난 더 이상 할말 없어
20.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한데…….지금 이 비가 그치면, 아마 세상에 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겠지? 너의 웃음 말이야…….
21. 당신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 보단…….
당신을 알고, 지금 죽는 게 나아요…….(영화 포카혼타스 중에서)
22. 널 얼마나 사랑하냐구?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한 열세배 정도 더 사랑해

23. 세상에 정해진 게 있다고 생각하니? 누가 원래 누구 애인이고, 친구고……. 그런 게 도대체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던 건데? 세상에 절대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는거구.
24. 그 사람은 널 보고 주변이 환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난 너로 인해 이 세상이 환해 보여…….
25. 자존심? 내가 너 앞에서 그걸 버려야 되나? 왜? 자존심이 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맘이 없으면 절대 생기지 못하는 게 자존심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나보고 버리라고? 나를 사랑하는 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맘을 버리는 건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을 사랑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난 너 때문에 자존심 버리는 것 같은 건 안 할 거야.
26. 이 핸드폰 줄이 왜 빛나는지 알아? 우리가 만날 때, 혹시나 깜깜한 밤이어서 네가 날 찾지 못할 때 이 빛을 보고 날 찾으라고 빛나는 거야…….
27. 사랑이란 건…….저기 기차길처럼 조용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레일 하나로는 기차가 다닐 수 없듯이, 나도 네가 있어야 진정한 내가 되는 거야.
28. 난 사랑이 뭔지 몰랐어. 지금도 완전히 알지 못하구. 근데, 이젠 그게 뭔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 너 만나기 전엔 이런 느낌 없었거든…….
29. 왜 너를 사랑 하냐고? 그걸 말로 표현하라고? 내가 너 얼굴, 몸, 성격이 좋아서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바보…….사랑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난…….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지금 내가 왜 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거든.
30. 그래…….버스는 이미 떠난 거겠지? 떠난 버스 뒤에 손 흔들어 봤자 의미가 없을 거야.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겠지…? 그런데, 조금 전에 떠난 버스가 막차였던 것 같아. 아마도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31.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만나는 사이보단, 네가 날 먼저 필요로 해서 만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32. 네가 처음부터 날 좋아하는 걸 바랬던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없을 거고. 단지, 앞으로 내가 어떤 놈이지만 서서히 알아가 보라는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33. 절대 돌아오지 마. 그때는 네가 날 떠난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고 아파. 그때 내가 널 그냥 보냈던 그 선택이 바로 내 잘못이 되거든.
34. 널 만나려고 26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몇 시간 정도 기다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35. 인간언어의 한계가 뭔지 알아? 바로 너에 대한 내 마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36. 24살의 OO이…….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했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젠, 25살의 OO이를 사랑해야겠지.(소설 냉정과 열정사이 중에서)
37.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 중에서…….아니,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아니,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 4천5백만 인구 중에서…….아니아니, 좋아. 세이클럽 동시접속자 500만 명중에서 우리 둘이 만났어. 너와 나 라는 이름으로 둘이 만나서 서로 알게 됐단 말이야. 이게 보통 인연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넌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달라. 우리가 인연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마주앉아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말은, 우리가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앉아 있는 거야.
38. 옛날에 어떤 만화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별의 궤도마저 바꿔버리려는 캐릭터를 본 적이 있어. 그 매력에 빠져(EC)서 만약, 내 운명이 별의 궤도로 정해져 있다면…….내 운명이 내 손금에 정해져 있다면…….나 역시 그 별의 궤도를 바꿔버리던가, 내 손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서라도 내 운명을 바꿔버리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어. 물론 내 운명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변한 건 아니고, 바뀐 내 생각은 그 순서야. 만약에…….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별의 궤도나 손금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잘못되고 비뚤어진 나 자신이 올바르게 바뀐다면…….
- 내가 바꾸고 싶었던 것들 역시 자연스레 바뀌지 않을까?

39. 내 사랑은 땀입니다…….너무나도 흐르고 싶은 마음을 힘들게 막고 있는…….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그것도 아주 많이…….그래야 이 땀의 수문이 열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40. 생일선물? 벌써 받았는걸…….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야.
41. 생일선물?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은…….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니 마음…….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야.
42. 너…….마약 같아…….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근데…….이 마약을 끊기가 싫은거 있지? 평생이라도 좋으니, 중독 되버리면 안 될까?
43. 여자는 한달에 한번 마술에 걸린다며? 근데, 어찌지? 나 남잔데도 마술에 걸린 것 같아…….“너”라는 마술에…….
44. 저에겐, 너무나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을요……. 그녀는 바보입니다. 그녀는 제가 이다음 늙어 죽게 되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그 거짓말을 믿어주며,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합니다. 또 저만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바보를 너무 사랑합니다…….
45. 고마워…….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줘서…….다른 사람이 아닌 너라는 여자가 말이야…….
46. 고마워…….뭐가 고맙냐구? 네가 나랑 사귀어 줘서 정말 고맙구, 나 좋아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구. 그런데, 제일 고마운 건 오빠 인생에서 이렇게 오빠 앞에 나타나 줬다는 거. 그게 제일 고마워. 너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테니까.
47. Please try to keep in mind, that love takes time.(영화 에디머피의 구혼작전 중에서)
48. 너처럼 이쁜 여자가 왜 여자로 안보이겠어…….그런데 사람은…….아니, 남

자는...손잡으면 팔짱끼고 싶구, 팔짱끼면 안고 싶구, 안으면 키스하고 싶구,
키스하면.....남잔 다 늑대라구~^^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괜
히 실수해서 너한테 점수 깎이고 싶진 않아. 너 잃고 싶지 않다구 바보야.

49.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대쉬해 주는 건 고마운데,
네가 나한테 쉽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쉽게
행동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50. 우리사이엔 항상 현재분사였으면 좋겠어. 완료형은 정말 싫거든.

51. 사람은 낮에는 이성의 지배를 받고, 밤에는 감성의 지배를 받는데. 근데,
난 지금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너땀에.....

52. 사람은 누구나 낮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밤에는 감성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너도 낮보다 밤에 쓰는 편지를 더 좋아하잖나? 그런데.....지금 이성
적인 나를 원하는 거야? 내가 왜 나를 속여야 되지? 너한테 진실하려면,
일단 나 자신에게 진실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53.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사랑을 받아보기만 한 사람은, 주는 사랑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사
랑을 주기만 한 사람들은, 사랑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면밖에 보질 못 하는 것 같아.....
내가 사랑을 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비록 내 사랑을 주기 힘들더라도, 나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 마음은 분명히 통할거야.....
반드시.....
혹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도, 미안해 하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기쁨을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맘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54. 난 너의 옆에 있지만.....
넌 그의 옆에 있고.....

난 너를 바라보지만.....

넌 그를 바라보고.....

난 너를 생각하지만.....

넌 그를 생각하고.....

난 너를 원하지만.....

넌 그를 원하고.....

난 너의 뒤에 있지만.....

넌 그의 앞에 있고.....

난 너를 제일 좋아하지만.....

넌 그를 제일 좋아하고.....

하지만.....

어디선가 너도 나처럼.....

55. 암 말기나 에이즈 같은.....그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일까?
아닐 거야.....아마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나한테, 이렇게 앞에 나타나 줘서 고마워.....아직은 나에게 남은 삶이 많다고 느껴질 때 널 만나서 정말 행복하지만, 나의 시한부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널 만났어도, 당장 내일 내 목숨이 끝나더라도 오늘 너를 만났다면.....지금처럼 행복했을 거야.....내가 만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니까.....사랑한다.....
56. 아무리 가벼운 것을 들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지는 법이야...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비록 지금 너한테 나란 존재가 가볍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한테 무거운 존재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절대 잊지 못하도록...
57. 모든 여자들은 남자한테 특별한 사랑을 원한다나봐...하지만 난....너한테 당연한 사랑을 보여줄게

58. 한번 거른 끼니는 두 번 다시 못 챙겨 먹자나..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네 모습도 지금 이 순간에 보지 못하면 놓친 순간의 모습은 평생 못 볼 거니까...그래서 자꾸 쳐다보게 되나봐...
59. “슬픈 것은 아름다운 것 같아.....기쁘고 즐거운 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물론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 지게 되고, 결국 그 감정에 둔감해 지잖아.....그럴 때 가끔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감정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그 반대되는 감정들을 이전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해주는.....슬픔이 없으면 기쁨과 슬픔도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해. 그만큼 슬픔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슬픔이라는 두 글자가 말이야. 기쁨과 즐거움은 이뻐. 그 감정 자체로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 하지만 슬픔은 아름다워. 그 누구도 슬퍼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 역시 사라지게 될 테니까..... ”
60. 난 지금 그 애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그 애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야.....
61. 우연히.....
 아주 우연히 알게 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이 멍해지는
 저를 느꼈습니다.
 여태껏,
 ‘첫 눈에 반한다.’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던
 제 앞으로.....
 그렇게 그녀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도
 그녀에게 빠져들기만 하는 저를 느꼈습니다.
 현실에서의 그녀는 다른 사람의 여자였지만,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저의 여자였으면 하는 강한 바램이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화와 문자, 방명록에 글 남기는 수준의
 너무나도 쉽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작업(?)이었죠.....
 그녀에게 처음부터 무언가를 바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이가 제 편이었는데,
 저에게 서서히 맘을 여는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끌리는 동안,
 두 번 얼굴을 보게 됐었고.....
 그녀와의 채팅, 그녀와의 문자질,
 그녀와의 통화가 계속될수록.....
 다시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확신해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도,
 지금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그녀의 사진은, 여전히 절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옆에 놓여 있는 그녀가 처음 저에게 보내줬던
 편지에는,
 그녀의 맘에 이미 한 남자밖에 없다는 것을
 웃으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지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녀가.....아니, 나 ‘비요일’ 이라는 남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가, 지금 누구의 옆에
 있는지.....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그녀와 제가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순간 불타오르고 쉽게 꺼져버리는,
 가볍게 여겨지는 하찮은
 사랑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녀는 저를 떠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는 혼자되는 저 자신이
 두렵습니다.
 아직 줘야 할 사랑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 사람이 없어.....
 그 사랑들과 함께 나 자신을 버리게 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알지 못했다면, 이미 혼자였던
 저는 이런 두려움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알게 되어버린 지금.....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 겁이 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여자 많이 만날거라고요....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 그녀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중에 또 사랑이라 생각하는 감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생기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 마음속에 너무 커다랗게
 자리 잡은 'O O O'이라는 여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마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봅니다.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저에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된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친 후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웃으려 합니다.....
힘들고 아프다고 인상 찌푸리는 저를,
아마도 그녀는 싫어할 테니까요.....
그녀가 생각하는 저의 그 자리에.....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 그 모습처럼,
저를 보고 웃어줄 그 날이 다시 오기를요.....
저를 사랑해주는 그녀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바랬던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었던.....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세
상의 모든 연인들께 바치며.....

written by Sad-rainyday